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性認知的 운영 방안

연구책임자 : 박 성 정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 민 승 (객원연구원)

발 간 사

교육이라는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대학은 다른 영리적 기관들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은 여성의 의식화, 세력화를 통해 여성의 진정한 발전과 사회적 성평등 제고에 기여할만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을 위해 교양 및 취미교육,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성의 정체성 및 의식의 확립이나 직업종사 영역의 확대,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통제력 증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공학대학은 물론 여성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세력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자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대학들이 여성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다른 기관들에 비해 대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며,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없는 교육영역을 대학들이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현재적 요구만이 아닌 미래적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여성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의식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 성별 관계의 평등성 제고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가 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진과 본 연구의 조사에 협조해주신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연구요약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원을 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대학이 여성의 발전과 불평등한 사회적 성별관계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평생교육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의 의식 및 전문적 능력 개발, 그리고 여성의 세력화에 기여하도록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둘째,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대학평생교육원이 향후 여성발전과 사회적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기관운영 전략이 필요한가

II.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오늘날 고등교육은 경제구조, 인구구조, 정보화기술 발전 등의 사회적 변화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중심주의적 교육서비스 제공,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재정자립의 필요성 증대 등 고등교육 환경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 인구의 감소와 노년층 인구의 증대는 교육참여자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입학생 확보 위기와 함께 성인과 노년층이 교육의 주 소비자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가운데 성인 비율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과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고, 증대하는 성인입학자의 요구에 맞춰 대학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고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은 초기에는 대학의 학문적 지식을 시민들에게 확산하여 시민들의 교양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몽적, 사회봉사적 취지에서 발전하였으나, 현재에는 성인들의 자발적 고등교육기회 요구 증대와 대학의 상업화 경향이 성장의 주 동인이 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공공 지원의 감소정책은 대학을 불안정한 재정상태에 처하게 하여, 대학재정자립을 위한 상업주의적 대학운영 경향이 강조되게 되었고, 경제의 세계화 추세로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중시되면서 이에 대한 대학의 역할 강화가 기대되었다. 세계화와 상업주의는 대학평생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은 시장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대학의 이윤창출원으로 봉사하고 있어, 초창기의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선도자로서의 대학확장교육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은 공익에 봉사하는 기관에서 시장체제내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자중의 하나로 변하고 있다.

외국의 대학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은 여성의 평생교육 접근기회와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식과 지도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의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입학안내 활동의 활발한 전개: 대학 인터넷사이트나 대학내 상담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이나 지역기관에의 파견상담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입학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성인학습자의 학습적응 프로그램 제공: 오랜 기간 학습활동에서 단절되어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성인들을 위해 기초학력보완프로그램이나 학습방법의 교육, 학습분야 선택, 학습설계 등을 도와주는 재입학자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학습복귀를 돕고 있다.
- 교육방법 및 시간편성의 다양화: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학습자들을 위해 원격교육과정이나 개별학습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여성들이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 주말, 단기과정, 모듈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 적극적인 탁아서비스: 탁아시설 설치나 탁아비 지급 등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상담서비스 강화: 학습 및 직업진로, 학습애로 사항 등 성인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료상담, 집단웍샵, 멘토링 등 상담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직업전환 및 경력설계 지원: 취업이나 직업전환을 위해 직업탐색, 적성과 약, 경력설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여성의식과 지도력 강화프로그램 제공: 여성과 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문적 내용의 강좌외에 여성으로서의 의식과 삶의 경험을 표출하게 하는 프로그램, 여성의 정치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식화와 세력화를 지원하고 있다.
- 성공사례 홍보: 성공한 학습자의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성인들이 학습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대체로 홍보하는 성공사례는 여성이나 노인이어서 여성들의 자신감 제고와 동기 부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센터들은 다양한 교양 및 직업전문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여성들의 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정치적 역할 강화 및 지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본 장에서는 국내 대학평생교육원들이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성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 특화적 정책 개발을 위한 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성 분석은 정책이 모든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취약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 많은 성 분석 연구들이 여성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양성 가운데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성 특화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연구자는 성 관점에서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성 분석 항목과 지표를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 성 분석의 제 차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삶의 영역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삶의 어떤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의 삶의 영역은 재생산 영역, 생산 영역, 지역사회활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여성의 노동·시간·자원·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Moser, 1993; Parker, 1993).

둘째, 여성의 요구 영역

이는 정책이 여성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Moser(1993)는 여성의 요구를 현실적 삶의 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실제적 요구(practical gender needs)와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요구(strategic gender needs)로 구분하였다.

셋째, 여성의 권한 영역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어떤 권한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의 제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한은 접근권과 통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의 제 자원으로는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서비스 등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 여성이 접근기회를 갖게되는 접근권의 개념과 의사결정권 및 처분권을 갖는 통제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접근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권한보다는 자원을 처분하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이 보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Gurumurthy, 1998).

넷째, 여성지위의 변화 수준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삶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Longwe는 이를 성평등 또는 여성의 세력화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접근하여, 복지, 접근, 의식화, 참여, 통제의 다섯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통제의 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의 세력화에 가장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Longwe, 1999; UNDP, 2001).

■ 성 분석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 분석 항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의 성인지성, 기관운영 환경의 성인지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성인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정책 상황의 성 분석: 평생교육정책 및 예산정책
2. 기관운영 환경의 성 분석: 인력, 자문체제, 시설, 재정, 홍보
3. 프로그램의 성 분석:
 - ① 개발단계: 대상, 요구조사, 목표, 내용 및 방법 설계, 영향 예측
 - ② 실행단계: 시간 편성, 방법
 - ③ 성과단계: 목표달성도, 영향 평가

성 분석결과는 성 분석의 제 차원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IV.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국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운영은 대학의 교육적 전통과 이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 평생교육원 역시 대학의 일부로서 본 대학의 이념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이념 및 목적, 중점 개설 프로그램의 특성을 기준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을 전문직업교육형, 사회봉사교육형, 의식교육형, 여성교육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전문직업교육형은 전문직업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봉사교육형은 지역사회나 종교적 차원의 봉사에 필요한 교육, 의식교육형은 시민의 식교육에, 여성교육형은 여성직업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대학평생교육원이 한 유형에만 배타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여자대학은 여성 발전을 교육목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성 교육형으로 별도로 분류하였지만, 여성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업교육형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면,母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원의 특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교가 교육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 방향도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기본 방향하에서 상업성도 강화하고 있다. 본교가 비영리적이고 사회봉사적인 교육이념을 추구하느냐 영리적인 접근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학평생교육원의 전체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다. 다만 여자대학들의 경우 본교의 이념은 여성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데 비해 평생교육원들은 여성의 가정생활과 일상적 관심사 위주의 교양강좌와 여성들의 취미를 살린 직업교육과정 중심의 협소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식 성장에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국내 대학평생교육원들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교양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교양과정이 있더라도 실생활관련 강좌가 대부분이며 학문지향적 강좌는 학점은행제 과정에 개설된 외에는 별로 개설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의식교육강좌 역시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극히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 시민의식이나 사회의식 강좌는 물론 여성의식 강좌도 여자대학에서조차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시행으로 학위과정의 운영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넷째, 직업교육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한 취미강좌는 관련된 직업교육강좌로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고, 직업관련 전문가나 지도자과정 등이 많이 개설되는 추세이다.

즉, 대학평생교육 도입 초기의 사회봉사적 가치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대학평생교육원의 직업교육기관화, 영리기관화 경향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교양, 학문, 의식교육 영역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성인교육에 대한 대학의 접근이 너무 직업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은 고등교육 학위취득과 직업자격증 취득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교육에 대한 대학평생교육원의 접근도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여성의식관련 강좌는 공학대학이나 여자대학을 불문하고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공식 강좌가 아닌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 중 강사에 의해 여성의식이 제고될 수도 있으나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여성의 성장에 평생교육이 근본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대학의 경우도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강좌는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의식과 역할 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오히려 진보적인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여성의 성별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강좌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전체 대학평생교육원 강좌에서 그 비중은 극히 낮다.

둘째, 교양강좌의 경우 가족관계, 가정관리, 인간관계 등 여성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만한 강좌 위주로 개설되어 있어 대체로 현실유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여자대학의 경우는 아직도 교양교육과정에서 주부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강좌(부모역할, 전통예절, 노인건강관리 등)가 많이 남아 있다. 여성의 사회적 관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개설은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여자대학의 경우 학점은행제 과정도 미용, 디자인, 조리 등 여성취향과정들로 특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여자대학은 교양, 학점제, 직업강좌의 여성관련성이 큰 편이지만 현재의 여성의 삶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변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학평생교육원의 주 이용자가 여성이어서인지 여자대학뿐 아니라 공학대학도 여성취향적 직업교육과정의 비중이 큰 편이다. 여성취업이나 창업이 용이한 요리, 미용, 교육, 간호, 보육, 상담 관련 직업교육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취미와 연계된 직업강좌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강좌개설은 당장은 여성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직업교육영역의 제한성, 여성직종에의 집중 등으로 여성들이 남성이 지배하는 새로

운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직업과정, 전문가과정에 “직업분야 지도자과정”이 있으나, 여성의 세력화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정치·문화 분야의 “여성지도자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원의 접근은 영리추구의 압력앞에서 여성의식과 사회적·정치적 지도력 함양을 위한 교육, 현실변혁적 교육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식 및 역할 확립에 관한 교육이 매우 미약한 점, 여성직업교육이 전통적 여성 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점, 그 결과 직업교육 영역에서 일반 기술학원과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직업의 성별 분리 극복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나 사회적 지도력 발휘를 유도하는 교육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V. 조사결과

대학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면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관계자들은 대학평생교육원의 현재의 중점 교육영역으로 직업교육과 취미교육을,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으로 직업교육과 시민교육을 들고 있다. 직업교육은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고 대학평생교육원이 시민교육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 여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하는 성인지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정책의 성인지성이 가장 낮고, 프로그램 개발에 비해 성과평가지 여성에 대한 고려정도가 더 미약하다. 인력의 성인지적 의식도 약간 낮으며, 학습지원환경도 여성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미약하다.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성인지적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학습자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이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영역은 직업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대와 30대는 직업교육에 40대와 50대는 취미와 교양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학평생교육원에서 받기를 원하는 교육은 연령별, 직업 및 결혼 지위별, 학력별로 차이가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여 50대에 급감하였고, 30대 이상은 직업교육보다 취미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였다. 미혼여성은 직업교육, 주부는 취미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많고,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여러 집단 중 전업주부가 가장 크다.

응답자 중 학습을 중도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7% 정도였고, 그 원인에는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다. 20대는 교육내용의 부적절성과 흥미 상실, 30대와 40대는 교육시간의 불편, 50대는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다. 30대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사(육아)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중도포기 이유에 대해 학습자들과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관이 학습자 불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에 대한 여성학습자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약간 성인지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학습지원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는 탁아서비스 미흡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여자대학이 공학대학보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성과에 있어서도 여자대학 평생교육원 교육에 대한 여성학습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 능력, 지위 향상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평생교육원, 특히 남녀공학대학은 기관 운영에 있어 여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에 있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적 기여의 필요성과 방안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지 못한 점, 대학의 여성에 대한 무관심, 기관장을 포함한 운영 인력들의 여성의식 부족 등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원 운영의 물성

적 접근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성을 기관 운영의 주요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가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다만, 여자대학의 경우는 교육이념상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 공학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의 전문적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여성의식 제고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 사회의식 제고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통제력 증대와 세력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지적 접근이라는 뚜렷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결과라기 보다는 대학평생교육의 전문화, 상업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부수적으로 혜택을 입게 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다양한 전문직업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참여여성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여성취향 직종에 집중된 직업교육영역의 제한성, 의식교육 기회나 사회적 지도력개발 기회의 미흡, 기관 운영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인식의 미비, 대학평생교육원의 이윤추구 경향 등은 대학평생교육원이 대학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대학평생교육원의 여성기여도는 성 분석의 네 차원 즉, 여성의 삶의 영역, 요구, 권한, 성평등 기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대학평생교육원은 교육내용에 있어 과거 여성의 재생산 영역(가사, 육아, 가정관리 등)으로부터 생산 영역(경제)으로 강조점을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 생산의 일부 영역(전통적 여성지배 영역)에 관심이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관리 영역(사회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통제)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지는 못하다.

- 여성의 요구 반영 수준은 현재 필요한 즉각적 요구를 주로 반영하고 있고 불평등한 사회적 성별관계의 전환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요구의 반영은 미흡하다.
- 또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직업과정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나 취업기회에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을 제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여성의 삶의 복지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성의 의식화나 사회참여, 통제권을 확보하는 수준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성평등 구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에 비해 대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며,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런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대학평생교육원은 일반 기관들처럼 상업성만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대학평생교육원이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더욱 고려해야 하며,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의식 및 지위, 삶의 양식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에 향후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 성별관계의 평등성 제고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기관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가. 정부 정책

정부는 사회적 성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전략 기관으로서 대학평생교육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1) 평생교육법에 여성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평생교육정책 개발시 여성 정책을 소외계층 정책으로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탈피하여, 모든 평생

교육정책에서 여성관련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평생교육정책의 성 주류화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대학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 2) 대학평가지표에 대학평생교육원의 공공 기여도(성평등, 취약계층 지원 등)를 포함해야 한다.
- 3)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인력(평생교육사 등)의 여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4) 성인지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5)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들이 대학의 전문적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 감면, 대부, 장학금 혜택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6) 대학평생교육원에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기관 전략

대학평생교육원들은 성인지적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성별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2) 프로그램 시간 편성과 구성을 다양화하고 학습자편의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여성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 3) 여성주의적, 학습자중심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 4) 성인 및 여성상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5) 다양한 입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생애학습설계를 하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7) 여성의 직업경력 창출 및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여성들의 진출이 제한되어 온 직급과 영역에 여성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직업 선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8) 여성의 의식 및 남녀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 9) 대학내 일반과정과의 교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10) 여성학습자간 만남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1) 평생교육원 교육의 성과평가지 성별 영향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 12) 취약계층 여성들도 교육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 13) 탁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14) 성인친화적, 여성친화적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이 현재보다 여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참여율은 높으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접근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대학의 소명 의식과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성인지적 접근은 원래 양성의 평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남성도 대학평생교육원을 통해 의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성의 평등한 발전,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에 대학평생교육원이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제한점	7
II.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과정	9
1.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	11
2. 대학평생교육의 역사 및 유형	16
가. 대학의 개방화	18
나. 대학평생교육센터의 발전	27
다. 외국대학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사례	32
라. 외국대학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특성 및 성인지적 접근 경향	46
III.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53
1. 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57
2. 성 분석 질문	66
3. 성 분석 항목 및 지표	68
IV.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73
1. 국내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과정	76

2. 대학평생교육원의 현황	79
3.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분석	83
가. 전문직업교육형	84
나. 사회봉사교육형	89
다. 의식교육형	97
라. 여성교육형	101
4. 국내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경향과 성인지적 접근	112
V. 조사 결과	117
1. 설문조사	119
가. 기관조사	120
나. 학습자조사	139
2. 면담조사	157
3. 요약	182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87
1. 결론	189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194
참고문헌	207
부 록	211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기관 설문 조사	21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학습자 설문 조사	218

표 목 차

<표 III-1> 성 분석 체크리스트	61
<표 IV-1>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 (2002년 11월 1일 기준)	80
<표 IV-2> 대학평생교육원의 명칭	81
<표 V-1> 기관 배포 상황	119
<표 V-2> 학습자 배포 상황	119
<표 V-3> 응답 기관의 설립 연도 분포	121
<표 V-4> 응답자의 직책	121
<표 V-5>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여성수강생 비중	122
<표 V-6> 대학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영역(1순위)	123
<표 V-7> 향후 중점영역에 대한 대학별 인식(기관)	124
<표 V-8> 향후 중점영역에 대한 직책별 인식(기관)	125
<표 V-9> 향후 중점영역에 대한 성별 인식(기관)	126
<표 V-10> 대학평생교육원 정책의 성인지성	127
<표 V-11> 대학평생교육원 인력의 성인지성	127
<표 V-12> 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의 성인지성	128
<표 V-13>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지원환경의 성인지성	129
<표 V-14> 대학평생교육원 성과평가 방법의 성인지성	129
<표 V-15>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기관의 요구	130
<표 V-16>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에 중요한 요인	131
<표 V-17> 소속대학별 기관장의 성별 분포	132
<표 V-18> 기관장의 성과 여성교육 관심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132
<표 V-19>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대학별 인식	133
<표 V-20>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직책별 인식	134
<표 V-21>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성별 인식	134
<표 V-22> 여성의 의식, 능력과 권한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 ..	135
<표 V-23> 연령별 분포	139
<표 V-24> 취업 및 결혼지위별 분포	139

<표 V-25> 학력별 분포	140
<표 V-26> 연령별 교육참여영역 1순위	141
<표 V-27> 취업 및 결혼지위별 교육참여영역 1순위	142
<표 V-28> 학력별 교육참여영역 1순위	142
<표 V-29> 연령별 교육요구영역	143
<표 V-30> 취업 및 결혼지위별 교육요구영역	144
<표 V-31> 학력별 교육요구영역	145
<표 V-32>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연령별 인식(학습자) ..	145
<표 V-33>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취업 및 결혼지위별 인식(학습자)	147
<표 V-34>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학력별 인식(학습자) ..	147
<표 V-35> 연령별 중도 포기 경험과 이유	148
<표 V-36> 취업 및 결혼지위별 중도 포기 경험과 이유	149
<표 V-37> 학력별 중도 포기 경험 및 이유	150
<표 V-38> 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	151
<표 V-39> 프로그램의 성인지성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152
<표 V-40> 학습환경의 성인지성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152
<표 V-41>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성과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153
<표 V-42> 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한 여성학습자의 요구	154
<표 V-43> D여대 평생교육원의 컴퓨터 디자인 과정	159
<표 V-44> D여대 평생교육원의 컴퓨터시각 디자인 특별과정	159
<표 V-45> S대 평생교육원의 교사 아카데미 프로그램	165
<표 V-46> 1984-1992학년도에 개설된 교양강좌의 교과목 수(A여대)	167
<표 V-47> 여성의 성의식 관련 교과목(A여대)	168
<표 V-48> 1993학년도 제 2학기 A여대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총괄표 ·	170
<표 V-49> 1994년도 제 1학기 A여대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총괄표	171
<표 V-50> Y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과 K여대 프로그램의 비교	177
<표 V-51>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 평가(기관)	183
<표 V-52>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 평가(학습자)	185
<표 VI-1> 대학학부 평가부문 중 사회봉사 부문 평가지표	196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제한점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이 주 대상임에도 여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온 평생교육정책은 이제 여성부 및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등 제도적 기반의 확립으로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은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왔다. 근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질적인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저조한 상태이다.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투자, 취미프로그램에 편중된 교육은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원래 평생교육은 기관의 고유 사명,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한 기관의 인식 및 창의적 접근 노력 부족, 평생교육의 상업주의화 경향은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의 중복 개설과 과당경쟁으로 나타나고, 이는 급기야 일부 기관의 운영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평생교육의 양적 확산 노력에서 더 나아가 질의 제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점이며, 이는 각각의 기관들의 고유 목적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차별적 내실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대학평생교육원 역시 다른 영리적 기관들과 질적으로 다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달리 대학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단순한 취미교육 이상의 전문적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의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문화센터, 문화의 집, 문화원, 도서관, 여성회관 등의 프로그램과 그 내용이나 수준에서 별 차별성이 없다. 대학학문 영역의 교양강좌를 제공한다는 점과 시설 및 인력 수준에서 타 기관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일 것이다.

초기의 대학평생교육은 엘리트층이 누리던 고등교육을 노동자, 농민, 여성, 노인 등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그 혜택을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대학의 사회봉사적 목적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교육소외계층에 그 혜택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근래 대학을 지배하고 있는 상업주의적 경향은 대학평생교육이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교육서비스로 전환되는 변화를 낳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평생교육이 추구해 왔던 사회봉사의 이념은 쇠퇴하고 이윤추구의 목적은 강화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의 사회봉사적, 평등주의적 이념의 쇠퇴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여성내 또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성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프로그램개발에 있어 상업주의 가치의 지배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상업성이 떨어지지만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은 소홀히 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쉽다.

이는 대학이 여성의 의식화, 세력화를 통해 여성의 진정한 발전과 사회적 성평등 제고에 기여할만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에게 취미활동이나 제한된 영역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체성 및 의식의 확립이나 열등한 직업지위 개선, 경제적·정치적·문화적 통제력 증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남녀공학대학은 물론 여성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세력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자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공공적 가치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약화과정에서 취약한 성의 발전과 성평등을 추구하는 성인지적 접근 역시 경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연구자는 대학평생교육원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인지적이란 ‘성(gender)’을 정책이나 사회현상을 보는 기준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로서, 그러한 접근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나 정책개발의 목적에 따라 양성을 모두 고려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성만을 다룰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대학이 여성을 위해 어떠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대학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적 성별관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의 의식 및 전문적 능력 개발, 그리고 여성의 세력화에 기여하도록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둘째,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대학평생교육원이 향후 여성발전과 사회적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기관운영 전략이 필요한가

2. 연구내용

가.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정

대학평생교육의 태동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현재 당면한 환경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영국, 미국, 캐나다의 대학평생교육센터들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나.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 분석틀 개발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을 분석하기 위해, 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 분석틀, 분석항목과 지표를

구성해 보았다.

다.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국내 대학평생교육원들을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대표적인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최근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라.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실태 조사

성 분석 항목과 지표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전국 대학평생교육원과 교육참여자(여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교적 성인지적 접근을 하고 있는 대학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도 실시하였다. 설문과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제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로 대학평생교육원을 성인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전략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 연구, 사례(인터넷 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 및 면담 조사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 문헌연구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과정, 여성평생교육 정책, 그리고 성 관점에서 대학평생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외 관련문헌을 참고하였다.

나. 사례(인터넷 자료)조사

국내, 외 대학평생교육원의 최근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해당 대학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1차로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학평생교육원 운영과 성인지적 운영 실태를 논의하였다. 2차로 대학평생교육원 관계 전문가가 모여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검토하였다.

라. 설문 및 면담 조사

전국 287개 대학의 평생교육원(기관)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학습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 설문지는 129부가 회수되었고, 학습자 설문지는 배포한 740부 중 298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학평생교육원은 남녀공학과 여자대학, 2년제와 4년제로 분류하여 통계처리하였으나,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의 구분만 의미있게 활용되었다. 학습자 설문지는 연령별, 학력별, 결혼 및 취업지위별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심층 면담은 대학평생교육원의 여성발전 기여 유형에 따라 사례를 선정하여 기관관계자와 학습자 면담을 하였고 여자대학 1개교에 대한 집중 사례연구를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어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첫째, 외국 대학평생교육원의 사례를 주로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재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성인지적

운영 사례는 인터넷상의 정보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워, 실제 사례에 접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내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신문광고,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및 인쇄자료, 대학평생교육원협회 간행물을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유형화기준에 따라 임의로 선정한 대학들의 사례분석에 국한됨으로써 전국 대학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우려가 있다.

셋째, 성인지적 접근은 여성은 물론 남성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대학평생교육기회의 성별 균형을 제고해야 하나,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보다 취약한 집단인 여성의 경우만 다루는 성특화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대학평생교육원의 기여 방안을 다루지 못하였다. 차후 대학평생교육원이 남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됨으로써 평생교육기회의 성평등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Ⅱ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과정

1.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	11
2. 대학평생교육의 역사 및 유형	16

1.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

오늘날 고등교육은 경제구조, 인구구조, 정보화기술 등의 사회적 변화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학조직 및 운영에 있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두는 교육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중심주의적 교육서비스 제공, 정부 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재정자립의 필요성 증대 등 고등교육 환경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 인구의 감소와 노년층 인구의 증대는 교육참여자 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입학생 확보 위기와 함께 성인과 노년층이 교육의 주 소비자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가운데 성인 비율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의 경쟁력과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고, 증대하는 성인입학자의 요구에 맞춰 대학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 게스너(Gessner, 1987: 34-41)는 대학평생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변화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하고 있다.

- 세계화: “줄아지는 세계(shrinking world)”로의 변화에 대학이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정보화: 정보의 창출, 전달, 확산이 경제생산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사회에서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조직하여 확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응을 위한 재교육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새로운 가치: 대학은 개인과 사회가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인구 이동: 출산율 감소, 소수민족의 증가,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등 인구적 변화는 다양한 지역과 집단의 교육요구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학교육정책을 필요로 한다.
- 경제적·재정적 변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 연구에 있어 대

학과 기업, 민간기관의 경쟁, 사회교육기관과의 교육프로그램 경쟁 등 대학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탄력적, 창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 정부정책의 변화: 정부는 방임적 위치에서 중등후교육의 통제자로서의 규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소비자로서도 대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는 지식 및 기술의 급속한 변화, 신자유주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가. 지식기반사회와 세계경쟁 가속화

지식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청소년들의 최종적인 사회준비 및 전문적 직업준비 교육기관이었던 대학이 전 국민의 생애 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육으로 학습한 지식의 활용성이 단 기간에 감소되고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주기가 빨라지면서 직업경력 변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계속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의 대상 및 시기를 특정 연령과 대상으로부터 점차 확대시켜 마침내 대학은 평생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인들이 계속교육을 위해 대학에 다시 입학하거나,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대학 입학 및 수업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대학내에 성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어 성인들의 계속학습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학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정보기술의 혁명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는 생산과 판매활동에 있어 지리적, 국가적 제약을 뛰어 넘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으며, 이는 개인·기업·국가들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은 세계의 인적 자원들과 경쟁해야 하며, 기업들은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역점을 두 있다.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은 고급 인

적자원을 생산하고 재교육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의 보조금 삭감 경향과 함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 각 부문의 시장개방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교육부문도 개방을 요구받고 있어, 대학시장의 국제적 경쟁이 예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특구내에 외국인이 초·중·고 및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도 외국거주 여부 및 기간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외국대학원의 국내 설립을 위한 법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온라인 석사과정을 2003년부터 개설하기로 하는 등 대학의 국제적 경쟁에 대한 압력이 시작되고 있다.

나.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는 대학에 입학할 전통적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제한된 학생자원을 놓고 대학간 학생 확보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은 1980년 여성 1인당 2.7명에 비해 2000년의 경우 1.5명, 2001년 1.3명으로 감소하였고, 14세이하 연소연령자 비율은 1980년 34%에서 2000년 21%로 급감하였다(여성통계연보, 2001). 이는 향후 대학입학자원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에도 고교졸업생의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자원의 감소는 대학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생 모집에서 4년제 대학 정원 383,533명 중 27,182명(7%)을 채우지 못했으며, 전남은 모집정원의 21.7%를 채우지 못했다. 학생수 감소로 2003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남아돌기 시작해 2010년이나 되어야 고졸자수가 대입 정원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대들은 해마다 학기초가 되면 학생들이 20-30%씩 빠져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정원을 50%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미 학생모집난으로 자진폐교하는 대학이 생겼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동아일보, 한국일보 2002.

10.18).

학생부족으로 지방대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수도권 일부 대학에 몰려 대학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편제정원 5천명이상의 78개 사립대학에 지급된 지원액은 총 9,823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23억원(49.1%)에 달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이나 기업체에서 지원된 연구기부금 등 기부금 수입에서도 유명사립 2개교에 전체 기부금의 22.2%가 지원되었다. 이는 78개 대학에 도서확충비 및 대학특성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특정 대학집중이 나타난다. 이처럼 일부 대학에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이 집중된 반면, 절반이상의 대학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을 모두 합쳐 1백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체 대학의 자금수입 가운데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머물고, 국고보조금보다 전입금이 적은 대학도 70%에 달했다. 등록금 비율이 80% 이상인 대학이 16개에 달해 재정구조가 취약한 대학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수신문 2002.6.17).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고령 인구 비율의 증대는 성인들의 교육 및 여가에 대한 욕구는 물론 생애직업에 대한 요구도 증대시켜 대학에서 계속교육을 받고자하는 성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980년 4%에서 2000년 7%로, 노령화지수는 11.4%에서 35.0%로 증대하였다(여성통계연보, 2001).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 ‘대학교육의 성인화(adulification)’는 대학의 상업화와 함께 대표적인 대학환경의 변화로 꼽히고 있다. 성인을 새로운 입학자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대학들의 재정난을 타계하는 방편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5년과 1995년 사이에 25세이상 학생의 등록율은 25세이하 학생의 등록율의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1995년의 경우 중등이후교육기관의 등록생 중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층이 전체의 42%에 달하였다. 미국고등교육에 있어 성인습자의 대두는 지난 수십년간의 가장 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Pugsley, 1999).

많은 국가에서 성인은 전통적 대학이 아닌 비전통적 고등교육기관(대학외의 고등교육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여러 국가에서 비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은 성인을 위한 비학위과정은 물론 학위과정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고 청년층의 등록 감소에 따른 등록생 및 수입 유지의 방편으로서이기도 하다. 호주는 고등교육의 성인친화성을 제고하여 성인참여의 급증을 가져왔다. 호주의 TAFE college들은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격증연계 프로그램 제공,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시간제, 야간제, 주말, 모듈 수업 및 원격교육 제공, 탄력적인 입학요건, 직업경험의 인정 등의 조치를 통해 90년대말 노동연령층(15-64세)의 8분의1, 30세 이상 중 14분의 1이 참여하였고, 1990년에서 1999년 사이 학생 수는 70% 증가하였다. 25세 이상의 참여는 105%, 30세 이상은 119% 증가하였으며, 1999년 학생 중 30세 이상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OECD, 2001).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성인의 고등교육 요구 및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 비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등록생 중 35세 이상 성인의 비율(1998)

국가	등록률
Australia	20.98
Canada	11.99
Denmark	11.95
Finland	15.27
Germany	8.28
New Zealand	23.86
Sweden	18.98
United Kingdom	22.21
United States	16.43
Korea	2.87

출처: OECD교육DB(OECD, 2001)

이와 같이 대학은 공적 재정지원 및 입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 입학생의 다양성 및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른 대학운영의 복잡성 증대, 기업층의 직업준비교육에 대한 강조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 요구 등의 사회적 압력을 겪고 있고, 그 결과 대학간 또는 대학내 구조조정, 대학에서 상업주의 가치의 대두, 성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학조직 및 운영의 변화 등 교육이념과 기능, 조직 등 전반적 재구조화 과정에 놓여 있다.

2. 대학평생교육의 역사 및 유형

대학평생교육은 초기에는 대학의 학문적 지식을 시민들에게 확산하여 시민들의 교양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몽적, 사회봉사적 취지에서 발전하였으나, 현재에는 성인들의 자발적 고등교육기회 요구 증대와 대학의 상업화 경향이 성장의 주 동인이 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은 대학정규과정외의 성인학생 수용과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성인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역시 이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카스웜(Kasworm, 1993; Bourgeois, E. et al., 1999에서 재인용)은 고등교육체제에 성인학생들을 통합시키는 국가정책을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고등교육체제를 성인의 접근과 참여를 제고하도록 재구조화한 유형으로 스웨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웨덴은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을 지원하도록 고등교육을 재구조화하고 직업경험으로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성인입학정책인 25:4 원칙이다. 이는 25세 이상의 성인이 4년 이상의 직업 또는 관련생활경험을 갖고 있고, 수학에 필수적인 선행지식과 능력을 인정받으면, 입학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또한 시간제 학습, 야간학습, 원격학습, 경험학습에 대한 학점인정 등을

지원한다.

둘째, 성인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규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유형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영국은 60년대이래 대학과 폴리테크닉(Polytechnic)이 분리된 이원체제(dual system)를 유지해 왔으나, 1992년 계속고등교육법(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이래 이 정책은 폐지되어 통제와 재정지원 체계를 통합하였으며, 폴리테크닉도 대학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였다(이 접근도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정규과정을 성인에게 개방하는 유형이지만, 스웨덴보다 개방의 허용 정도는 약하다).

셋째, 성인학습자를 위해 특화된 정책이나 기관을 설립하는 유형으로, 고등교육기관들은 일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개설한다. 이러한 이원체제(dual system)에서는 성인들은 대부분 성인대상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반학생 대상 프로그램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성인프로그램들은 성인의 요구에 맞게 입학체제, 과정설계, 교수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독자적인 성인교육기관이 발달해 온 유럽의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이 유형에 속하며, 영국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도 특화된 성인교육기관 사례에 해당한다.

즉, 성인을 위한 고등교육기회의 제공방식은 성인의 계속교육요구를 전통적 일반대학과 별도의 기관 설립을 통해 수용하는 경우, 일반대학의 체제를 변화시켜 성인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경우, 아예 평생교육체제로 대학을 개편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명백하게 어느 한 유형에만 속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국도 성인들을 일반 대학과정에 받아들이는 시간제등록제, 특화된 평생교육기관이나 제도인 방송대학, 산업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양 유형이 혼합되어 있으나, 제도의 비중으로 볼 때 특화된 평생교육제도 중심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대학을 성인에게 개방하기보다는 성인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기관이나 제도들을 운영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대학교육의 엘리트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이 전통적 대학의 위상과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육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중교육, 대학의 사회봉사적 기능, 교육평등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은 일반대학을 새로운 요구에 맞춰 개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평생교육은 이러한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개방이나 대학내 평생교육센터의 설립, 그리고 독립적인 평생교육기관이나 제도 등 평생교육을 위한 고등교육단계의 모든 변화시도를 포괄한다. 따라서 대학평생교육원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반적 고등교육체제 변화 경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평생교육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대학부설 조직인 대학평생교육원에 국한하므로, 우선 정규대학과정의 개방화 경향을 논의한 후, 대학평생교육원 분석으로 논의를 집중시키고자 한다.

가. 대학의 개방화

일반대학을 성인들에게도 개방하는 대학개방정책은 이념상으로는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거나, 이를 위한 대학조직과 운영 방식의 복잡화로 효율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성인에게 대학을 개방한다는 것은 대학운영의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입학, 교육과정, 평가, 학생지원 서비스 등 대학운영 전반에 있어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맞추어 탄력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대학의 개방은 입학을 성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서 전통적인 입학시험 외에 성인의 입학 및 재입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시도되고 있다. 직업자격증의 인정, 직업경력 및 생활경험의 인정 등 시험 외에 학문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입학의 개방과 함께 장소적으로 제한된 교육의 장과 표준화된 획일적 교육

과정 및 학사일정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기관 편익위주의 전통적 교육방식을 학습자의 장소적, 시간적 편익과 학습속도 등을 존중하는 개별화된 학습자 중심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평생학습사회를 학습자의 평생학습을 위한 열린교육체제를 갖춘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시기, 장소, 대상, 교육기관간의 열림을 통해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폐쇄적인 전통적 교육체제를 열린 개방형 교육체제로 개혁하려는 경향은 전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각 국의 교육적 전통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개방교육체제”의 구현 방식이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엘리트주의적 교육이념이 지배적인 국가일수록 개방교육의 이념은 대학 전체의 개방보다는 별도의 개방형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방교육의 이념과 원리는 앞으로 고등교육체제 개혁의 준거로서 그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성인학습자들에게 대학을 개방하는 방식들은 다음과 같은 개방학습(open learning)의 정의와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박성정, 1999 미간행).

(1) 개방학습의 정의

개방학습은 매우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누구나 쉽게 언뜻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닫힌 학습에 대한 대립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닫힌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개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교육체제에 비해 개방체제일지라도 보다 더 열린 다른체제에 비해서는 닫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학자들은 개방학습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대체로 그려 낸 개방학습의 정의는 어느 정도 공통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개방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소개한 것이다(Rowntree, 1992:14).

“개방학습체제는 학습자에게 놓여진 제한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가능한 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교수전략을 포함하나 특히 독립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을 사용한다”(Coffey, 1977)

“개방학습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과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간, 장소 속도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훈련에 접근할 기회를 방해하는 지리적 고립, 개인적 또는 직업적 구속, 전통적 교과구조 등의 장애 제거를 통해 기회를 열어 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MSC, 1984).

“개방학습은 개인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탄력적으로 계획된 과정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그것은 흔히 전통적인 과정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하려는 방안에 적용되나, 그것은 또한 학습자중심적 철학(learner-centred philosophy)을 시사한다”(Lewis & Spencer, 1986).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갖는 것을 돕도록 학습기회를 확산하고, 학습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학습에 대한 최적의 통제권을 주는 것”(Dixon, 1987).

“장애, 배제, 특권의 제거, 학생의 이전 경험의 인정, 시간운용의 탄력성, 교수와 학생간의 전통적 관계의 본질적 변화에 의해 특징지워진다”(Rumble, in Paul, 1990:50에서 재인용).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개방학습이란 하나의 이념이자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주로 교육의 과정(process)을 따라 입학, 교육내용의 구조화, 수업방법, 평가 단계별로 학습자를 위한 개방이 모색되어 왔다.

(2) 개방학습의 원리

개방학습체제가 학습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학습에의 장애는 크게 접근기회에 대한 장애와 학습과정에 내재된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Lewis(1992:12)는 전통적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장애를 물리적, 교육적, 개인적, 재정적 장애로 분류하였다.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내용의 순서, 방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학습자의 신념, 입학요건, 비용 문제 등이 학습의 장애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개방학습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Lewis(1994)는 학습의 개방은 두 가지 측면, 즉 접근과 학습프로그램의 개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개방학습은 접근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으나, 이제 학습프로그램내에서의 개방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Rowntree(1992:20)는 who, what, how의 차원에서 개방의 요소와 정도를 제시하였다.

- Who: 나이, 자격, 부, 직업 등의 제한없이 얼마나 쉽게 학습자가 될 수 있는가?
- What: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 목표, 그들이 평가받을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
- How: 학습자들이 학습할 시기, 장소, 속도, 방법을 결정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데 어느 정도로 자유로운가?

그리고 개방체제와 폐쇄체제의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충분히 개방적인 체제는

-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건간에, 학습자는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한 비용에 구할 수 있다.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자의 학습속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다.
-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순서를 선택하고, 평가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학습자가 학습방법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완전히 폐쇄적인 체제는

- 프로그램 조직자가 학습할 내용, 도달해야 할 목표,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 학습자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조직자에 의해 정해진 속도로 학습해야 한다.
 - 학습방법과 순서, 누가 어떤 도움을 줄지도 조직자에 의해 정해진다.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희망이나 선호는 고려되지 않는다.
- (Rowntree, 1992:18-19)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기술이며 대부분의 학습프로그램과 체제들은 양 극단의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있다.

결국, 학습기회에의 접근에 대한 제한의 제거, 학습내용과 속도, 학습시간과 장소의 선택, 학습방법과 평가의 결정, 지원방법의 결정과정에 학습자의 결정권 확보의 정도가 개방학습의 주요 준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학습의 과정을 진행하는 데 학습자의 자유와 선택, 통제권이 얼마나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 개방학습체제의 기준인 것이다.

Paul(1990:46-50)도 개방학습체제 모델의 주요 변인은 학습자가 교육의 과정을 통제하는 정도라고 하고, 개방의 다양한 차원(dimensions of openness)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접근성(accessibility)

개방학습은 학생 특히 성인들이 중등이후 교육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전통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전 학력의 제한, 시간, 물리적 위치, 그리고 경제적 제한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선행 학문경험(prior academic credentials): 개방학습은 형식적 입학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성인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입학에 개방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전공하려는 분야의 지식과 관련된 직장 및 생활경험을 인정하는 사전학습경험평가인정제(PLAR:

prior learning assessment and recognition)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1985년 무형식적(informal) 경험학습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하도록 입법화하였다. 노르웨이는 1999년 비형식 학습을 인정하는 국가제체를 확립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 대학이 형식적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연령(25세 이상), 무형식적 학습을 토대로 입학할 허용하고, 비형식적(nonformal) 학습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OECD, 2001). 스웨덴도 25세 이상, 4년 이상의 직장 및 생활경험을 대학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25:4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PLAR의 연구와 도입이 활발하다. 가장 개방적인 형태인 영국의 개방대학은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을 토대로 입학이 허용되며, 단지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학습자료, 교수의 이용가능성에 의해서만 입학을 제한당한다.

- 시간(time): 많은 성인학생들은 일과 가정에 대한 의무로 인해 대부분의 학위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전일제 수업을 택하기 어렵다. 개방학습은 학생들이 그들의 시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돕는 노력을 포함한다. 대다수의 성인학생들은 시간제(part-time)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고, 모듈과정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내기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 장소(physical location): 개방학습에서는 학생이 기관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 기관이 학생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양한 원격학습방법들의 지원을 받아 재택학습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교재들이 제공된다. 장소적 구속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와 개별학습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재정(financial constraints): 개방학습은 학생들이 전일제 직업을 가지거나 가정을 돌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교적 저렴한 학습교재를 제공하기도 한다.
- 개인적 성향(personal characteristics): 학생 자신에 의해 야기되는 학습에 대한 장애는 별로 주목받지 못해왔다. 성인학생들은 그들의 실패에 대해 기관보다 그들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불안정과

결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만만치 않은 장애가 될 수 있어 성인학생들을 위한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② 탄력성(flexibility)

탄력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단지 접근성(accessibility)을 증대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학습자를 모든 학습의 출발점에 두려는 강력한 의지로부터 유래된다. 학생들은 학습환경에 대해 전통적 기관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가진다. 좀 더 개방적인 기관들의 특성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입학시기의 탄력성(frequent admission periods): 수업을 조직하는 편의를 위해 미리 계획된 학기제대신,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좀 더 빈번하게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 학습속도의 탄력성(self-pacing): 학생들은 기관이 제시하는 계획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따라 학습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그들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시험을 볼 수 있다.
- 선택적 지원서비스(optional support services): 기관은 개별지도, 상담, 조언을 포함하는 광범한 학생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학습내용과 조직에 대한 학습자의 통제(learner control over content and structure)

최적의 경우, 학생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협상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에 접근하는 순서와 평가받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개방적인 기관들도 접근성이나 수업방법의 탄력성 제공보다는 이 영역에서 훨씬 더 보수적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학문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와 평가, 인증에 대한 통제를 해 왔기 때문이다.

④ 학습방법의 선택(choice of delivery systems)

최적의 개방적인 학습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전

달방법과 학습과정을 선택하는 최고의 가능성을 갖는다.

⑤ 인증(accreditation)

대학의 개방적인 운영의 가장 큰 장애들 중의 하나는 대학들에 의한 질과 인증에 대한 강조이다. 가장 개방적인 기관은 학점과정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에 의해 학점의 이전이 인정된 과정, 시험 등을 통해서 학점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 개인의 생활경험의 평가에 의해 학점을 인정하는 경험학습의 제공 등이 있는가에 의해 기관의 개방 정도가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도 이런 모든 차원에서의 이상형에 근접하기는 어렵다. 소위 개방적 기관이라해도 어떤 면에서는 극히 폐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Paul,1990).

다시 요약하면, 개방학습체제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 준거로 학습기회의 접근성(accessibility), 학습과정 운영의 탄력성(flexibility)을 들 수 있고, 이를 위해 입학요건, 학습내용, 방법, 지원체제의 다양성(diversity)과 이 다양성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가능성(choice),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통제권(control) 확보가 요구된다. 즉, 교육과 학습의 과정에 이 준거들이 얼마나 구현되어 있느냐가 기관의 개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성인들에 대한 대학의 개방 정도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습기회의 열림: 학습기회가 성인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가?

학습기회의 접근을 위한 제한을 제거하는 것은 각국 교육개혁의 중요 정책이다. 고등교육의 접근 조건에 대한 장애의 최소화를 통해 학습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은 학습사회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데 입학시험 외에 어느 정도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공식적 학력이

외의 비공식적 학습경험에 대한 평가 인정 기준이 있는가? 등 학습기회에의 접근성(accessibility)과 다양성(diversity)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내용의 열림: 학습내용과 수준, 단계의 다양성으로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요구와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교육내용의 모듈화, 학습기간의 다양화 등 학습내용의 구성과 조직이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수준에 따른 선택을 지원하는가? 학습내용 선정 및 학습순서 결정 등 내용에 대한 학습자 통제권이 인정되는가? 등 학습내용의 제시와 구성의 탄력성(flexibility), 다양성(diversity), 학습자 선택권(learner's choice), 학습자중심성(learner-centeredness)의 확보와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방법의 열림: 성인들의 장소적, 시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확보되고 있는가? 출석수업,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자기학습(self-study)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학습기회의 제공으로 장소적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가? 또한 학습시기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학습자가 학습시작의 기회를 좀 더 빈번하게 가질 수 있거나 학습을 도중에 중단한 경우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간적 탄력성이 있는가? 학습방법의 탄력성, 다양성 등으로 성인학습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이 평가될 수 있다.

넷째, 평가의 열림: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는가? 다양한 학습상황에서의 학습경험들이 상호인정되고 교류되어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학점인정 및 교류체제가 구비되어 있는가? 평가의 다양성, 포괄성(comprehensiveness), 연계(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의 측면이 준거로 제시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지원의 열림: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다양한가? 정보제공은 물론 상담과 학습계획 설계, 학습지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응체제가 작동하고 있는가? 즉, 학습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대응적인가? 학습지원의 다양성, 탄력성, 반응성(responsiveness) 등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밖에 개방학습에는 교직원 및 학생의 교육에 대한 관례적 기대와 보수성, 행정의 복잡성, 재정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문화적, 정서적 장애들로 인해, 개방학습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그러한 개혁적 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교육체제의 개방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제도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교육체제를 성인들에게 개방하는 고등교육체제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폐쇄적 대학체제를 탄력적으로 개방화하는 방안의 모색과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대학체제의 개편보다 더 쉬운 변화의 방법은 새로운 성인학습자 집단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교육조직을 만들고 이를 기존의 체제와 별도로 혹은 약간의 연계성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대학확장운동, 대학계속교육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명칭으로 대학의 2차적 부대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학내 독립적 성인교육기구인 대학평생교육원(센터)의 유래와 발전을 이하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나. 대학평생교육센터의 발전

오늘날 대학에 부설된 대학평생교육센터(원)는 영·미의 대학확장운동(university extension)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영국대학의 인문주의적 전통은 대학평생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873년 트리니티 칼리지의 스튜어트(Stuart, J.)는 북부도시들에서 수행한 일련의 과학사 강의에 대학의 지원을 받았다. 옥스포드와 런던대학도 곧 대학확장운동에 참여하였고 역사, 문학, 예술 등의 과목들이 가르쳐졌다. 이러한 운동의 배경에는 민주사회에서 인문교육의 혜택이 사회 모든 계층에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있었

다. 맨스브릿지(Mansbridge, A.)는 대학확장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노동자계층의 고등교육을 위해 1905년 W.E.A(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을 설립하였다. 그는 확장강좌 대신 소규모의 교수학급(tutorial classes)를 제안하였고, 1908년 옥스포드대학은 토니(Taswney, R. H.)의 교수학급강좌를 후원하였다. 경제사에 관한 토니의 강좌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옥스퍼드와 다른 대학들의 성인교육활동 확산을 고무하였다(Blyth, 1983).

영국의 대학확장활동 아이디어는 미국으로 전파되어 영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extension”이라는 용어가 널리 수용되었다. 1914년 미국의회는 농업교육을 위한 대학확장 활동을 제안한 Smith-Lever Act를 통과시켰다(Hatfield, 1989). 미국에서의 대학확장(university extension)은 “지식의 확산”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Junto, Lyceum, Chautauqua 등의 성인교육 활동과 토지수여(land-grant) 대학 정신에도 흐르는 것이었다. 대학확장은 토지수여 기관들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자연스럽게 발달되었다. 1914년 Smith-Lever Act에 의해 농업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대학확장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령은 대학확장과 기관의 자원을 주민들에게 확산하는 토지수여 이념을 결합해서 대학계속교육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1910년 하바드대학의 총장인 Lowell은 하바드에 대학확장 강좌를 개설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 시카고 대학, 위스컨신대학에서도 대학확장 강좌가 확산되었다. 시카고대학의 총장 하퍼(Harper)는 Chautauqua의 통신교양교육 방법을 대학교육에 도입하였다. 특히 위스컨신대학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제창하였고, “대학의 경계는 주의 경계”라는 “위스컨신 이념”은 전국에 확산되었다. 위스컨신대학은 주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협력을 추구하였다. 위스컨신대학 교수들은 주정부 및 시에 활발한 자문활동을 하였고, 학문적인 통신과정에 대해 학점을 부여했으며, 직공들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915년 위스컨신대학을 중심으로 총 22개 대학이 모여 전국대학확장협회(National University Extension Association)가 설

립되었는데, 시카고, 하바드, 피츠버그, 콜럼비아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립 대학들이었다.

성인을 위한 기숙제교육시설은 1936년 미네소타대학에서 시작되었고, 1951년부터 켈로그재단(Kellogg Foundation)이 대학계속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지역사회대학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4년제 대학들이 제공하던 성인교육과 지역사회대학의 교육이 중복되고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대학들은 좀 더 고위 수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Gessner, 1987).

1980년대, 90년대의 대학에 대한 공공 지원의 감소정책은 대학을 불안정한 재정상태에 처하게 하여, 대학재정 자립을 위한 상업주의적 대학운영 경향이 강조되게 되었고, 경제의 세계화 추세로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중시되면서 이에 대한 대학의 역할 강화가 기대되었다. 세계화와 상업주의는 대학확장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문교양교육보다 직업관련 전문교육이 중시되고 있으며, 대학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개발 차원에서 전문계속교육과 경력개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은 시장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대학의 이윤창출원으로 봉사하고 있어, 초창기의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선도자로서의 대학확장교육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은 공익에 봉사하는 기관에서 시장체제내의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자중의 하나로 변하고 있다(Lauzon,?).

대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공공재정 지원 감소, 학생의 다양성 및 평균 연령의 증가, 소비자주의의 대두, 직업준비교육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압력은 대학평생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21세기 대학평생교육도 사업화된 대학평생교육원 운영, 학생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대학내 대학평생교육부의 애매한 위치,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관리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평생교육의 공통적 경향은 고용가능성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전문직업 프로그램, 조기 퇴직자 및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캐나다의 Alberta 대학은 대학확장부내에 CPDI(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대학평생교육의 전문

화와 상업화가 근래 대학평생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수 입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비학위과정이 주를 이루 었던 평생교육도 자격증과 학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 들이 자격이나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Einsiedel, ?)

게스너는 대학평생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변화에 대한 인식 미흡: 대학들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그들의 목적, 초 점, 우선 순위를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으나,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변화 에 저항하는 기관들도 있다.
- 조직변화 미흡: 대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 버 지니아대학 총장인 악켈(Ackel, E.F.)은 성인학생들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 한 대학조직 변화에는 성인학생들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는 방임단계 (laissez-faire stage), 성인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분 리단계(separatist stage), 기관이 성인학생들에게 봉사해야 함을 인식하는 평등단계(equity stage)의 세 단계가 있다고 하였다. 대학의 역할과 대학내 계속교육의 위치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다.
- 재정문제에 대한 기여 요구: 학생 수 감소, 대안적 학위수여 기관 증대 등 으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대학평생교육의 질 관리: 계속교육의 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인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 대학평생교육의 실질적 기여: 대학이 전문가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 교수진의 비협조: 교수진들이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새로운 여건에 저 항하는 문제가 있다.

그는 대학평생교육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는데, 이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절하게 참고 할 수 있다.

- 고등교육의 역할은 변화의 주요 축매로서 기여하는 계속교육과 함께 변화할 것이다.
- 고등교육기관들의 강조점은 전통적 연령의 학생들로부터 더 확대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중요한 내적 변화(조직, 재정, 지원체계 등)가 계속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달과 관련된 기관들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 대학과 다른 기관들간의 새로운 협력관계가 증대되고 있다
-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과 방법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수요자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가 활성화되고 있다
- 고등교육기관의 생산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교육적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적 DB가 구축되고 있다
- 기부와 공적 자금이 대학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 교육과 인적 자본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평생교육에 관한 공공정책 개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대학에서 계속전문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Gessner, 1987).

초기 대학확장운동의 이념은 현재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입학자원 감소와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 가중은 대학이 평생교육원을 이용해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요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대학평생교육원의 목적이 지역사회봉사라는 공공성의 차원에서 수익의 극대화라는 상업성의 차원으로 변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은 사회선도적 차원보다는 소비자의 현재 구미를 맞추어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대다수의 대학들이 대학이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평생교육보다는 시장수요에의 부합성을 제일로

지향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다. 외국 대학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사례

(1) 미국

미국에서 대학평생교육은 주로 대학확장교육(university extension)과 대학계속교육(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으로 호칭된다. 대학확장교육은 주로 주립대학들이 대학의 지식을 지역사회로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사회 대상 교육을 발전시켜온 전통으로 남아있다.

대학평생교육은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으로도 불리는데 1936년 Minnesota 대학에서 개원한 성인을 위한 기숙제 시설인 the Center for Continuation Study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Kellogg 재단이 대학내 기숙제계속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첫 번째 지원대상은 1951년 Michigan 주립대학이었다. 계속교육은 확장사업부나 계속교육센터 등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주로 제공되나, 학과나 연구소 등에서 관련 전문직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대학계속교육협회(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Association)는 미국 대학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로, “노인인구의 급증과 청년인구의 급감, 이민 증가, 자본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믿음 증대, 다양한 고용 형태의 증대, 재정지원의 재정비,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 세대 대학(Next University)의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 계속교육의 ‘학습자중심 전략, 성인 및 노인 학습자에 대한 관심,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 재정적 관점, 기술 혁신, 파트너십의 활용, 자원의 동원, 개혁적 가치’ 등이 중요한 모델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계속교육이 미래지향적 대학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대학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목적, 교육프로그램 및 방법, 학습자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목적 및 교육내용:

대학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 전문적 직업능력의 개발, 지역사회의 발전이 핵심이다. 대학들은 각자의 이념과 전통에 따라 대학평생교육의 강조점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다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개발형으로 주로 주립대학들이나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의 대학확장사업이 강조하고 있다. 이에는 미시건주립대학, 위스컨신주립대학, 조지아 대학 등이 해당한다. 농촌지역의 개발, 가족과 지역사회의 결속력 향상과 관련된 강좌들이 특색이다.

- Michigan State University Extension은 대학의 지식을 모든 미시건주민에게 확산하여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SU Extension office는 83개 전 카운티에 설치되어 있고, 농업 및 자원, 아동·청년·가족의 발전, 지역과 경제개발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카운티는 주민의 문제와 지역이슈를 조사하여 지역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시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이중 주정부의 지원이 40% 이상에 달한다.
-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은 대학의 자원으로 개인과 조직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20만명 이상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대학의 전 학과가 조지아 성인시민의 평생학습요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1957년 W. K. Kellogg Foundation의 재정지원으로 조지아계속교육센터가 설립되었고, 현재 600명 이상의 교수 및 직원을 보유하고 대학과 조지아주민을 연결하는 대학의 공공봉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고졸업후 5년이상 지나고, 지난 5년내 대학에 다닌 경험이 없는 성인을 위해 학점제 야간과정을 제공하는 “성인대학(Adult College)”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 위스컨신대학의 대학확장부는 매년 1백만 이상의 위스컨신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학문위주형(교양교육형)으로 학문성으로 인정받는 하바드대학 등이 해당된다. 교양 및 학문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학위도 수여한다.

- 하바드대학확장부(Harvard Extension School)는 50개 학문분야의 550과정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대학과 달리 교육과정 중 학문관련 과정이 가장 많아 대학의 학문적 지식 확산과 교양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Liberal Arts)학사와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은 매년 하바드교수진에 의해 승인된다.
-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은 성인을 위한 비학점 교양과정인 오딧세이(Odyssey)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약 200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는 전문직업교육형으로 전문직업교육의 강조는 전반적인 추세이나 대도시지역의 사립대학들이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캘리포니아대학, 콜럼비아대학, 뉴욕주립대학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산업체의 요구에 민감하게 전문직 재교육이나 경력변화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 매우 상업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 UC Berkeley Extension은 기업체 학습프로그램인 “Corporate Learning Programs”을 개설하여 조직의 훈련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 콜럼비아대학의 사범대학(Teachers College)의 교육혁신센터(The Center for Educational Outreach & Innovation)는 매년 250여개의 교육이론과 실천에 관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뉴욕대학은 학위로 연계되거나 전문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학점 및 자격증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경력변경이나 현직에 관한 전문지식 확장을 지원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적 수준의 교육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계지도급인사의 자문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 교육방법:

대학정규과정이나 계속교육과정 모두 성인학습자 및 시간제 학습자의 증대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원격교육강좌의 확대, 주말·야간·방학 강좌, 단기 집중강좌, 청강제, 모듈제, 워킹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학위, 비학위, 학점, 비학점, 청강과정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입학대상은 성별을 구분하지는 않으며, 여성대상 특화프로그램은 소수인 반면 노인이나 은퇴자 대상 특화 강좌가 별도로 개설되는 추세이다.

- 뉴욕대학은 바쁜 전문직을 위해 속성과정(Fast-Track Courses), 심화과정(Intensive Study)을 운영한다. UC Berkeley Extension은 전문직을 위해 야간, 주말, 단기집중과정을 개발하였다.
- 위스컨신대학은 60세이상 위스컨신노인들이 무료로 청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은퇴한 학습자조직인 PLATO(Participatory Learning and Teaching Organization)를 후원하여 다양한 학습기회와 동료들과의 교류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 존스홉킨스대학은 은퇴한 성인을 대상으로 'Evergreen'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컬럼비아대학은 1986년부터 성인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청강프로그램(Auditing Program)을 제공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성인은 평생학습자로서 할인등록할 수 있다.

□ 학습결과의 인정:

계속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학점 및 학위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학점과 비학점과정, 자격증과정 등 다양한 인정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학점과정이 오히려 소수이다. 취득 학점은 소속 대학의 정규과정 학점으로 인정되기도 하며, 타 대학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학점이나 학위 강좌는 이전 학력이나 경험을 요구하지만, 비학점

과정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어느 경우든 대학수준(university-level)의 전문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계속교육참여결과는 고용주, 자격증발급기관, 전문직협회 등에 의해 교육적 성취로 인정된다.

□ 지원서비스:

재입학한 성인학생의 급증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 여성은 이러한 서비스의 주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습과 경력 설계를 지원하는 상담서비스이다. 특히 경력변화를 위해 적성과 직업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며, 대학 재입학생의 학습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재입학생을 위한 기초학습능력 보완 및 학교적응 프로그램(adult re-entry program)이 있다.

- 조지아대학은 대학에 복귀하는 성인과 비전통적 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A.N.S.E.R.S’ (Adult & Nontraditional Student Educational Resources & Services)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 학습력을 보완해주는 대학입학전 준비과정, 상담서비스, 학교복귀 워크숍(Back to school workshop), 성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센터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복귀 워크숍’(Community Return-to-school Workshop)은 대학에 다닌 적이 없고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성인들에게 조지아대학이나 인근 대학 및 학교에서의 교육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유형과 경력탐색’(Learning Styles & Career Exploration)은 개인의 학습스타일 및 성격유형을 토대로 가능한 경력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성격유형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50여개의 직업리스트를 검토하고 전공 및 경력에 대한 의사결정과 목표설정 훈련을 한다.
- 위스컨신대학확장부는 ‘교육과 경력설계 프로그램’으로 성인들이 자기평가, 정보수집, 직업탐색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경력과 교육기회를 탐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직업탐색을 위한 정기회합을 지원하고, 복귀성인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위스컨신대학 계속

교육부에서는 지역도서관에의 ‘파견사업’(community outreach)을 통해 교육, 경력, 학교재입학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인교육 및 경력상담센터, 경력자원센터, 커뮤니티도서관웍샵 등에서 대학복귀성인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보육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학기당 1000\$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며, 두 아이 이상은 추가 지원한다. 사업체가 원할 경우 피고용자들을 위한 교육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On-site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UC Berkeley Extension은 자격증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강좌별로 ‘직업탐색의 밤(Career Nights)’을 기획하고 있다.
- 뉴욕대학은 성인재입학프로그램(Adult reentry program)을 제공하여 수학, 과학, 문법, 글쓰기 등 기본 학습능력, 학습기술,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의 교육과 상담으로 가정 및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로의 이행이 원활하도록 돕고 있다.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선택과정(Educational Options Program)을 운영하여 조언자와 함께 개인의 학문적, 개인적, 직업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공 결정전에 교양학과 경력분야의 20내지 30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학점은 후에 선택한 과정으로 이전된다. 대학재학 경험이 없거나 10학점 미만을 보유한 학생들을 위해 조언프로그램(advisement program)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경력설계세미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2) 캐나다

캐나다의 교육은 지방정부의 관할이며 연방정부는 재정 배분을 통해 지역의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 공립학교 등 교육기관이 성인교육과정의 절반이상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이 활발한 편이다. 캐나다는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민중교육형, 지역사회개발형 성인교육 전통을 발전시켜 왔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대학들이 전문직업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Haughey, 1998). 대학평생교육의 상업화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캐나다는 진보적 복지국가답게 미국에 비해 여

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학평생교육의 관심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강조하는 미국식 확장교육의 전통도 여전히 강한 듯 하다.

- St. FX(Francis Xavier) University는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대학확장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Nova Scotia주 Antigonish에 위치한 이 대학은 1920년대 Moses Coady가 이끌었던 지역의 자립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안티고니쉬운동(The Antigonish Movement)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이 운동은 현재 이 대학의 확장부와 1959년 지역개발센터로 설립된 ‘The Coady International Institute’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코디연구소는 지역개발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시민교육을 하고 있으며, 여성지역개발가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Certificate for Women: Community Development Leadership’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이 조직내 의사결정지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 여성들의 의사결정능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내에서의 성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기획, 평가, 예산 및 재정관리에 관한 지식교육을 통해 조직경영력과 지도력을 제고하고, 여성적 관점에서 조직과 사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중등학교 졸업이상의 지역개발에 3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여성센터(Women’s Resources Centre)는 여성을 위한 계속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존감 형성, 긍정적 사고, 생애설계, 경력설계, 직업적성검사, 여성성의 발견, 미망인을 위한 교육 등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듈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동료상담, 노인상담, 노인복지관련 자격증 과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도 커서, 노인대상프로그램(Third Age Programs)에는 여성예술가, 여성의 권리, 여성의 정치학, 글쓰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알버타대학(University of Alberta)은 여성으로서의 삶의 경험을 표출하는 ‘여성의 글쓰기’(Women’s Writing)프로그램이 있고, 여성을 위한 글쓰기 워크숍인 ‘여성의 말’(Women’s Words) 등을 운영하고 있다.
- University of Saskatchewan의 Extension Division은 Women’s Studies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변화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성평등, 성과 스포츠, 고용평등, 여성관련 정보, 보건의료 개혁, 여성과 과학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확장교육은 원격교육, 지역대학이나 인근 기관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대학강좌를 수강하는 방식,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개별학습, 강사의 도움을 받는 개별학습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대학확장부와 대학학과가 연계하여 석사학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3) 영국

영국 고전대학 개혁과정에서 등장한 대학확장 개념은 특권계급을 대상으로 한 대학교육을 보다 많은 일반 대상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대중교육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대학확장의 의미는 대학성인교육의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양병찬, 1995).

1980년대 후반전까지는 평생학습이라는 용어가 영국의 국가정책문서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성인교육은 노동자교육협회, 노조, 옥스포드와 캠브릿지와 같은 영향력있는 대학들과 같은 비정부기관들에서 활발하게 제공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 독립적인 성인교육운동이 전체 교육훈련체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평생학습시대로 이행해감에 따라 정부가 점차 성인교육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통제를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고등교육기관의 전통적인 인문성인교육은 쇠퇴한 반면 기초교육과 성인직업훈련이 증대하고 계속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성인들이 증대하였다. 다양한 전통의 성인교육은 전체 교육훈련체제로 통합되어 가면서 80년대의 교육훈련체제의 직업주의 경향에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성인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증대

하려는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개방대학네트워크(Open College Network), 국가직업자격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s)를 통한 성인학습에 대한 평가인증을 통하여 성인학습의 지위를 제고하고, 저학력층, 소수민족, 여성과 같이 학습의 기회가 적은 집단들을 위한 직업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직업주의 강화 경향과 함께 1989년 폴리테크닉의 대학부문으로의 통합, 인문성인교육에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감축 등은 고등교육기관의 인문성인교육 제공의 감소를 가져왔다. 1992년 계속고등교육법(The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은 성인교육의 제공 유형의 차이를 두었다. 계속교육대학들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나 직업관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교육위원회(LEA)가 주로 비직업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계속교육부문은 다양한 학문적, 직업적 과정을 제공하여 학습과 일을 연계하고 성인들을 고등교육에 연계시키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Hodgson, 2000).

영국의 고등교육은 고등교육과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학과 폴리테크닉은 고등교육을, 대학진학반(Sixth-Form College)과 계속교육기관 등이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주 기관이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정규학위과정과 비정규과정의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고등교육기관과 계속교육기관의 구분이 명확치는 않다. 영국정부는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해 학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체제를 통합적인 체제로 전환해 가고 있다(신용주, 1999).

□ 캠브릿지대학: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의 발전은 캠브릿지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860년대 후반 Trinity College의 명예교수인 James Stuart는 노동자들에게 일련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더 폭넓은 대중에게 대학교육을 개방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교육기회에의 접근성은 더 나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독립적 사고, 비판적 이성, 개인의 발전에 대해 강조하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학교육이 확장

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처음 시작할 당시 이러한 활동들은 ‘University Extension’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으로 바뀌었다. 이는 대학확장교육이 대학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주요한 교수 및 연구 시설, 학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이 평생교육과 그 학생들에 접근하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인 것이다.

캠브릿지 대학은 평생동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학습의 지속, 지식과 기술의 선진화,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고등교육으로 유입, 개인적 사회적 발전의 확대.

계속교육위원회(Board of Continuing Education)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는 시간제학위과정(Part-time degrees)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국제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를 통해 직업과 교양 두 영역과 관련하여 60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시간제(Part-time)학생이 대략 13,000명 정도이며, 매년 약 60여 개국의 1,200명의 학생이 600개가 넘는 국제여름학교의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강좌들의 상당수가 지역에 있는 센터(Local Centre)에서 이루어진다.

Institute of Continuing Education에는 고고학, 미술, 건축학, 장식미술, 상담, 심리학, 영화와 매체, 역사학, 언어학, 문학, 드라마, 비판적 글쓰기, 지역과 가족 역사학(Local and Family History), 음악, 철학, 종교학, 사회과학, 정치학과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Madingley Hall이나 각 Local Centre마다 실시하는 계속교육프로그램도 몇몇 과목에서 차이가 나지만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과목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각 과목마다 대략 20~30개 정도의 다양한 종류의 강좌들이 개발되어 있어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을 잘 반영하듯 대부분 인문교양 중심의 강좌들이며, 이는 캠브릿지 대학교의 오랜 대학교육의 역사와 전통 속에 구축된 특성이라고 여겨

진다.

Madingley Hall(2001-2002)에 계획된 강좌들 중 ‘여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강좌들이 눈에 띈다. 가족에서의 위치 : 삶을 위한 역할(A Place in the Family: A Role for Life),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Victorian Women), 세계2차대전 시기의 여성들: 일, 기다림, 그리고 글쓰기(Women in World War II: Working, Waiting, Writing), 여성들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가? 6인의 여성 철학자들(What women think? Six women philosophers) 등이 있다. 또한 day-schools(2001-2002)프로그램 중에는 여성과 선사학(Women and pre-history)이라는 강좌도 있다.

□ 와윅대학(University of Warwick)

많은 이들이 자신의 흥미를 위해 혹은 직업적인 발전을 위해 Warwick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에 되돌아와 공부를 하고 있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공개강좌(Open Studies)나 계속전문발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850명이 넘는 수의 학생들이 시간제프로그램과 2+2 degree programmes를 이수한다. 또한 2001년 10월에 학문적인 것과 직업적인 기술을 결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초학위(foundation degrees)를 신설했다. 시간제 프로그램과 2+2 programmes는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의 탁월한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좀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Warwick대학은 성인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하여 다양한 배경과 자격들을 가진 이들 성인학습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대학은 가능하면 성인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폭넓은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Warwick대학은 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Full-time Degree Programme, part-time degrees, 2+2 degrees, Open Studies의 강좌나 다른 자격증강좌(Certificate programme)를 들을 수 있다.

- 공개강좌(Open Studies): Open Studies 프로그램은 Warwickshire, Coventry, Solihull에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성인학습자는 직업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낮 시간과 저녁 시간 강좌, 일일강좌(one-day schools)를 제공한다. 공개강좌들은 공부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전의 학습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주요 강좌들을 통해 대학학점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학습의 지원 방식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

Open Studies Certificates는 매주 2시간씩 1년 이상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형적인 자격요건이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다. 각각의 Certificate는 3개의 10주 학기와 매 학기 숙제, 학습기술 지원으로 구성되고, 대학 학점(30 credits at level 1)으로 인정되어 이전될 수 있으며, Warwick대학의 Part-time undergraduate degree를 위한 첫해의 하나의 모듈로 사용될 수 있다.

개설 과목을 보면 고고학, 미술사, 건강관리, 비판적 글쓰기, 지구과학, 영어 연구, 역사학 연구, 저널리즘, 노동 연구, 소수민족 학생의 학업 지원, 음악,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어학원(Language Centre)도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강의와 개인대개인 혹은 그룹 수업을 통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있고 초보에서 심화회화과정까지 다양한 수준의 강좌가 있다. 모두 Open Studies Certificates가 인정된다. 또한 part-time과 2+2 degree 강좌를 듣는 학생들을 위한 상당히 많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강의의 낮시간과 저녁시간 모듈을 제공한다.

- 시간제학위(Part-time Degree) : 성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춰진 모듈화된 프로그램들로 대략 4년에서 10년 이상 자신에 맞춰 공부한다. 전통적인 자격요건 없이, 직업과 삶의 경험을 통해 입학이 가능할만큼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수학습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원한다면 몇몇 full-time study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낮시간과 저녁시간 수

업이 있고 혼합된 형태도 있다. 다양한 과목들 가운데 학점을 위해 하나의 모듈을 공부하며 이 학점은 이후에 Part-time degree로 전환할 수 있다.

- 기초학위(Foundation Degree) : Foundation Degree는 다른 공동체들과 학습을 결합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자격이다. 여기에서는 직장에서 유용한 직업적이고 학문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의 영역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직업을 기반으로 한 시간제학습과정이고 직업현장의 작업, 프로젝트, 모니터링과 관계되어 있다. 개설된 강좌에는 Foundation Degree in Learning Support, Foundation Degree in Community Enterprise and Development가 있다.
- 2+2 programme : 21세 이상이며 새로 공부를 하거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local college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2년을 Warwick에서 공부를 하여 degree를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형식적인 입학요건이 부족한 성인들,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직업적인 전망을 넓히고 대학의 degree를 얻기 위해 지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2+2방식을 통해 바로 degree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며 4년동안 Warwick대학의 학생으로 등록되게 된다. 처음 2년은 연계하고 있는 college들에서 학생들은 학문적 공부를 따라가면서 자신감과 개인의 학습기술을 얻게 된다. 이는 Warwick캠퍼스에서 행해지는 마지막 2년동안의 프로그램들로 편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과목 선택의 유연성과 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특화된 프로그램에 진입하기 이전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많은 성인학습자를 위해 학생회와 Senior Tutor's Office에서 학습기술과 같은 다양한 강좌들을 마련하고 있다. 성인학생회(The 2+2 and Mature Student Committee)는 성인학습자의 관심을 진작시키고, 금전적인 문제, 학업, 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 런던대학(University of London City)

Department of Continuing Education (www.city.ac.uk/conted)

런던대학의 계속교육학부(Department of Continuing Education)는 대학의 다른 3개의 학과 - Journalism, Arts Policy and Management and Music to form the new School of Arts, Communi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와 협력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교육을 하는 대학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직업과 관련되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은 성인교육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성인을 위한 과정(Courses for Adults)은 런던에 있는 개인의 전문적 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단기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다. Education, Training & Development of Adults 는 교육과 훈련 영역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위한 모듈화된 시간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Cultural Industries Unit는 문화 산업에서의 Certificate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TV산업과 비주얼 아트를 수행하는 수단들을 제공한다. Open Learning Centre는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가이드와 비즈니스와 전문적인 발전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re는 교수, 학습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고 이와 관련한 강좌를 제공한다. Division of Languages에서는 본교의 학생들을 위한 번역과 외국어 영역의 전문성을 위한 강좌를 제공하며, 일반인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성인을 위한 강좌(Courses for Adults)를 보면 크게 7개 영역의 과목이 있다. 고고학과 건축학, 미술 : 비즈니스와 전문적 발전 : 컴퓨터 : 문화 산업(cultural industries) : 어학 : 사회 과학(공동체 발전, 법과 권리, 심리학, 철학) : 작문과 저널리즘(비판적 글쓰기, 저널리즘)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문화 산업(cultural industries) 영역과 관련해서 보면, 이 영역은 Certificate 과정이며 프로그램 내에 대략 200개 정도의 강좌가 있다. 주말 수업 및 원격 수업도 있다. 또한 비즈니스와 음악(business & music)과 관련한 강좌프로그램이 이색적이다. 그 외에도 만화(cartoon), 영화와 TV, 비주얼 아트와 관련한 강좌들이 있다. 실용적인 교육 영역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열린 학습 센터(Open Learning Centre)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다. 먼저, ICT 훈련을 요구하는 외부 기관에게 장소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기관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학습상담서비스(Advice and guidance) : 학습상담서비스는 모든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 튜터로부터 피드백받기, 학습 욕구에 대한 의사결정하기, 학습 기술(study skill)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 온라인학습 가이드 (Guidance Online Academic learning, GOAL) : 수많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학문적, 개인적,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지원그룹이 만들어졌다. 글쓰기 작업에 대한 서로의 지원, 참고서적 및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 교환, 시간 관리문제에 대한 도움, 다른 이들과의 토론에서 쟁점 명확히 하기, 학습 반성과 발전 과 같은 일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 외국 대학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특성 및 성인지적 접근 경향

외국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은 대체로 소속 대학의 교육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소속 대학이 학문지향적인가, 사회봉사지향적인가, 직업교육지향적인

가에 따라 대학평생교육원도 그 전통을 반영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대학정규과정과 유사한 학문적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학문적 과정의 이수능은 교양 증진, 이성의 계발은 물론 대학정규과정으로의 이전 및 학위수여로 연계될 수 있다. 대안적 학위 및 학점 취득 과정으로서 정규대학과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대학들의 대학평생교육원 교육과정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개설된 프로그램들만을 볼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이라고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직업과정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자격증(certificate)과정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과거의 전통에 비해 인문교양교육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나, 한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인문교육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다. 즉, 기본적인 학문적 기반 위에 직업과정이 보완,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넷째, 교육과정 이수결과의 학문적 인정이 강조되고 있다. 학점, 학위, 자격증 과정 등 학습의 결과가 인정, 활용될 수 있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개설되어 있고, 비학점과정은 비중이 낮다.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의 질 관리는 관련 학과 등의 감독을 받으며, 전문직협회 등의 인증으로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다섯째, 직업전문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에서는 기업체의 교육요구에 맞춰 과정을 개설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주문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들이 개설되는 추세이고, 일정 연령 이상의 노년층 성인들에게 교육비의 할인, 청강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노인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일곱째, 성인학습자를 위한 포괄적인 학습자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하고, 더 나아가 성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도 많이 있다. 주로 부족한 학습능력에 대한 학습상담, 재정지원, 보육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학습 및 경력 설계프로그램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기초학력보완프로그램, 경력탐색 및 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재입학 성인학생을 위한 입문지원 프로그램(re-entry program)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여덟째, 여성센터나 학과, 연구소가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의식과 경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특화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설된 과정 자체가 여성의 취미나 여성적 직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 넓은 교양과 학문적 지식, 전문적 직업 지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취미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은 거의 볼 수 없고, 대학수준의 전문적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대학들과의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평생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자격증이나 학위를 받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특색이 강하다. 또한 성인학습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는 성인여성의 재입학 및 학습의 지속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여성만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는 식의 접근보다, 대학평생교육의 수준이나 내용 자체가 남성이나 여성들이 학문적, 직업적,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긍정적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인교육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지만, 1970년대까지 여성의 존재와 관점은 교육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75년 세계여성의 해는 성인교육가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과정 운영에 여성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도록 촉구하였다. UN은 교육, 고용, 건강 및 복지, 사회, 정치·경제 영역에서 정부가 채택해야 할 최소 목표를 제시했다. 다양한 국제기구 및 조직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유엔의 요구에 호응하였다. 1979년 IC AE(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는 성인교육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5년 계획을 제안하였고, UN은 여성성인교육자의 증대, 여성의 성인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지원, 여성학습자 증대 사업을 지원하였다. UNESCO는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성의 복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 상황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운영의 변경이 가능한 탄력성(flexibility), 사회·문화·정치 상황에의 적응성(adapt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을 위한 성인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은 여성들의 지적, 직업적 기술은 물론 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가정에서 학업, 그리고 새로운 직업으로의 원활한 전이를 돕기 위해 여성들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Oglesby, Krajnc & Mbilinyi, 1989).

여성계속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다.

- 여성은 불연속적 교육과 고용패턴을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은 타인의 요구에 적응하여 자신의 경력계획을 그에 따라 조절하도록 기대된다
- 여성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여성 삶의 비연속성과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
- 여성들의 문제는 예방적 접근보다는 치료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전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의 차이성을 지속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않는 한 여성은 비연속적(단절적) 교육과 고용패턴에 적응하고, 가족과 타인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요구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리된, 치료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대개 실업, 빈곤, 부정적 자아개념, 교육과 직업에 대한 빈약한 조언, 경력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적 준비의 부족 등의 여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훈련과 상담, 경력설계, 직업탐색프로그램

램을 통해 자신감 및 책임감 제고, 기술습득, 동료나 멘토관계의 형성 등이 중시되며, 여성들의 교육과 직업에의 입문을 돕는 re-entry 프로그램과 학력보완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 즉, 여성계속교육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입학전 상담(preadmission counseling)
- 조언과 오리엔테이션(advising and orientation)
- 개인별 직업 및 교육평가
- 자존감과 자기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제공
- 고용 정보 등

(Rice & Meyer, 1989).

외국의 대학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은 여성의 평생교육 접근기회와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식과 지도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의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입학안내 활동의 활발한 전개: 대학 인터넷사이트나 대학내 상담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이나 지역기관에의 파견상담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이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입학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성인학습자의 학습적응 프로그램 제공: 오랜 기간 학습활동에서 단절되어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성인들을 위해 기초학력보완프로그램이나 학습방법의 교육, 학습분야 선택, 학습설계 등을 도와주는 재입학자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학습복귀를 돕고 있다.
- 교육방법 및 시간편성의 다양화: 학교에 정기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학습자들을 위해 원격교육과정이나 개별학습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여성들이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 주말, 단기과정, 모듈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 적극적인 탁아서비스: 탁아시설 설치나 탁아비 지급 등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상담서비스 강화: 학습 및 직업진로, 학습애로 사항 등 성인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동료상담, 집단워크샵, 멘토링 등 상담서비스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직업전환 및 경력설계 지원: 취업이나 직업전환을 위해 직업탐색, 적성과 약, 경력설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여성의식과 지도력 강화프로그램 제공: 여성과 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문적 내용의 강좌외에 여성으로서의 의식과 삶의 경험을 표출하게 하는 프로그램, 여성의 정치적 지도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식화와 세력화를 지원하고 있다.
- 성공사례 홍보: 성공한 학습자의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성인들이 학습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대체로 홍보하는 성공사례는 여성이나 노인이어서 여성들의 자신감 제고와 동기 부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센터들은 다양한 교양 및 직업전문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여성들의 의식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정치적 역할 강화 및 지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학평생교육원들이 주로 여성들의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과 요구를 반영한 현실유지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선진국의 대학평생교육은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여성들의 의식과 직업경력 전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규 대학과정 수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어, 성인 여성들이 대학평생교육원을 통해 전문적인 자기개발이 가능하다.

직업교육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여성친화적 프로그램보다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온 남성진출 영역의 전문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의 대학평생교육원이 제공하고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들은 대학학과의 고급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비전통적 직업영역으로 여성들의 지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개선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여성들의 계속학습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국대학의 평생교육원은 프로그램의 판매에만 관심있을 뿐 여성학습자를 돕기 위한 방안에 거의 관심이 없다. 중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 다양한 여성들의 진정한 발전에 대한 관심은 미약하다. 이러한 대학평생교육원의 근시안적 운영은 장기적으로 대학평생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학습자들로부터 대학평생교육원이 외면당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상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Ⅲ

⋮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1. 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57
2. 성 분석 질문	66
3. 성 분석 항목 및 지표	68

앞 장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의 발전 과정과 외국의 운영 사례 및 경향을 소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국내 대학평생교육원들의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학평생교육원이 과연 여성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성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과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성 관점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성 분석 틀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¹⁾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의 주 대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여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흔히 정책개발에 있어 여성은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 있어서도 분석의 한 변인으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남성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사회적 전통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정책 대상이며, 동일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에게도 허용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정책개발자들에게 자리잡고 있다. 즉, 접근기회를 허용하느냐 여부가 문제일 뿐 여성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정책접근은 외형상 기회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정책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고, 성장의 기회와 환경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동일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의 접근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시간, 비용, 가족의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제약을 겪고 있음이 여러 연구(정지선 외, 1999; 곽삼근 외, 2000)에서 지적되고 있다. 남성의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여성들의 흥미와 이해에 제약이 된다는 점도 인식되고 있다. 최근 학교과학교육에 있어 ‘여성친화적 과학교육프로그램’의 성공은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성’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 상

1) 이 장의 분석 틀은 연구자(박성정, 2002)가 평생교육학연구 8(1)에 게재한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 분석 모형”을 참고로 하였음.

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gender-blind) 접근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혜택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이는 평생교육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교육기회의 측면에서 남성이 직업관련 교육 참여율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취미여가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미취업 여성은 직업교육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직장여성의 경우도 동료 남성에게 비해 전문적 직업능력을 성장시키기는 교육기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남성이 주로 고용주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고 교육에 참여하는 반면, 여성은 자비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O'Connell, 1999; 최돈민 외, 1999; 정지선 외, 1999; 박삼근 외, 2000).

성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분석할 때, 이러한 남녀간의 성별 기회격차 외에도 여성평생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여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현행 평생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을 문화와 지식의 소비자로 안주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는지,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는 생산자로서의 성장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의존적이 아닌 주체적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제적·정치적 권한을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성 관점에서 평생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성을 화두로 우리의 현행 정책과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성 관점에서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는 ‘성 분석(gender analysis)’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성을 화두로 평생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분석이 평생교육과 여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성 분석의 이론적 배경

가. 성 분석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선행 연구

본 장에서는 개발정책에서 성이 고려되고 반영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기구 및 성 분석 도입국가에서 개발된 다양한 성 분석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²⁾ 성 분석은 정책분석에서 그동안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성(gender)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분석이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성 분석은 특히 정책개발에 필요한 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 분석은 성 차별적 사회에서는 정책 개발과 집행이 성 중립적일 수 없다고 보고, 정책에 내재해 있는 성 차와 성 불평등을 드러내서 인식하게 해주는 것으로, 특히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 정책은 성 중립적이라고 가정된 지배적인 경제 분석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었다. 생산 및 사회적 재생산 양 영역에 대한 여성들의 지대한 기여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여전히 비가시적인 것으로 남아있었으며, 경제적 통계와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 교육, 혹은 사회적 발전과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여성들을 포괄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주로 복지의 관점에서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 여성들의 무보수 노동과 비공식적 경제 활동은 점진적으로만 가시화되고 계산되기 시작하였다. 경제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성의 측면을 정확하게 혹은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경제 분석 및 그 도구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성에 입각한 사회분석을 시도하였다.

성은 사회개발에 있어서 점차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으로 인식이 확산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개발정책의 성적 함의를 규명하는 분석 즉, 성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경제생산에 대한 여성 기여의 비가시성에 대한

2) 김재인·박성정·정윤수·정경아(2001). 『정책의 성분석 모형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참고.

지적, 사회적 재생산 활동의 경제적 가치 인식, 구조조정의 성별화된 영향 등 사회경제적 정책의 성 차별적 함의와 영향을 밝히고자 했던 노력들은 정책분석의 새로운 차원으로 성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하였다(UNDP, 2001).

성 분석은 북경회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개발기구들의 영향으로 발전 계획과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UN은 구성원 국가들에게 성 관점에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분석하도록 권고하였다. 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과 분석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이 접근의 적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EU도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농업정책과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다양한 성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Rao, A., Anderson, M. B., & Overholt, C. A., 1991). 우리나라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을 입법화하였다. 이하에서는 각국 정부의 성 분석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 내의 여성지위처는 1976년이래 성 분석을 시행해 오고 있다. 1995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중앙 부처와 산하 기관들에게 장래의 정책 및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성에 기초한 분석’(gender-based analysis)을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책개발 단계에서 성 분석을 도입하는 것은 정책이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돕고, 캐나다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효율적 공공 정책으로 이끈다고 본다. 성 분석은 모든 공공 정책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협의가 섞여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여,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의 성 분석을 통해 여성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 정책들을 저지하고 건전한 공공 정책 개발을 보장한다. 1999년 성 분석국(The Gender-based Analysis Directorate)이 전체 연방정부의 성 분석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성 분석국은 다른 연방 부서와 기관들이 모

든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성 분석을 통합하는 과정을 확립하도록 돕는다. 연방정부는 “연방계획(The Federal Plan)”을 통해 모든 미래의 입법과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고, 각 부서들은 어떤 입법이나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게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성 관점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Status of Women Canada, 1995).

뉴질랜드에서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공 정책은 이러한 기여를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성 분석은 여성의 참여 극대화를 보장하고 이는 사회에 혜택을 증대한다. 성 분석은 경제분석이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며, 정책과 서비스의 성과가 형평성이 있는지를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정책과 사업 대상 선정의 적절성, 자문의 질과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대한다. 민간 기관의 경우도 성 분석은 소비자와 그들의 요구에 대해 향상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과 서비스, 판매,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뉴질랜드는 성 분석의 6 단계로 예상 결과의 예측, 문제 규정, 대안 개발, 대안의 분석과 권고, 정책 집행, 모니터와 평가를 제시하였다(www.mwa.govt.nz).

스웨덴에서 평등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 사례들과 분리되어 발전될 수 없다는 확신하에, 정부의 각 장관들은 그들이 맡은 분야에서 평등정책을 촉진하고, 분석, 평가하고 후속조치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1994년이래 총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연례교서를 통해 내각의 모든 결정과정에는 반드시 남녀평등의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성 분석 실천의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정부의 모든 조사위원회는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정책 제안을 검토, 분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나 경제, 복지시스템, 교육, 기타 분야에서 변화를 제안할 때는 성별 영향(gender impact)에 대해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위원회나 위원이 이것을 기술할 필요가 없다거나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여성정책연구회, 2000).

호주는 여성예산편성과정(women's budget process)을 창안하였다. 연방

차원에서는 1984년에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정부부처나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부처들은 정책이 국민대중의 혜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내세워 이 제도가 규정하는 의무를 피할 수 없다. 또한 각 부처는 모든 정책과 계획에 남녀 분리된 통계자료를 구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여성정책연구회, 2000).

현재는 Tasmania주를 비롯한 일부 주들이 성인지적 예산 실행을 계속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80년대 초에 이 제도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그것의 소멸을 설명해 준다. 호주에서의 여성예산은 경제확장기에 사회민주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관청 내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던 페미니스트들과 국가에서 성평등을 진작시키는 일을 하던 여성들이었던 반면, 시민사회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동안의 신자유주의 담론의 출현 및 경제적 재구조화 도입에 따라, 성인지적 예산 정책은 크게 절충되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상은 성 인지적 거시경제 분석과 상충되었으며 성평등을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호주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민사회 집단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소유되지 않은 성인지적 예산 정책은 국내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Sharp and Broomhil, 1999; UNDP, 2000에서 재인용).

한국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등 6개 부에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신설하고, 2001년 여성부의 출범과 함께 성 분석을 여성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성 분석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지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정부정책의 성 분석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성 분석 모형을 참고로 『정책의 성 분석 모형』(김재인 외, 2001)을 개발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성 분석 모형은 정책과정의 진행 단계(정책의제설정단계 - 정책결정단계 - 정책집행단계 - 정책평가단계)에 따른 분석 방식을 기본틀로 하였다. 이는 정책(사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

<표 Ⅲ-1> 성 분석 체크리스트³⁾

분석항목	정성지표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여성 관련 문제 파악	이 정책과 관련 있는 여성문제 (women's issue)의 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4	3	2	1
2. 여성의 요구 파악	이 정책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는 충 분히 파악되었는가	4	3	2	1
3. 여성의 자문과 참여	이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여성의 자문을 받았는가	4	3	2	1
4. 여성에 대한 영향 예측	이 정책이 여성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예측과 분석이 이루어졌 는가	4	3	2	1
5. 여성관련 목표 설정	여성과 관련된 세부목표가 구체적으 로 설정되었는가	4	3	2	1
6. 성 인지적 정책 결정	정책대안의 결정에 성(gender) 관점 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4	3	2	1
7. 여성 정책대상 집단 선정	이 정책의 정책대상집단에 포함된 여 성의 비율은 적절한가	4	3	2	1
8. 성 인지적 예산 편성	여성관련 예산은 여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가	4	3	2	1
9. 담당자의 성 인지성	정책담당자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성 평등적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4	3	2	1
10. 여성에 대한 정책 전달	정책수혜여성들에게 정책관련 서비 스와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4	3	2	1
11. 성 인지적 정책의 협조체계	성 인지적 정책의 집행을 위해 관련 기관,부처, 단체 등과 충분한 협조노 력이 있었는가	4	3	2	1
12. 여성관련 목표의 달성	정책집행결과 여성과 관련된 성과목 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는가	4	3	2	1
13. 여성에 미친 영향 평가	이 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4	3	2	1
14. 평가결과의 성 인지적 활용	정책평가 결과는 해당분야의 성 인지 적 정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적절 히 활용되었는가	4	3	2	1

출처: 김재인·박성정·정윤수·정경아(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139.

3) 해석방법: 점수 합산후 평균(M)산출

$3.5 \leq M \leq 4$ 이면, 여성을 충분히 고려함/ $3 \leq M < 3.5$ 여성을 대체로 고려함

$2 \leq M < 3$ 이면, 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M < 2$ 이면, 여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함으
로 해석

행, 평가라는 정책과정 전반을 성 관점에서 분석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정책 과정에의 성 관점의 통합은 정책의 결과가 양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성 분석이 정착되기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성 분석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방법론적으로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의 일차적인 사용자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담당자로 정하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정책과정의 각 단계마다 성 분석의 핵심 요소와 주요 분석 준거를 반영하는 분석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각 분석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석지표(김재인 외, 2001: 122-123)를 개발하였다. 분석항목과 지표를 토대로 성 분석지를 제작하였으며, 성 분석작업이 종료된 후 여기서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각 성 분석 항목에 대한 간단한 양적 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표 III-1 참고).

정부 각 부처는 각종 정부정책이 여성의 삶에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부 정책영역 분석에 적합한 성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지침』(이혜경·신영화, 2000)을 제작하였고, 농림부는 『각종 농업정책의 성 분석』(변화순 외, 2001)을 수행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육정책과 여성의 삶의 긴밀한 관련성을 인정하여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정책의 개발과정에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성 관점에서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 평생교육정책이 여성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성 분석의 차원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 분석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점검해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성 관점에서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핵심이 되어야 하는 질문은 “평생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와 “평생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여성의 의식, 권한 및 지위, 삶의 질 향상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사전적 영향 예측평가가 가장 중요한 성 분석 항목이다. 이는 애초에 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 데 의도가 있다. 물론 성 관점에서 잘 기획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여성의 요구와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 인지적인 운영자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는 성 관점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앞에서 소개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성 분석 모형은 평생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준다. 단지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닐 것이다”식의 단순한 분석을 넘어 “여성의 삶의 어떤 측면에 대해, 어떤 권한과 변화를, 어떤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및 프로그램개발자의 작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성 분석의 제 차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삶의 영역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삶의 어떤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의 삶의 영역은 재생산 영역, 생산 영역, 지역사회 활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여성의 노동·시간·자원·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Moser, 1993; Parker, 1993).

둘째, 여성의 요구 영역

이는 정책이 여성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Moser(1993)는 여성의 요구를 현실적 삶의 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실제적 요구(practical gender needs)와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요구(strategic gender needs)로 구분하였다.

셋째, 여성의 권한 영역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어떤 권한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의 제 자원에 대한 여성의 권한은 접근권과 통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의 제 자원으로는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서비스 등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 여성이 접근기회를 갖게되는 접근권의 개념과 의사결정권 및 처분권을 갖는 통제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순히 접근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권한보다는 자원을 처분하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이 보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Gurumurthy, 1998).

넷째, 여성지위의 변화 수준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삶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롱웨(Longwe)는 이를 성평등 또는 여성의 세력화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접근하여, 복지, 접근, 의식화, 참여, 통제의 다섯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통제의 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의 세력화에 가장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Longwe, 1999; UNDP, 2001).

이상의 분석 차원들은 동시에 성 분석의 준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분석대상 프로그램이나 분석의 주 목적에 따라 어느 한 가지 차원만을 분석 준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성 분석의 결과 정책과 프로그램은 성을 고려한 정도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성 이슈의 인식과 도입 정도에 따른 정책의 구분:

- ① 몰성적 정책(Gender-blind policies):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데 실패한 정책으로 현존 성별 관계에 입각하고 있고 여성을 배제하기 쉽다.
- ② 성 인지적 정책(Gender-aware policies): 남성은 물론 여성도 개발의 행위자로서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정책. 여성의 요구, 흥미, 우선 순위는 남성과 다를 수 있고 때로 충돌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 정책은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 i) 성 중립적 정책(Gender-neutral policies): 성별 차이에 대한 지식을 주어진 현재의 성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한다.
 - ii) 성 특화적 정책(Gender-specific policies): 성별 차이에 대한 지식을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쪽의 현실적 요구 반영에 사용한다.
- ③ 성 재분배적 정책(Gender-redistributive policies):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자원과 책임의 현 분배를 변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책은 주로 전략적 이해에 초점을 두지만, 변혁적 가능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기획할 수 있다(UNDP, 2001).

성 분석의 목적은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성 인지성을 사후에 평가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전에 성별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 분석 결과는 정책확정 및 집행 전에 반영되어 정책의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성 특화적 정책 개발을 위한 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성 분석은 정책이 모든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취약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 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재 많은 성 분석 연구들이 여성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양성 가운데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성 특화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2. 성 분석 질문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성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에 소개한 『정책의 성 분석 모형』(김재인 외, 2001)과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여성성인교육 모니터링과 평가(Breaking Through: Engender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adult education)』(Medel-Anonuevo, 1999)을 참고로 하여 도출한 것이다.

가. 상황에 대한 성 분석

이는 성 관점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기획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 성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정책환경 또는 주위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가
- 성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기관의 지침이 있는가
- 성 관점에 입각한 프로그램 개발을 소속 기관이나 기관장이 이해하고 지지하는가

나. 방향 및 목표 설정에 대한 성 분석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의 관련성과 요구가 파악되고, 그것이 기획 과정에 반영되었는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가 여성의 성장을 함의 또는 명시하고 있는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성의 성장에 어떤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이 계층, 연령, 학력,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여성집단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획, 배려되었는가

다.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과정에 대한 성 분석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 환경이 성인지적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책집행 공무원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자, 강사는 여성의 요구와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 교육내용 및 학습자료가 여성의 삶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가. 또한 여성의 의식과 능력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교육시간 편성 방식이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는가
- 교육방법이 여성학습자의 참여와 통제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여성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있는가
- 여성의 접근과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라. 성과에 대한 성 분석

이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성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전 예측해 봄으로써,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삶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가
- 여성의 의식(주체성, 독립성, 시민성 등)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가
- 사회 제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증대하는가
- 사회 제 자원에 대한 여성의 통제능력, 역량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정책 및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세력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이상의 질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정책, 기관, 프로그램의 성 분석 항목과 지표를 구성해 보았다.

3. 성 분석 항목 및 지표

(1) 정책상황의 성 분석

항목	지 표	질 문
정책	평생교육정책의 성 인지성	평생교육정책이 젠더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여성평생교육정책이 있는가?
	평생교육기관 정책	평생교육기관의 성 인지적 운영을 지지하는 정책이 있는가? 평생교육기관을 성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예산	여성관련 예산 재정지원의 성 차	전체 평생교육 예산 중 여성대상 예산의 비율은? 직업교육 예산 중 여성지원예산의 비율은?

(2) 기관운영환경의 성 분석

항목	지 표	질 문
인력	기관장 및 강사의 성별 분포	기관장의 성은? 강사 및 직원의 성별 분포는?
	젠더 의식	기관장, 강사 및 직원들은 젠더 이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원장은 의사결정시 성을 주요 변인으로 고려하는가?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	기관장 및 강사가 성 인지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평생교육이 여성의식 성장과 세력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문 체제	여성의 자문 참여	기관운영 및 자문위원회에 포함된 여성 및 젠더전문가의 비율은? 기관운영 및 프로그램기획에 젠더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가?
시설	시설의 여성친화성	여성휴게실이 있는가? 유아탁아시설이 있는가?
재정	여성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가?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학습비 지원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학습비 지원이 있는가 (저소득, 저학력, 장애여성 등)
홍보	여성의 접근성	여성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제고하는 홍보전략이 있는가?

(3) 프로그램의 성 분석

① 프로그램 개발(설계)단계

항목	지 표	질 문
대상	여성대상 프로그램 비율	전체 프로그램 중 여성대상프로그램의 비율은? 여성대상 프로그램의 내용별 분포는? 여성대상 프로그램 중 의식 및 직업프로그램의 비율은?
	여성집단의 다양성 고려	프로그램이 여성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획되고 있는가? 고려된 여성집단은? 주요 target 여성집단은?
요구 조사	성별 요구 반영	프로그램 요구조사시 성별 요구를 조사했는가? 조사된 성별 요구는? 성별 요구의 차이는? 성별 요구를 반영했는가?
	다양한 여성집단의 요구 반영	다양한 여성집단의 요구를 조사했는가? 여성집단내 요구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를 반영했는가?
목표	여성관련 목표의 명시성	프로그램 목표 중에 여성관련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가?
	여성관련 목표의 수준	여성대상프로그램 목표의 성평등 수준은?(복지, 접근, 참여, 의식화, 통제) 여성의 의식과 세력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전체 프로그램 중 그 비율은?
내용, 방법 설계	내용 및 자료의 성인지성	학습내용 및 자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삶 및 경험을 반영하도록 고려하는가? 학습내용 및 자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자립적 삶을 격려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가? 학습내용에 여성의 가정, 사회 종속성을 유지하는 내용이 있는가? 학습내용이 남성 및 여성의 성평등 의식, 여성의 사회참여 및 통제력을 증대하도록 구성되었는가? 젠더문제(성차별, 성평등)와 관련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방법	방법 구성시 여성의 자기주도성을 제고하도록 고려하는가?
영향 예측	성별 영향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프로그램이 성평등 및 여성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가?

② 실행단계

항목	지 표	질 문
시간	시간편성의 탄력성	교육시간편성체제가 여성의 교육참여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는가? 모듈화된 프로그램, 원격교육, 새벽야간시간대 프로그램 등이 개설되어 있는가?
방법	학습자 참여기회	프로그램 진행방법에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내용 및 자료 구성에 여성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학습자주도성	교육 방법이 학습자의 주도성을 고려하는가? 학습자 참여 및 주도적 프로그램의 비율은?

④ 성과단계

항목	지 표	질 문
목표 달성도	여성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	여성의식, 취미교양, 직업교육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목표달성도(이수율)는? 영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별 탈락을 및 원인	프로그램의 성별 탈락을 또는 이수율은? 탈락율의 성차의 원인은? 여성 탈락의 주 원인은?
영향	성평등 기여도	프로그램이 성평등 또는 여성의 세력화에 어느 정도(어떻게) 기여했는가? 프로그램이 어떤 차원의 성평등에 기여했다고 보는가(복지, 접근, 참여, 의식화, 통제 증대)? 수료후 여성의 의식 증대, 생산성 및 직업능력 증대, 취업기회 증대, 의사결정력 증대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가?
	성별 영향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자와 연구자가 성 관점에서 제기된 이상의 분석지표와 질문들을 참고로 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면, 평생교육기관, 정책 및 프로그램이 여성의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여성을 고려하고 여성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성 관점에서 국내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상기 성 분석 항목과 지표들을 토대로 평생교육기관과 참여학습자에 대한 성 분석 설문 문항(부록 참조)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IV

.....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1. 국내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과정	76
2. 대학평생교육원의 현황	79
3.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분석	83
4. 국내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경향과 성인지적 접근	112

1971년 최초의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주부대학강좌”를 계명대학교가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약 318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였다. 이는 전체 대학의 약 80%이상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일반화된 대학의 교육기구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강좌가 주부대학강좌임이 말해주는 것처럼, 대학 평생교육은 여성들의 교육욕구와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계명대 강좌 이후 1971년부터 1984년까지의 10여 년의 침체기를 제외하면, 대학평생교육과 여성 교육의 확장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대학들이 150년 전부터 자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각종 교육봉사를 제공해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대학평생교육의 역사는 매우 짧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학외과정(Extramural program) 또는 대학확장과정(University extension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왔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미국의 대학들은 이미 1915년에 전국대학계속교육협회(National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Association)를 조직하여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일반 시민을 위한 대학의 역할수행에 충실하였다(김신일, 200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대학평생교육은 단기간 급속히 팽창하면서 뚜렷한 교육적 지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은 기타 지역사회교육과 두드러진 차별성이 없으며, 대학의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대학평생교육은 단순한 사회봉사의 기능을 넘어 제 2의 대학교육 부문으로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평생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은 확립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의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성인지적 함의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국내 대학평생교육의 발전 과정

국내 대학의 평생교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다(교육부, 1997).

■ 교외생을 위한 야간과정 및 통신과정

일제시대 보성전문학교에서 야간과정과 통신과정으로 교외생을 위한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이 대학평생교육의 시작이었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가 개교한 이후 곧 야간과정을 개설하였고, 1909년 4월 법학과 교외생제도를 신설하여 당시 정식 법학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다수의 교외 낙오생들의 향학열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모집요강을 보면 교외생에게 매월 강의료를 우송하고 질의를 우편으로 받아 지도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지방순회강연을 통해 교육하였다. 입학시기나 시험이 별도로 없었고 등록만 하면 수강이 가능하였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교에서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거나 통신교육 수료후에는 정규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 정규대학 교육과정으로서 성인교육 및 봉사과정

정규대학의 농촌계몽활동을 확대하여 정규대학 교육과정에 성인교육 및 봉사과정이 삽입되었다. 1920년대에는 일제통치하에서 브나로드운동을 주축으로 하여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농촌에서 문맹퇴치, 민족자각운동 등을 벌였다. 이러한 계몽을 통한 봉사활동은 해방후 농촌개발운동, 국민재건운동, 새마을운동으로 계승되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는 1964년에 ‘농촌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사회교육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학생들의 방학중 농촌봉사활동을 필수과정으로 하는 ‘사회교육’ 교과를 설치하여 관련학과 학생들이 정규과목으로 택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여자대학교도 비학점 필수과정으로 ‘농촌생활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 농업계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현장실습’도 정규교과로 되어 한때는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받았다.

■ 대학-지역사회의 공동 협력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과 같은 형태의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이 시도되었으며, 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교양교육, 농업교육, 시민교육 등을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계명대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교육연구소’를 설치하여 대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미혼여성을 위한 강좌, 지역사회지도자와 일반시민을 위한 각종 강좌,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주부시민대학에 이어 1973년 6월에는 처음으로 미혼여성을 위한 신부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이어 지역사회 지도자와 시민을 위한 강좌, 협의회 개최가 이어졌고, 1976년부터는 포항과 구미지역의 주부 및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확대되었다(계명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1981: 44-51). 이후 아세아재단의 후원으로 몇몇 지방대학에서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교육사업이 전개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20개 이상의 대학이 평생교육을 실시하였다.

■ 대학내 평생교육 전담 기구 설치 운영

1980년 새 헌법에 평생교육조항이 규정되고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다음에는 사회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기초 위에서 대학 사회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회교육법 제 24조 제1항에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학의 사회교육에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대학이 시민을 위하여 대학이 교육적인 자원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대학 사회교육은 대학 부설의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등의 사회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학사회교육의 확장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양적인 면에서나 수월성의 면에서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그 교육대상도 점차 넓혔으며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단순한 기초교양증진단계를 넘어서 프로그램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전공별로 세분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또

한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제공함으로써 이수결과를 인정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한편 1988년부터는 독학학위제 실시로 ‘독학학위과정’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설치·운영되어 자격과 연계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 평생교육체제로 운영되는 대학 설립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성인들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전체 교육체제 자체가 평생교육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이 설립되었다. 방송통신대학은 1968년 11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1969년 서울대학교에 설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그 후 1972년 3월에 서울대학교의 부설로 개교하면서 우리 나라에 고등교육 수준의 개방교육체제(Open Learning System)를 열게 되었다. 개교 당시에는 전문대학과정으로 운영되었으나, 1981년 한국방송통신대학으로 독립·운영되면서 5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되었고, 1982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였다.

■ 열린교육체제로 확대된 대학평생교육

1990년대에는 신교육체제 교육개혁방안으로 학점은행제 도입, 시간제등록, 원격대학의 설립 등 열린교육체제로 대학의 평생교육이 급속도로 개방되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평생교육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독학사과정, 학점은행제 등에서 비학위과정 및 학위나 학점인정과정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처럼 대학평생교육은 대학부설 사회(평생)교육원의 확산, 방송대, 독학제, 학점은행제와 같은 비전통적 고등교육제도의 창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성인들이 학위취득이나 직업교육, 취미활동 등을 위해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다.

2. 대학평생교육원의 현황

본격적인 대학 평생교육은 1982년 12월 한국에서 ‘사회교육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이어서 1983년 9월에 ‘사회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사회교육법 제 24조 제(1)항에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화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일부 대학에서는 영국대학의 교외교육부나 미국 대학의 성인계속교육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 등의 성인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대학성인교육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보다 많은 대학들이 계속하여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1982년에 안동대, 인천교육대학, 1984년에 부산산업대학, 숙명여대 박물관 특설교육원,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등이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전문화되고 전공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8년도부터는 독학학위제 실시로 대학 평생교육원에 독학학위 과정을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부터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설치·운영되어, 자격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98년도부터는 학위제도와 관련한 학점은행제가 실시되면서, 대학 평생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편 종전의 사회교육법 전문을 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이 200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제를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양병찬, 2000). 1990년대 중반이후 대학평생교육원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이 시기부터 단행된 대학평가제도의 영향도 있지만(강순원, 1997),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학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권두승, 2001).

2002년 11월 기준으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4년제 대학 141개교, 전문대학 121개교 등 총 318개교에 331개의 평생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 대학 중 약 80%가 평생교육원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총 6,593개 과정에

교육인원 328,220명에 달하고 있다.

<표 IV-1>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현황 (2002년 11월 1일 기준)

구 분		대상 학교수 (A)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설치 현황			
			설치 학교수	평생 교육원수(B) (B/A)	세부과정수	교육인원
대학	일반대학교	162	141	152(83.8)	4,342	238,346
	산업대학교	19	16	16(84.2)	132	4,485
	교육대학교	11	10	10(90.9)	98	3,475
	대학원대학교	18	11	11(61.1)	51	1,600
	방송통신대학교	1	1	1(100)	7	6,000
	소계	211	179	174(82.5)	4,630	253,906
전문대학		158	121	122(69.0)	1,693	67,068
기타(기능, 각종 등)		28	18	19(67.9)	270	7,246
합 계		397	318	331(83.4)	6,593	328,22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1989년 대학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장들과 학자들이 모여 대학간의 정보교환, 프로그램 개발, 공동 연구활동 등을 위한 협조체제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를 설립하였다. 1994년 12월 회원의 자격을 2-4년제 대학(교)의 부설 평생(사회)교육원장으로 한정하였고, 2000년 12월 명칭을 한국대학평생교육협회(KAUCE: The Korean Association for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로 변경하였다. 2001년 4월부터 협회는 대학평생교육원 일부 과정에 대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 5월 현재 156개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2001).

대학평생교육원의 명칭은 대부분 평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거나 특징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표 IV-2> 대학평생교육원의 명칭

명 칭	해당수
평생교육원	109
사회교육원	53
기독교사회교육원	2
정보과학교육원	1
평생교육센터	1
외국어정보사회교육원	1
미술디자인교육원	1
여성사회교육원	1
사회문화교육원	1
정보사회교육원	1
인재교육개발원	1
산업교육원	1
평생교육본부	1
능력개발교육원	1
합계	175

출처: 한국대학평생교육협회 인터넷 자료 참조

수강생의 확보 및 모집은 기관이나 과정의 특성상 여성, 산업체근로자, 농민 등 특정 대상을 명시하는 경우, 독학제 과정이나 학점제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성별, 학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각 프로그램 및 과정별 수용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보면, 대학별로 매우 다양한 과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과정별로 다양한 세부과정과 강좌를 설치하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크게 분류해보면 문화,교양교육과정 / 직업관련 전문과정 / 대학전공관련 전문과정 / 특수목적전략과정 / 대상별 특별과정 / 독학학위취득준비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교육부, 1997).

■ 문화, 교양교육과정

대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각 대학이나 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양과정, 전통사상 및 문화과정, 문학과정, 건강과정, 상식과정, 생활외국어

과정, 가정생활관련과정, 예능교육과정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든지 문화, 교양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슷한 내용의 강좌라도 대학마다 강좌명이 다르다.

■ 직업관련전문과정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과정 또는 현직 수행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관련 전문 교육과정은 특수한 직업분야별로 전문적인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대학전공관련 전문과정

정규 대학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전공교육 과정의 성격을 지니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학의 전공과는 달리 성인들이 가정생활, 경제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루거나 특정 부문의 전문영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과정 프로그램들이 더 많다. 앞의 직업관련 전문과정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 특수목적 전략과정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슈가 되거나 관심영역이 부각되고 있는 영역을 전략적으로 발굴 개발하여 특정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경우이다. 최근에 새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학부설 사회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강좌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주로 인적자원개발과정, 지역사회교육과정, 생활과학전문인교육과정, 여성지도력훈련과정, 노년학교위과정, 정보처리과정, 국제학과정, 자기계발훈련과정, 역할확장훈련 등이 특징적으로 포함된다.

■ 대상별 특별과정

특정 대상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우로서 교회내의 교역자

와 목회자, 사모, 직분자, 평신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지도자 교육,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실용회화강좌, 초중고생 대상의 영어계절학교,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부영어강좌, 특정 지역 및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대상 평생교육강좌, 농민이나 농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독학학위취득 준비과정

독학사과정이라고도 불리우고 학위취득 전문과정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독학학위과정을 전공입문과정(1단계 교육과정), 전공심화과정(2단계 전공기초과정), 학위취득전문과정(3단계 전공심화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독학사 취득을 위한 4단계의 종합시험에 대비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1997).

교·강사는 본교 또는 평생교육원의 전임교수,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임교수 확보율은 매우 낮다. 또한 평생교육사나 전임 직원의 확보율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3.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분석

: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별 유형화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의 『협의회요강(2001)』과 각 대학평생교육원의 홈페이지 및 각 평생교육원의 2002년도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을 위한 신문 광고를 참고하여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였다. 각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포함 여부가 달라지거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운영은 대학의 교육적 전통과 이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 평생교육원 역시 대학의 일부로서 본 대학의 이념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이

념 및 목적, 중점 개설 프로그램의 특성을 기준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을 전문 직업교육형, 사회봉사교육형, 의식교육형, 여성교육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전문직업교육형은 전문직업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회봉사교육형은 지역사회나 종교적 차원의 봉사에 필요한 교육, 의식교육형은 시민의식 교육에, 여성교육형은 여성직업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대학평생교육원이 한 유형에만 배타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여자대학은 여성 발전을 교육목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성교육형으로 별도로 분류하였지만, 여성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업교육형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가. 전문직업교육형

교양이나 취미과정보다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직업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유형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전문직업과정 제공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www.yonsei.ac.kr/socio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은

- 평생교육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평생교육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회에 봉사하게 한다.
- 다양한 개개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아실현을 돕는다.

라고 하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1993년 7월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 1994년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을 설립

하여 그 해 1학기에 9개 과정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출범을 하여, 같은 해 6월 11개 과정 293명의 첫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1998년부터는 1년 과정, 또는 한 학기로 운영되는 전문가 교육 센터를 두고 신진 산업 영역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화하였으며 지금까지 13,000 여명에 이르는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02년 1학기부터는 10개의 교육센터로 조직을 다시 정비하여 교육과 운영의 합리화와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언어·문학, 음악, 심리상담, 스포츠, 아동 교육, 사회경제, 생활문화, 미디어아트, 급식경영, 패션정보교육과 관련하여 70여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개설프로그램

센터명	과정명
언어·문학교육센터	문예창작연수, 시창작, 소설창작, 독서지도자(기초/심화), 논설교육지도자(초등/중·고등)
미디어아트교육센터	기업이미지전략, 영상프로듀서, 사이버영화비평, 브랜드매니저양성
음악교육센터	교회음악지도자, 고급성가 지휘법, 피아노지도자(초급/중급/고급), 피아노반주법, 스즈키바이올린지도자, 음악치료의 이해, 음악실기연수(성악/피아노/오르간/바이올린/첼로)
심리·상담교육센터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개인상담의 실제, 현대인의 정신건강, 심리검사와 면접기술연습, 인지치료와 현실치료, 임상예술치료, 아동·청소년·가족상담, 상담사례지도
스포츠교육센터	태권도최고지도자, 노인양생체육지도자, 헬스휘트니스전문지도자, 댄스스포츠지도자, 탁견지도자, 레크리에이션지도자(주간/야간), 댄스스포츠, 진가태극권, 경락을 통한 대체요법, 키네시오테이핑요법
아동교육센터	유아음악지도자(초급/중급), 동화구연지도자, 달크로즈교육자(중급), 달크로즈전문지도자, 아동미술지도자(오전/오후), 영어독서지도전문인, 지혜로운 어머니와 행복한 어린이
생활문화교육센터	서예지도자, 전통민화실기지도자, 교회꽃장식지도자, 여행안내지도자, 선과 선어록, 한국의 전통차도, 사군자문인화, 합창, 테마가 있는 클래식 음악감상
사회경제교육센터	지역사회지도자, 문화·관광정책, 스피치전문교육, 생활법률, 플라워디자인과 현대경영, 성공적인 이미지메이킹, 부동산컨설팅과 투자전망연수, 증권투자분석, 부동산경매전문가
급식경영교육센터	급식경영전문인
패션정보교육센터	패션산업 인턴쉽, 패션산업 실무 고급

세부과정들을 보면 관련 직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과목들과 지도자과정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총장명의로의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수강 중에는 본교 학생들처럼 도서관 출입 및 자료실 이용이 가능하며 본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특강 프로그램에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육·문화 고위자 과정’(Chief Learning Officer Program)이 운영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회교육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급 교육·문화·예술·종교·체육기관 경영자와 기관장 및 각급 학교장, 고위교육행정 전문인, 기업체 교육 및 인력개발 담당 고위관리자, 각급 입법기관 의원, 교육위원, 고위공무원, 각종 평생교육기관 기관장 및 경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문화계의 최고경영관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는 전문직업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용적인 직업과정이 중심인 대신 교양과정이나 의식교육과정은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단순 취미과정은 거의 직업과정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www.korea.ac.kr/~kuice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평생교육기관 지향, 내실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균형 도모, 체계적이고 신뢰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전문교육과정, 일반교육과정, 학점은행제 과정,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과정에는 사회체육, 복지, 상담, 국제회의, 여가, 건강, 아동, 부동산, 교육전문가과정이 있으며, 일반 과정에도 화훼, 경영, 문화전문가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학점은행제과정 외의 과정은 직업과정적 특성이 강하다.

개설프로그램

(*표시는 신설 과정임)

과 정 명		
전문 교육 과정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21세기 리더십 개발, 태권도 지도·경영 최고위과정(기초/계속), *최고 미용경영자
	전문능력개발과정	사회교육 전문가 (학원경영자), 노인복지 전문가, 컨벤션 기획사 (구, 국제회의 기획사), 청소년상담 전문가, *케어복지사 1,2급,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아동지도과정	아동독서 지도자, 아동미술 지도자, 유아음악 지도자 (기초/계 속), *정서 및 창의성 개발 지도자
	건강관리과정	카이로프랙틱 (기초/계속), 추나요법 및 스포츠 마사지 (기초/계 속), 원예치료사, 침뜸(鍼灸)요법 (기초/계속), 미술치료사, 요가
일반 교육 과정	문예창작과정	시창작, 소설창작, 수필창작
	예능과정	서양화, 동양화, 사군자와 문인화, 한글 서예, 한문 서예, 서예입 문, *한문 서예 (초서체), *디지털 미술관으로의 초대
	인문교양과정	한문고전과 한시, *중국문화 및 사회의 이해
	리빙아트과정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 화훼디자이너 2급자격 취득 (기초/계속)
	온라인교육과정	*벤처경영자과정, *Asia Specialist
	골프학지도자과정	Certificate IV in Sports Science, Diploma of Sports Science
학점 은행제 과정	심리학 전공	사회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학개론, 아동발달, 청년발달, 학습심리학, *임상심리학
	법학전공	노동법, 민법 II, 법학개론, 상법 I, 행정법 I, 헌법 II, 형법 I, * 형법 II
	경영학전공	경영정보시스템, 경영학개론, 광고론, 마케팅원론, 생산관리, 재 무관리, 조직행위론
	건강관리학전공	건강학개론, 스포츠영양학, 운동검사 및 처방, 운동생리학, *평생 체육론
	교양	교육과 사회, 교육학개론, 동양사상의 전개, 레크리에이션, 문학 개론, 사회학에의 초대, 생활법률, 영작문 I, 인간관계론, 평생교 육론 탐구, 현대인의 정신건강, *영어회화 I, *인터넷의 이해
특별 교육 과정	학원교육전문가 과정	학원운영자 교육과정, 학원강사 교육과정, 학원전문가 연수과정, 유아·초등영어 전문과정, 수학올림피아드과정
	특별전문교육과정	부동산건설팅전문가 과정, 중국경제전문가과정, 마케팅전문가과 정, 부동산경매전문가과정
	골프지도자과정	Certificate IV in Sports science, Diploma of Sports Science

특히 2002년 2학기에 정보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평생 학습 사회를 실현하고자 ‘온라인교육과정’에 벤처경영과정과 Asia Specialist과정을 개설하였다. 벤처경영과정에는 e-비즈니스, 조직, 재무와 관련되는 과목들이 있으며, Asia Specialist 과정에는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수업과 강사와의 비정기적 off line 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온라인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웹상의 게시판, 토론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게 조절하여 학습할 수 있다.

벤처경영과정	Asia Specia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비즈니스 e-비즈니스 개론 경영전략과 e 비즈니스 • 조직 조직설계와 가사조직 조직행위의 이해 창조성 개발과 조직혁신 • 재무 재무관리 경영과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전문가 한국전문화의 탐구 한국문화론 한국민속예술의 이해 • 중국문화전문가 현대중국의 이해 인터넷 중국어 • 일본문화전문가 일본문화의 이해 기초일본어1 기초일본어2

또한 2000년부터 고려대학교 체육학과와 호주의 스포츠 명문인 국립 빅토리아 대학교가 골프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2년은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골프실기와 영어 골프 및 체육이론, 컴퓨터 등을 배워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에 가서 어학연수 후 1년을 더 하게 되면 골프학 학사학위 Bachelor of Applied Science(Golf Science)를 받게 된다.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방학을 이용하여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영어 연수와 호주 Brett Le Brocque Golf Academy로부터 골프 실기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도자 과정 및 전문교육과정들을 통해 직업전문성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은 원하는 모든 일반인(학력, 국적, 연령 관계없이)에게 열려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교육과정 중 전문교육과정(1년)을 이수하면 본 교육원 원장 명의의 자격증이 수여된다. 수료증 및 자격증은 총 수업시간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수여되며, 과정에 따라 자격심사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나. 사회봉사교육형

대체로 보수적 종교이념에 기반을 둔 대학들이나 초기 대학확장교육 전통을 발전시킨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시민의 교양을 함양하고 사회봉사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리적 목적보다는 지역주민 특히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요구에 봉사하는 비영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www.sogang.ac.kr/~iile

서강대학교는 가톨릭 신앙과 예수회 교육 이념을 토대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서강대학교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은 1989년 9월 서강대학교 부설 ‘국제평생교육원’으로 개원하였으며, 1999년 1월 국제문화교육원에 통합되면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적 사명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3,000여명의 일반 성인들이 수강하고 있다.

학점은행제의 과정들을 보면, 상담 및 심리과정, 문예창작학, 영어영문학과 관련한 전공과목이 있으며, 특히 상담심리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교양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행동의 심리학, 성의 철학, 여성과 사회와 같은 여성학 관련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다. 서강대학교에

서는 성평등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 기반을 통해 평생 교육원에서도 여성학과 관련된 강좌와 특강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듯 보인다.

비학위과정에는 전문카운슬러교육과정, 상담 및 심리과정, 외국어과정, 교양과정이 있는데, 역시 심리 및 상담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학과 관련된 과목에도 비중을 두고 있어, 타인에게 봉사하며 성실하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카운슬러 과정은 2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이수한 경우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이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매 과목 성적이 80점 이상, 출결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카톨릭계대학으로서의 요구상 이태리어, 스페인어, 라틴어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태리문화원과 협력하여 이태리어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양과목에서도 ‘여성과 성’이라고 하는 여성학 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설프로그램

학사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과정명	세부과정명	수업기간
상담 및 심리과정	청년발달, 상담이론과 실제, 행동치료방법론, 인간관계론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현대인의 정신건강	한학기 11주
	심리학개론,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인지심리학, 실험심리학, 정서심리학, 학습심리학, 학교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법, 언어심리학, 건강심리학, 아동발달	한학기 16주
문예창작학	문예창작, 문학개론, 문학비평론, 소설창작론	한학기 16주
영어영문학	영문법, 영어회화 I, 영어회화 II, 영어교수법	한학기 16주
교양	일본어, 스페인어	한학기 11주
	성행동의 심리학, 비판적 사고와 논리, 인터넷의 이해, PC활용, 영화와 영화읽기, 영화예술의 이해, 역사학에의 초대, 박물관과 문화유산, 음악사, 음악감상법, 미술사입문, 성의 철학 , 동양의 고전, 실용한문 I, 생활법률, 언어와 사회, 실용영어회화, 언어와 사회, 여성과 사회 , 현대인의 정신건강, 사회복지개론,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노인학	한학기 16주

평생교육과정(비학위과정)		
과정명	세부과정명	수업구분
전문 카운슬러 교육과정	[1학기]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P.E.T [2학기]상담이론과 실제, 인간관계론, 발달심리학 [3학기]심리검사법, 상담 및 면접기법, 현대인의 정신건강 [4학기]이상심리학, 상담연구법(수퍼비전), 집단상담이론과 실제	각 학기 16주
상담 및 심리과정	현실요법, MBTI를 통한 자기성장, P.E.T, 청년발달, 상담이론과 실제,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가족치료의 이 론과 실제, 상담 및 면접기법, 현대인의 정신건강, 심리학개론, 상담 이론과 실제,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상 담연구법, 교육심리학, 인지심리학, 실험심리학, 정서심리학, 학습심 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법, 언어심리학, 건강심리학, 아동발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행동치료방법론	하루종일 한학기 10주 한학기11주/ 12주/16주 (오전/오후/ 저녁)
	직업상담사 준비반	
외국어과정	이태리어(1~6단계), 이태리어회화(중급/고급), 속성반(초급/중급/ 고급), 유학속성반	한학기10주
	스페인어, 라틴어	
교양	전문가 과정	답사여행 전문가 양성과정, 전례꽃꽂이 과정, 논술지도 사 교육과정, HRD 전문가과정, 제3의학 생활건강 전문 지도자과정
	일반교양	진가태극권, 소설로 자서전 쓰기, 문학개론, 영화와 영화 읽기, 영화예술의 이해, 역사학에의 초대, 박물관과 문화 유산, 미술사입문, 음악감상법, 동양의 고전, 실용한문, 스페인어, 생활법률, 사회복지개론,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회, 여성과 성 , 현대인의 정신건강, 노인학, 아동발달

2001년에는 역삼동 성당에서 분교인 **서강대학교 강남가톨릭문화원**(www.sogang.ac.kr/~iile/catholic)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성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원만큼 다양한 상담교육과정은 아니지만, PET과정, MBTI를 통한 자기성장, ‘자기성장훈련’(Q.M.T.)과 같은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학사학위과정(학점은행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학 관련과정이 중점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서강대 평생교육원은 상담심리 및 사회복지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봉사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과명	세부과목명		수업기간
영성교육 과정	금요영성강좌 (금요일오전 9:30-12:00)	유시찬신부: 완전한 존재로서의 나와 하느님 김영택신부: 성체와 음식 채준호신부: 기도와 심리상담 성기명신부: 사랑과 죄 최시영신부: “보물이 묻힌 밭: 감정” 변희선신부: 성서의 가치관 김병로신부: 오리게네스의 아가시 주해중에서 김산춘신부: 초기 교회와 문화 정규한신부: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송봉모신부: 제자직분과 그 영성(2)	10주
	정규한 신부의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I, II 단계)	I-A/B 단계: “기도실습”을 하는 시간, 기도의 의미와 기도하는 방법을 신부님과 함께 익힘. II-A/B/C 단계: I단계를 이수한 후, “일상생활 에서의 기도”를 습득하고 심화시켜 체득함.	각반 7주
	영어 성서(Meeting God in Our Everyday Lift)	짚막한 영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한 후, 거기에 대해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영어로 이야 기하거나 그 상황에 맞는 표현을 알아봄.	10주
심리교육 과정	M B T I를 통한 자기성장, 상담심리이론과 실제, 아동발달심리, 이상 심리학, 자기성장훈련(Q.M.T.), 효과적인 부모역할(P.E.T.), 가족치 료의 이론과 실제, P.E.T 발전과정		8주/10주/ 12주
외국어교육 과정	영어회화초급, 중급(인터뷰 개강 첫날), 일어회화초급		10주
건강관리 과정	스포츠댄스초급, 섭생건강학		12주
교양과정	컴퓨터기초, 수채화과정,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성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교육연극지도자 초급과정		12주

구분	교과명	세부과목명
학점은행제 (총37개 과목)	사회복지 관련과정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 사 회복지현장실습,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발달 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 석론, 사회문제론, 산업복지론, 사회보장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 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의료사업사업론, 자 원봉사론, 가족복지론, 교정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프로그램개 발과 평가
	교양과정	인간학,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법학개 론, 경제학개론, 정치학의 이해
일반과정	전문가과정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자격증 과정

■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www.daegu.ac.kr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사랑·빛·자유’를 실현하고자 대학의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통하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질향상과 잠재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복지사회의 구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대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30여 년 전에 시작하여 평생교육을 일찍이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경북지역에서 여성교육을 펼쳐왔고, 미술교육도 개설하여 평생교육의 지평을 넓혔다. 산업교육 분야의 프로그램은 지식정보사회 또는 자격증시대로 급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지방화시대와 시민사회가 주도할 내일을 위한 시민교육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직업교육은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서비스라고 자부하고 있다.

● 평생교육부

1975년에 한국사회사업대학 부설 노인복지대학을 설치하여 1978년에 노인복지대학원을 설치하고 1980년에 장수대학원을 설치하면서 계속 발전하다가 1984년 드디어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타 평생교육원과 달리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지역사회의 노인교육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부를 설립하고 노인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터득케 하여 노후생활에 보람을 갖게 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사회지도자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일반, 고급, 전문과정까지 마련되어 있고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과정명		세부과목	기간
사회지도자일반과정		[공동강의]건강, 교양, 문학, 사회복지, 역사, 정보통신, 예술, 경제, 자치행정 / 동양철학, 환경, 법률, 교육 [선택강의]음악, 한문, 사군자, 컴퓨터 / 고전무용, 현대무용, 스포츠댄스, 농악, 오구	1년32주
사회지도자고급과정			1년32주
사회지도자 전문과정	2반		1년32주
	1반		평생(1년32주)

● 여성교육부

1982년에 경상북도 각 시·군에 여성의 재교육을 위한 여성교육부를 설치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보다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구·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여하는 지역별로 반을 나누어 운영하며 모두에게 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여 지역 - 성주, 울진, 영천, 경산, 칠곡, 김천, 군위, 의성, 문경, 영덕, 고령, 청도, 달성, 경주, 예천, 청송) 교육내용은 여성의 실생활관련 강좌가 주를 이룬다.

구분	세부교과명
공통과목	국민교양 (윤리), 역사, 가정경제, 국제정세, 현장학습
일반과목	문학이해, 음악이해, 미술이해, 생활법률, 자녀교육, 인간관계, 생활예절, 가정원예, 의생활, 부부생활, 식생활, 주생활, 사회복지, 시청각교육, 발달심리학, 생활의 지혜, 환경특강, 스포츠댄스, 레크레이션지도법, 에티켓과 매너, 꽃꽂이, 자원봉사, 메이크업(생활미용 피부관리), 칭찬의 화술, 부모교육, 풍수지리, 행복한 가정관리, 자녀성교육, 건강강좌, 토탈뷰티, 부동산학개론, 중개업법, 등기법, 세법, 민법, 공법, 정보화사회와 여성, 고부갈등의 해소, 정신건강, 여성과 민간요법, 차문화, 발건강, 소비자 보호, 노블레스오블리제, 인간승리, 디지털 시대 (구미사회복지대학은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과정 강의)

● 산업교육부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실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교육부는 IMF사태에 따른 실직자가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되는 새로운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체와 연계된 위탁교육, 전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주로 컴퓨터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을 제외한 20세이상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부인터넷교육, 지자체 등에서의 기초교육 등 1개월 정도의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사람과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과정명	세부과정명
자격증과정	정보처리대비반, 컴퓨터활용능력반, 워드프로세서, PCT, 인터넷정보검색사, PC정비사대비반, SCJP
종합과정	오피스종합반, 인터넷종합반, 드림위버+플래시
그래픽과정	웹디자인, 포토샵+일러스트, 드림위버+플래시
단과과정	한글97+워드실기+엑셀+컴활실기, 엑셀+컴활실기, 한국97+워드실기반, 정보처리실기반, Visual Basic, Java 기초+Java Programming

고령자컴퓨터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만 55세이상 퇴직자와 고령자, 저학력자를 위한 것으로 컴퓨터기초에서 활용까지 단계별로 기본이론과 실습을 통해 문서작성 및 실생활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방법과 인터넷 검색능력을 배양시켜 스스로 정보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보험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지원과정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부동산경매컨설턴트과정, REIT's 자산운용전문가, 공인중개사자격시험과정, 국외여행인솔자자격시험과정, 교원특수분야연수과정이 있다.

● 시민교육부

지역민의 민주시민의식 배양을 통하여 지역사회 민주화에 기여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공익적 활동 지원하며 한국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흐름

을 심층적으로 인식,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실있는 준비,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지속적 만남을 통한 사회개혁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여기에는 시민교육과정, NGO활동가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 연수과정, 언론학교과정, 민방위 위탁교육, 지방자치예산학교과정, 생태기행과정이 있다.

● 미술교육부

현대생활의 문화수준이 높고, 다양해짐에 따라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어 사회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미술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일반사회인의 미술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설하였다.

일반인들에게 대구대학교의 수준 높은 미술교육의 이론과 실기를 전수함으로써 자아실현은 물론 예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일조를 함과 동시에 학점은행제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과정명	세부과정명
학점은행제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도예학전공, 아동미술학전공, 화예학전공, 심리학전공, 피부미용학전공, 교양
미술실기 (취미)과정	도자공예, 동양화, 수채화, 유화, 사군자, 서예, 소묘, 플라워 디자인, 홈인테리어, 사진, 염색공예, 한지공예, 아동미술실기, 테이블셋팅 디자인, 주거 인테리어, 메이크업 디자인, 유리피안 디자인, 헤어디자인, 피부,발마사지
민간자격증과정	아동미술실기지도사 자격증

● 생활체육교육부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

레저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기능과 지식 함양, 그리고 경기방법, 지도법 등을 숙지하여 유능한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골프 아카데미 과정, 일반학생 골프교실, 특히 장애학생 골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기술교육부

대구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인들이 직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하여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하게 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영자활하는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장애인이 정보접근 장애로 인하여 소외되지 않고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컴퓨터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 습득을 통한 정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비장애인과 더불어 정보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훈련과 함께 취업지도를 그 목표로 한다.

다. 의식교육형

진보적 교육이념을 지닌 대학이 시민, 노동자, 교사, 청소년들의 사회이해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봉사적 접근유형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특히 의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봉사교육형과 마찬가지로 비영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 사회교육센터> <http://green.skhu.ac.kr/~sea>

성공회대학교는 1914년 강화에서 성 미카엘 신학원으로 개교하여 1956년 현재의 향동 캠퍼스를 마련하고 이전하였다. 1989년 성공회신학교로, 1992년 성공회신학대학으로 개편하고, 1994년 성공회대학교로 교명을 승격 변경하

였다.

“열림·나눔·섬김을 생활화하는 ‘기독교적 인간’ 육성, 열린 마음을 지닌 ‘주체적인 인간’ 육성,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적인 인간’ 육성, 섬김을 앞세우는 ‘봉사하는 인간’ 육성”이라고 하는 교육목표에서 드러나듯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설교육기관으로 컴퓨터교육원과 사회교육원이 있다. 그 외에 민주주의자료관, 청소년문화공간-“깨다”, 아시아 NGO-정보 센터, 사이버NGO-자료관, 음악원, 컴퓨터교육원, 늘푸른 복지관, 민주사회정책연구원과 같은 부속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다.

개설프로그램

본교의 설립이념을 반영하듯 상당히 진보적인 시민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주목 할만 하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노동대학, 교사 아카데미, 교육사랑방, 교원연수, 고전 읽기, 문화감성교육, 청소년문화공간-“깨다”가 운영되고 있다.

● 노동대학

2002년 2학기 현재, 성공회대학 사회교육원과 매일노동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노동대학 제6기 과정이 열리고 있다. 주제는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다. 첫날 입학식 및 조별 나눔의 시간을 시작으로 특강, 쟁점 토론, 수료식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심포지엄이 마련되어 있고, 체육대회와 같은 화합의 시간들이 있으며, 가족, 친지, 동료와 함께 수료식을 끝으로 그 일정을 마치게 된다. 강의와 함께 조별토론이 병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강]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몇 가지 제안 - 프랑스 노동운동과 한국의 노동운동

[쟁점 토론 1]

2002 대선과 노동자의 대응,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지역운동과 노동운동, 평화운동과 노동운동

[연수]

인간관계, 조직관계 향상 프로그램

[쟁점토론 2]

주5일제 노동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략, 그 변화에 대하여, 비정규직 양산의 제도적 현실과 대응방안, 정규, 비정규 - 노동자 내부 분단극복과 연대를 위하여

[계급이론과 노동자계급]

계급이론과 노동자계급-고전과 현대, 계급과 사회이동 - 교육과 계급,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

● 교사아카데미

2002년 교사아카데미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과 광명시평생학습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교육은, 그 패러다임 차원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에 주목하여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약 한달동안 6회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한국의 교육문화에 대한 성찰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
한국교육의 국가주의와 근대성
자본의 패러다임을 넘어 삶의 패러다임으로
삶을 통한 교육, 삶을 위한 교육
학교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영성교육

● 교육사랑방

2002년도 하반기에는 ‘덴마크교육에서 배우자’라는 대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세미나실 혹은 시청각교육실,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사랑방이 운영된다. 덴마크의 자유교육운동과 그 운동의 중심에 섰던 그룬트비와 콜의 교육사상과 덴마크의 자유학교와 교사의 철학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자 한다.

● 교사연수

교원연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행되며, ‘청소년 문화교육과 감성교육’,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와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된다.

● 고전읽기반

교사, 시민, 노동자 등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2년 하반기 제 6기 고전 읽기반에서는, 정수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슬람문명’과 『이븐 바투타 여행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필독도서로는 <이븐바투타 여행기> <이슬람문명>, 참고도서로는 <고대문명교류사> <실크로드학>이 있다.

● 문화감성교육 - “춤과 마음의 마당”

음악에 맞춰 자신의 몸이 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춤을 추는 것, 그 속에서 참가자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모습(몸짓, 행동, 습관)을 되돌아보게 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패턴을 바꿔춤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만나보는 프로그램이다. 춤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나고 타인과 만나는 대화의 시간, 성찰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며, 새로운 즐거움,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01년 가을에 <춤과 마음의 마당> 제 1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 이후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게 되었다. 제1회에서 제2회까지는 자신과 타인의 몸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움직임 패턴을 찾고, 제3회에서 제5회까지는 자신의 움직임을 변화시켜보고, 자신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며, 제6-8회는 몸으로서의 자신과 타인을 만나고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주민은 물론, 주부, 부부, 직장인, 교사들에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새롭게 하는 문화감성교육들이 있다. 2001년에는 <노래와 시>의 마당(후원 ; ‘시 노래 모임’ 나팔꽃)을 개최하였다. 시와 노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 노래를 문학으로 음악으로 함께 만나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며, 학생과 선생님, 부모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청소년문화공간-“깨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 청소년문화공간 “깨다”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접근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문화생산과 나눔을 갖게 하고자 한다. 상업적, 관료적 문화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화를 즐기고 문화속에서 스스로를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앞으로 지역내에서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합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000년 9월 말 설립되어, 청소년 문화사업(동아리 연합모임, 정기모임, 청소년 문화학교 개최), 지역주민 연대사업(지역단체와 연대-구로시민연대,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제, 청소년 인터넷 사이트와 연대), 민주화 운동자료관을 활용하는 사업(영상물 상영, 자료관 견학, 특강, 청소년 소식지 발간-인권, 문화활동에 관한 내용), 방송국 설립(신문방송학과 작품, 청소년 작품, 간단한 영화평, 해외 추천작)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라. 여성교육형

여성교육이 주 이념인 여자대학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여성에게 필요한 교양교육과 여성의 삶과 관련있는 학점제과정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이 용이한 직종과 관련된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직업인교육형과 유사하지만 교육프로그램 선정시 ‘여성관련성’이 주요 기준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의 실생활관련

교양강좌나 직업교육이 주를 이루며, 여성의 의식화나 세력화와 관련있는 과정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아 상업적 접근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home.ewha.ac.kr/~sce>

여성들이 배움을 통하여 가정생활과 가정교육을 보다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지적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직업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는 1984년 3월 평생교육원을 개원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교육과정, 최고전문가 재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특수 전문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을 실시한다.
- 직업인의 직업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준비 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 기타 필요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봉사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직장여성 교양강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재외한국인 프로그램, 상담활동 프로그램, 기타 필요한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들의 종류가 다양하며, 최고전문가재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자격증과정 등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년씩 운영되며, 주간에 수업이 있다. 모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별 특수성에 맞춰 동종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고전문가과정의 경우는 각 영역의 유경험자 및 자격증 취득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설프로그램

(*는 신설강좌임)

구분	교정명	대상
전문 교육과정	카운슬러전문교육과정	일반인
	발달장애치료자전문교육과정	특수장애아의 부모, 교사 및 일반인
	아동미술전문교육과정	일반인
	레크리에이션지도자전문교육과정	일반인
	전통무용전문교육과정	한국무용1년 이상의 경험자, 무용·체육교사
	한국역사전문교육과정	일반인
	음악치료전문교육과정	일반인
	*몬테소리지도자전문교육과정	일반인
자격증과정	노인교육지도자전문교육과정	노인교육시설의 지도자 및 일반인
	독서교육지도자전문교육과정	
	평생교육사양성과정(2,3급)	
	*선물포장전문가교육과정	일반인
최고전문가 재교육과정	꽃예술최고지도자전문교육과정	꽃꽂이사범자격 취득 이상 일반인
	미용아트최고지도자전문교육과정	미용자격증 취득한 유경력자
	여성비즈니스리더양성과정	
	뷰티전문CEO과정	
특수전문 교육과정	논술교육지도자전문교육과정(초,중등)	논술교육을 담당 교사 및 일반인
	논술교육지도자중급전문교육과정:논술철학	논술교육 이수자/동일자격 일반인
	논술교육지도자 수련과정	논술 중급과정 이수자
	경락마사지지도자전문교육과정	일반인
	테이블세팅전문교육과정	일반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아카데미	일반인
	파워스피치전문교육과정	일반인
	호스피스가족상담전문교육과정	일반인
	경영자를 위한 역사전문교육과정	
	독서상담치료세미나과정	
	*노인교육담당자양성과정	

과정명	세부과목명		대상
교양 교육 과정	독립교양 과정	초보자를 위한 컴퓨터 활용교육, 동양철학, 생활수필 쓰기, 생활한방, 성경연구반(누가복음), 이미지 컨설팅, 테마가 있는 음악여행, 한국사에 있어서 라이벌, PET 교육, PET 발전과정(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생활속의 과학, 성장기 자녀의 이해와 부모역할, 유럽문화의 이해, 철학의 이해(문학과 철학의 만남), 한국의 전통예절, 현대인과 성인병, 사회심리학, 인간관계론, 인지심리학, 임상심리학, 청년발달, 학습심리학, 꽃예술론, 색채학, 색채학실습, 원예치료, 화훼장식	일반인
	공동교양 과정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발달심리학, 심리학개론, 현대인의 정신건강,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성격심리학, 상담이론, 상담면접기법, 집단상담이론, 심리검사 및 측정, 이상심리학, 집단상담실습, 상담연구법(상담사례연구), 노년학, 노인교육의 이해, 노인건강과 케어, 노인생활건강, 노인과 법률, 아동 특수교육의 실제, 아동의 미술치료, 아동의 행동수정, 아동의 놀이치료	일반인
생활외국어교육	실용영어회화		일반인
특별활동교육과정	합창(E.C.코러스), 수지침(초/중급), 한국무용, 생활체조, 워터워킹(Water-Walking), 스포츠댄스, 국선도, 음양요행요가		일반인
직업준비교육과정	*영재교사양성과정, *쇼호스트양성과정, *개인이미지관리사양성과정		일반인
사이버교육과정	알코올-약물남용상담교육과정	알코올 및 약물남용 상담실무자, 약물남용상담기관의 근무자 및 일반인	
위탁교육과정	이화-삼성 아카데미	(주)삼성생명 프로급 생활설계사	
	이화-꽃예술 아카데미	한국꽃예술학회에서 선발 위탁한 사람	
	이화-고창 아카데미	고창지역 여성지도자 중 고창교육발전연구소에서 위탁한 사람	
국제교육과정	이화-연변 간호학 아카데미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간호사	
학점은행제 인정과목	가족치료의 이론과 실제, 생활속의 과학, 유럽문화의 이해, 현대인과 성인병,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인간관계론, 청년발달, 색채학, 화훼장식, 노인생활건강, 성장기자녀의 이해와 부모역할, 철학의 이해, 현대인의 정신건강, 상담연구법, 심리학개론,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색채학실습, 노인학, 실용영어회화, 한국의 전통예절, 발달심리학, 상담이론, 이상심리학, 임상심리학, 꽃예술론, 원예치료		고졸 이상

그러나 여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들을 볼 때, 이들의 교육이 고려하고 있는 여성의 직업은 전통적인 여성 직업인 미용, 상담치료, 간호,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요구가 많고 사회진출이 용이한 분야로의 특성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나, 여성교육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비전통적 여성직종에 진출을 지원하는 교육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들의 가정생활이나 관심사와 관련있는 교양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외로 여성의식이나 사회의식관련 강좌들은 별로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실생활 위주, 실용적인 교양 및 직업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성의 의식화, 세력화 차원의 접근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www.sookmyung.ac.kr

숙명여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교육의 확장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1984년 4월에 박물관 특설교육원을 개원하였고, 1987년 3월에 평생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4년 3월부터는 서울시의 위탁교육인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개설되었다. 1994년 9월에는 경영대학원의 위탁교육인 미용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이 개설되었고, 교육대학원의 위탁교육인 몬테소리교사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1998년 3월에는 학점은행제 시범운영 학습과정을 개설하였고, 2001년도에는 취업과 자격취득을 위한 대학평생교육협회 민간자격과정을 개설하고, SMU-IT교육원을 열어 IT전문가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0월 4일에 요리 학교 꼬르동 블루와 투자 협정을 통해 ‘르 꼬르동 블루-숙명아카데미’를 2002년 9월에 개교하였다. 르꼬르동블루 본과정 수료자는 프랑스 파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전세계 르꼬르동블루 아카데미로 편입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사학위교육과정(학점은행제)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피부미용학 전공을 마련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미술 및 특수아미술실기, 방과후아동지도사와 관련한 자격증교육과정이 있으며, 정보비서, 국제비서와

같은 전문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다. 자격증준비과정을 수료하면 사단법인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학점은행제를 제외한 모든 과정 수료자에게 총장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와 같이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여성관련 직종인 비서, 보육교사, 미용, 피부관리, 요리와 관련한 실용적 직업전문과정에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의식화나 세력화를 위한 강좌는 거의 없다.

개설프로그램

(*는 신설강좌임)

과정명	세부교과명	교육구분	교육기간
문화·예술 교육과정	동양사, 한국사, 도예, 선교무용, 성가워크숍과 건강	주간	1년(30주)
전문 교육과정	정보비서과정, 국제비서과정, *국제전문비서CPS자격대비 전문과정	야간	15주/12주
	미술치료초급, 아동미술치료초급, *아동미술치료심화과정, 유아전산교사교육, *컬러리스트전문과정,	주간	15주
	단기특별 정보비서과정, 단기특별 국제비서과정	계절학기	8주/10주
자격증준비 교육과정	아동미술실기지도사자격증준비과정, 방과후아동지도사자격증준비과정, *특수아미술실기지도사자격과정,	주간/야간	17주
경영대학원 위탁과정	피부미용최고경영자과정, 헤어스케치전공, 프로커트 I 전공(클래식 코스), 프로커트 II(어드밴스 코스), 퍼머넌트전공, Consumer, Hair by Night전공, 헤어컬러링전공, 메이크업전공, 업스타일전공	주간/야간	1년(32주)
교육대학원 위탁	[몬테소리교사교육과정] 몬테소리교사교육과정, 단기몬테소리교육과정	주간/야간	20주/8주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교사양성과정, 단기특별과정(아동미술/종이접기/풍선아트)	주간	
르꼬르 동블루	요리초급, 제과초급, 제빵		

학점은행제		
피부미용학 전공	1학년신입생 (1학기-7과목)	[전필]모발과학, · 공중위생학 [전선]미용색채학, 커트실습I, 미용문화사 [교양]경영학 개론, 식생활과 건강
	과목별수강	[전필]모발 및 두피관리, 피부관리 실습 I, 기초메이크업실습, 피부학, 공중위생학, 화장품학, 모발과학 [전선/일선]장작파마실습, 피부관리 실습Ⅲ, 미용사회심리학, 경락, 무대분장실습, 기초업스타일
교양	대인관계의 심리학, 경영학개론, 현대사회의 화법, 동양문화사	
학습평가 인정과목 (기타)	전공 과목	[전필]피부관리실습I [전선/일선]미용경영, TV와 영화분장, 스포츠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커트실습Ⅱ, 커트실습Ⅲ, 헤어 스타일링, 미용문화사, 화장품제조학, 응용업스타일, 응용헤어컬러링, 포트폴리오, 특수분장, 보디 페인팅, 기초드라이실습, 응용드라이실습, 응용메이크업실습 I, 응용파마실습, 국제미용비교학
	교양 과목	심리학개론, 정보사회와 미디어, 레크레이션, 언어와 사회, *동양사상의 전개, 문학개론, 영화와 영화읽기, 현대사회와 화법, 대중매체의 이해, 생활과 광고, 생활법률, 유아교육개론

■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 www.dongduk.ac.kr

동덕여자대학교는 사회교육원의 명칭을 여성사회교육원이라고 함으로써, 여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사회교육원에서도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사회교육원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걸맞는 교육을 하고자하는 목표를 뚜렷이 하고 있다.

개설프로그램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은 특히 디자인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본교가 특화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디자인대학의 지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이를 여성사회교육원에서 타 교육원과 차별화하여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성사회교육원에서는 다른 분야의 경우 고졸이상으로 입학할 조건을 밝히고 있는 것에 반해, 동일전공 2학년 이상의 수료자나 동일분야산업체 1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입학이 될 정도로 디자인

전공 분야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인정과정(학점은행제)에서도 시각디자인 전공과 의상디자인 전공만을 특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각디자인 전공의 경우, 산업예술전문학사학위가 주어지며, 의상디자인 전공의 경우 미술학사학위가 수여된다. 이외에도 메이크업디자인과 스킨케어 및 발관리 전문가 과정이 있으며, 보육교사양성과정, 아동관련 지도자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동덕여대에서는 여성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관련에 뚜렷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외 여성과 관련하여 미용, 보육교사, 아동교육에 관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역시 여성의식관련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과정명	세부교과명	기간	특기사항	대상
디자인 전공과정	컴퓨터디자인, 패션디자인	2년	제품디자인, 의류기사 2급응시자격 부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고졸이상
	컴퓨터디자인특별 패션디자인 특별	1년	산업체소용실무교육	동일전공2학년 이상 수료, 동일분야산업체 1년이상 경력자
전문가 과정	메이크업디자인	1년	잡지, CF, 패션모델, 나레이터, 기업 채홍보, 이벤트분야에 활동	고졸이상
	Skin Care, 발관리 전문가과정	1년	협회자격증 응시, 발관리국제자격증 응시	
보육교사	보육교사양성과정	1년	보육교사 2급 자격 인증	
지도자 과정	특수유아(장애인) 지도	1년	장애인복지관, 재활원, 복지관, 사회복지관에서 지도교사로 활동	고졸이상
	방과후아동지도	16주	방과후지도교사자격응시, 방과후지도교사로 활동	
	아동미술지도	16주	아동미술지도교사자격응시, 어린이미술지도교사로 활동	
	어린이영어지도	16주	어린이영어지도교사자격증응시, 어린이영어지도교사로 활동	
	종이접기	16주	협회자격증응시(초/중/고급)	

학점은행제			
과정명	세부과목명	기간	대상
시각디자인 (산업예술 전문학사) -21과목, 63학점	인터넷활용 I, 인터넷활용Ⅱ, 기초디자인, 컴퓨터실습 I, 컴퓨터실습Ⅱ(포토샵), 컴퓨터실습Ⅲ(QUARK), 시각디자인실습 I, 조형표현 I, 공익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시각디자인, 디자인론, 색채학, 발상과 표현, 테크니컬일러스트레이션, 인쇄매체학, 로고타입, 광고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실습Ⅳ(페인터), 타이포그래피, 디자인리서치	16주	고졸 이상
의상디자인 (미술학사) -34과목, 102학점	의복구성 I, 의복구성Ⅱ, 드레이핑 I, 드레이핑Ⅱ, 패션일러스트레이션 I, 패션일러스트레이션Ⅱ, 의복디자인, 서양복식사, 한국복식사, 한구의상구성 I, 섬유조형실기 I, 섬유조형실기Ⅱ, 의상연구, 직물학, 테일러링, 패션드로잉 I, 의복구성실습 I, 의복구성실습Ⅱ, 의류상품학, 플랫폼턴, 의복과 색채, 비주얼머천다이징, 디자인연구, 포토폴리오, 장신구디자인, 남성복디자인, 염색, 패션디자인세미나, 직조 I, 무대의상, 미술의상, 디스플레이, 의류산업의 탐색, 한국의상구성Ⅱ	16주	고졸 이상

■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duksung.ac.kr/~adult>

개설프로그램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독학학위과정과 학사학위인정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학사학위인정과정(학점은행제)에는 식품조리학 전공과정(공중보건학, 식음료개론, 식재료구매론, 식품위생학)이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 과정이 있다. 특히, 아동교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영어지도사, NIE지도사, 아동미술실기지도사와 같은 전문자격증과정과 몬테소리전문가, 언어치료·교육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와 같은 아동교육 전문가과정이 있다 또한 건강관련전문가 과정과 생활예술전문가과정이 있다. 특히 입문, 지도사, 전문가 과정으로 플라워디자인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양교육과정으로 문예창작관련 강좌, 풍수지리, 역사 관련 강좌, 영어 강좌가 있다.

전문가과정		
구분	과정명 & 세부교과명	수업기간
전문 자격증 과정	[어린이영어지도사]Song/Chant/Fingerplay/Game/역할극/Storytelling/TPR/Movement교실운영방법 및 교재개발/수업설계/주제 중심의 통합교육/	1년30주
	[동화구연지도사]동화구연이론 및 창의적인 교구제작	1년30주
	[방과후아동지도사]방과후아동지도론/ 교과 및 숙제지도/ 아동발달 및 상담/ 인성지도/ 언어지도/아동미술지도/ 방과후지도프로그램계획/ 놀이지도/ 사고력증진활동/ NIE지도	1학기 15주
	[독서지도사]글쓰기, 서사문 · 독후감쓰기, 아동문학 이해, 독서토의	1년40주
	[NIE지도사]NIE 기본이론, 미술과 NIE, 광고를 활용한 NIE, 창의성과 NIE, 기초논술, 영상매체를 이용한 NIE, 수 · 과학 NIE, 시사만화 · 경제와 NIE, 주제학습, 특별활동프로그램	1년30주
	[아동미술실기지도사]아동미술지도 이론, 아동미술지도 실기	1년30주
	[특수아미술실기지도사]특수아 미술지도 이론, 특수아 미술지도 실기	1년30주
	[플라워디자인지도사]플라워디자인지도사 1, 2 (입문과정 수료자)	1년30주
아동교 육전문 가과정	[영아미술지도사]월령별로 가정이나 원에서 지도할수 있는 조형활동	1학기15주
	[교사를 위한 어린이 디자인]디자인의 어원/ 디자인의 요소/역사와 영역/기능/문화/필요성/그래픽디자인/산업디자인/연령과 학령에 따른 디자인 등	1년30주
	[몬테소리전문가]몬테소리교육의 이론과 실제	1년30주
	[특수아동지도사]특수교육개론,특수아동별 교육, 치료교육, 각과지도	1학기15주
	[언어치료 · 교육지도사]언어발달장애 및 언어발달지체/문제나 장애의 선별 및 평가/치료 · 교육방법	1학기15주
건강관 리전문 가과정	[요가과정]직장인을 위한 요가(지도자 겸)-총장이수증서, 요가지도사(태교요가전문가)과정	1학기15주 /1년
	[제3의학과 생활건강지도사과정]카이로프랙틱(척추신경교정학-추나요법)전문가 : 카이로프랙틱의 역사적 배경 및 흐름, 해부생리학, 타글리코일교정법	1년30주
	[미용건강을 위한 경락마사지]미용경락의 개요/ 미용과 기(氣)/ 미용은양론/ 미용오행론/ 경락과 경혈개요	1학기15주
생활예 술전문 가과정	[리본자수전문가]40여가지의 스티치를 이용한 자수로 장식액자, 생활소품 및 인테리어소품, 유아용품, 주방용품등에 활용하는 기법을 습득	1학기15주
	[크리스탈페이퍼공예전문가(인형작가)]크리스탈페이퍼를 이용한 꽃제작기법, 싱글크래프트지와 더블크래프트지의 응용, 판매상품화 기법 /기본어레이지먼트 및 디스플레이, 각종오브제활용 /재료선택 및 포트폴리오 활용	1년30주
	[풍선아트전문가]행사시 풍선데코레이션 연출법 및 풍선을 이용한 교육방법지도	1학기15주
	[합창]합창(주간/야간)	1학기15주
	[캠코더촬영과 편집]비디오, TV의 기초지식/ 디지털 비디오 및 캠코더 사용법/ 촬영과 영상표현 기법/영상문법 및 편집 디지털 영상편집	1학기15주

플라워디자인과정			
과정명	세부교과명	대상	수업기간
플라워디자인입문	플라워디자인입문1·2	취미 및 사범자격 희망자	1년30주
플라워디자인지도사	플라워디자인지도사1·2	사범자격 이상자	1년30주
플라워전문가	플라워디자인전문가	3급 사범자격 이상자	1년30주
보육교사양성과정			
보육교사자격훈련	보육교사양성과정 세부과목 주5일수업, 4주간 교사실습	고졸이상	1년

독학학위과정					
과정명		세부교과명	특기사항	대상	기간
시험 면제 과정	1단계 (교양과정)	국어, 영어, 국사, 문학개론, 교육학개론	· 고교졸업이상 학력자가 단기간(1~2년)에 적은 비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기회 · 국가지정 독학학위 시험면제기관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시험 1·2·3단계가 면제됨 · 대학과 동일한 수업방식	고졸(검정고시포함)이상 학력소지자, 직장인, 주부, 독학자	18주
	2-3단계 (전공기초/심화)	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가정학 전공/경영학전공(각 전공별 12과목)			
4단계종합 시험대비반		[교양]국어, 영어, 국사(택 2과목)[전공]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가정학/경영학(야)(각 전공별 4과목)		3단계까지의 전과목을 합격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17주
학점은행(인정)과정					
세부교과명				대상	기간
[교양]교육학개론, 국사개설, 국어학개론, 대중예술론, 서양미술의 이해, 성의 철학, 세계신화의 탐구, 식생활과 건강, 영어, 영화예술의 이해, 유럽문화의 이해, 인간관계론, 중국문화의 이해, 직장생활과 예절, 체력관리와 건강, 현대인의 정신건강				고졸(검정고시포함)학력소지자, 대학중퇴자, 대학졸업자로서 다른 전공희망자	1학기 15주
[전공]식품조리학: 공중보건학, 식음료개론, 식재료구매론, 식품위생학					

교양교육과정		
과정명	세부교과명	수업기간
문학강좌	문예창작, 시창작, 수필창작, 현대수필특강	1학기15주
풍수지리	총론(總論) /용세론(龍勢論) /통맥법(通脈法) /정혈론(定穴論) /수경론(水經論)/사상(思想)과 혈관(穴坂)의 사대요소(四大要素) /사십사향 진결(四十四向眞訣:胎胎法)/구성론(九星論) /살론(殺論) /택일법(擇日法:移葬法) /양택(陽擇)	1학기15주
역사교실	현대 한국인의 역사인식과 문화, 인물로 본 한국 근 · 현대사, 20세기 중국현대사, 동서문화교류사	1학기15주
외국어(영어)	ABC영어, 영어1, 영어2, 영어3 : 기초부터 회화까지	1학기15주

4. 국내 대학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경향과 성인지적 접근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면,母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원의 특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교가 교육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 방향도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기본 방향하에서 상업성도 강화하고 있다. 본교가 비영리적이고 사회봉사적인 교육이념을 추구하느냐 영리적인 접근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학평생교육원의 전체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다. 다만 여자대학들의 경우 본교의 이념은 여성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추구하는 데 비해 평생교육원들은 여성의 가정생활과 일상적 관심사 위주의 교양강좌와 여성들의 취미를 살린 직업교육과정 중심의 협소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의식 성장에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국내 대학평생교육원들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교양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교양과정이 있더라도 실생활관련 강좌가 대부분이며 학문지향적 강좌는 학점은행제 과정에 개설된 외에는 별로 개설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의식교육강좌 역시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극히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 시민의식이나 사회의식 강좌는 물론 여성의식 강좌도 여자대학에서조차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시행으로 학위과정의 운영은 확대되는 추세이다.

넷째, 직업교육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한 취미강좌는 관련된 직업교육강좌로 발전되어 운영되고 있고, 직업관련 전문가나 지도자과정이 많이 개설되는 추세이다.

즉, 대학평생교육 도입 초기의 사회봉사적 가치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대학평생교육원의 직업교육기관화, 영리기관화 경향이 대체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교양, 학문, 의식교육 영역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성인교육에 대한 대학의

접근이 너무 직업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은 고등교육 학위 취득과 직업자격증 취득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교육에 대한 대학평생교육원의 접근도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여성의식관련 강좌는 공학대학이나 여자대학을 불문하고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공식 강좌가 아닌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 중 강사에 의해 여성의식이 제고될 수도 있으나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여성의 성장에 평생교육이 근본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대학의 경우도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강좌는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의식과 역할 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오히려 진보적인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여성의 성별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강좌를 찾아 볼 수 있으나, 전체 대학평생교육원 강좌에서 그 비중은 극히 낮다.

둘째, 교양강좌의 경우 가족관계, 가정관리, 인간관계 등 여성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관심을 끌만한 강좌 위주로 개설되어 있어 대체로 현실유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여자대학의 경우는 아직도 교양교육과정에서 주부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강좌(부모역할, 전통예절, 노인건강관리 등)가 많이 남아 있다. 여성의 사회적 관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개설은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여자대학의 경우 학점은행제 과정도 미용, 디자인, 조리 등 여성취향 과정들로 특화하여 접근하고 있다. 여자대학은 교양, 학점제, 직업강좌의 여성관련성이 큰 편이지만 현재의 여성의 삶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변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학평생교육원의 주 이용자가 여성이어서인지 여자대학뿐 아니라 공학대학도 여성취향적 직업교육과정의 비중이 큰 편이다. 여성취업이나 창업이 용이한 요리, 미용, 교육, 간호, 보육, 상담 관련 직업교육강좌가 많이 개

설되어 있으며, 취미와 연계된 직업강좌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강좌 개설은 당장은 여성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직업교육 영역의 제한성, 여성직종에의 집중 등으로 여성들이 남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직업과정, 전문가과정에 “직업분야 지도자과정”이 있으나, 여성의 세력화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정치·문화 분야의 “여성지도자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하다.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원의 접근은 영리추구의 압력앞에서 여성의식과 사회적 정치적 지도력 함양을 위한 교육, 현실변혁적 교육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식 및 역할 확립에 관한 교육이 매우 미약한 점, 여성직업교육이 전통적 여성 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점, 그 결과 직업교육 영역에서 일반 기술학원과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직업의 성별 분리 극복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나 사회적 지도력 발휘를 유도하는 교육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원은 직접적으로보다는 우회적으로 여성의식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고등교육이 일반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평생교육원은 고등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여성들의 지적 수준과 교양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신부교육, 주부교육의 전통을 아직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직업교육 역시 현재의 여성지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의식의 전환없이 여성들이 삶의 주도권을 갖기는 어렵다고 볼 때, 대학평생교

육원은 여성교육에 있어서는 현상유지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의 주요 관심은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경쟁 속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이 어떻게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학평생교육원과 여타 기관 또는 타 대학의 평생교육원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독학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이 새로운 대학평생교육제도를 수용하기에 급급한 상태로, 아직 대학평생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가와 같은 대학평생교육원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 역시 여자대학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119
2. 면담조사	157
3. 요약	182

III장에서 제시한 성 분석 항목과 지표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 관점에서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1. 설문조사

기관(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과 학습자(현재 대학평생교육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 및 회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설문조사 배포 및 회수 상황

<표 V-1> 기관 배포 상황

단위: 개교

구 분	남녀공학	여자대학	총계
4년제	169	8	177
2년제	103	7	110
총계	272	15	287

전국 287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조사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45%인 129부가 회수되었다. 남녀공학대학 122개교, 여자대학 7개교가 회수되었고, 학제별로는 2년제 대학 55개교, 4년제 대학 74개교가 회수되었다.

<표 V-2> 학습자 배포 상황

단위: 부

구 분	남녀공학	여자대학	총계
4년제	11개교×20부=220	8개교×20부=160	19개교×20부=380
2년제	11개교×20부=220	7개교×20부=140	18개교×20부=360
총계	22개교×20부=440	15개교×20=300	37개교×20부=740

비교분석을 위해, 여자대학은 15개 전 기관에 학습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남녀공학대학은 4년제와 2년제를 동 수로 하고 지역을 안배(도별로 4년제, 2년제 1개교씩 포함)하여 각각 11개교, 총 37개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가운데 37개교 중 40%인 22개교에서 298부가 회수되었다.

가. 기관 조사

질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기관의 일반적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과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 분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여성수강생의 참여비율’,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영역’과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평생교육원의 성인지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질문은 6개 부분-정책, 인력, 프로그램, 학습지원 환경, 성과 평가, 기관의 요구-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 분석을 위해 기타의 질문들을 보충하였다. ‘여성의 의식, 능력과 권한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적도록 하였고,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정책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결과는 남녀공학대학 소속과 여자대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별로 분석하였는데, 각각의 사례수 차이가 너무 커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결과를 기술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문항은 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2년제 대학 소속과 4년제 대학 소속의 평생교육원의 응답은 큰 차이가 없어 일부 질문외에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1) 일반적 상황

조사에 응한 기관의 설립연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V-3> 응답 기관의 설립 연도 분포

단위: 개교

연 도	기관 수
1920년대	1
1930년대	4
1940년대	3
1950년대	7
1960년대	7
1970년대	11
1980년대	10
1990년대	76(1990-1994: 20교, 1995-1999:56교)
2000 -	7
무응답	3
총	129

이 표를 보면 1990년대 특히 1995년 이후 대학평생교육원의 설립이 급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의 제도화가 대학평생교육원 설립분의 한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V-4> 응답자의 직책

단위: 명/ %

	빈도 (명)	비율 (%)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10	7.8
강사, 교육전문직원	13	10.1
일반행정직원	93	72.1
경영자, 원장	13	10.1
전체	129	100.0

응답자의 72.1%는 평생교육원의 일반행정직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장의 응답율도 10.1%에 달하였다. 평생교육원에 아직 평생교육사나 교육전문직이 채용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일반직원이 주 응답자인 배경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57명(44.2%), 남성이 72명(55.8%)이다.

<표 V-5>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여성수강생 비중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2/3 이상	4/ 57.1	61/ 50.0	65/ 50.4
1/2이상~2/3미만	2/ 28.6	35/ 28.7	37/ 28.7
1/3이상~1/2미만		18/ 14.8	18/ 14.0
1/3미만	1/ 14.3	8/ 6.5	9/ 6.9
전체	7/ 100.0	122/ 100.0	129/ 100.0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여성수강생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가 50.4%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수강생 비율이 1/2이상~2/3미만인 경우도 28.7%로 그 다음으로 많다. 둘을 합하면 응답기관의 79.1%가 여성수강생 비율이 1/2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여성이 주로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학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영역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영역’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취미교육이 27.1%, 직업교육이 27.1%, 교양교육이 24.8%로 나타났다. 시민교육이라는 기관도 약 10% 있으나 여성의식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는 곳은 없었다. 여성의식교육은 시민교육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연구의 관심상 분리해서 택하도록 한 것이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결과로 나왔다고 본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남녀공학 대학 소속 평생교육원의 경우는 취미교육, 직업교육, 교양교육을 고루 중시하고 있으나, 여자대학 소속 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은 직업교육이 42.8%로 압도적으로 높다. 4년제 대학 소속 평생교육원은 교양교육(32.4%)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교육(29.7%)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에 비해 2년제 대학 소속 평생교육원은 직업교육(41.8%)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여자대학과 2년제 대학 평생교육

원은 직업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6> 대학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영역(1순위)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시민교육(시민,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식 등)	1/ 14.3	12/ 9.8	13/ 10.1
여성의식(여성의식, 성평등)			
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2/ 28.6	30/ 24.6	32/ 24.8
취미(건강, 음악, 예술 관련)	1/ 14.3	34/ 27.9	35/ 27.1
직업(자격증 과정 등)	3/ 42.8	32/ 26.2	35/ 27.1
어학		10/ 8.2	10/ 7.8
기타		4/ 3.3	4/ 3.1
전체	7/ 100.0	122/ 100.0	129/ 100.0

	2년제	4년제	전체
시민교육(시민,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식 등)	4/ 7.3	9/ 12.2	13/ 10.1
여성의식(여성의식, 성평등)			
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8/ 14.5	24/ 32.4	32/ 24.8
취미(건강, 음악, 예술 관련)	13/ 23.6	22/ 29.7	35/ 27.1
직업(자격증 과정 등)	23/ 41.8	12/ 16.2	35/ 27.1
어학	4/ 7.3	6/ 8.1	10/ 7.8
기타	3/ 5.5	1/ 1.4	4/ 3.1
전체	55/ 100.0	74/ 100.0	129/ 100.0

■ 대학평생교육원의 향후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기관의 인식

더불어, ‘앞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영역’을 물어봄으로써 향후 대학이 지향해야 하는 평생교육원 운영 방향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소속대학 별, 성별 및 직책에 따라 비교·검토하였다.

<표 V-7> 향후 중점영역에 대한 대학별 인식(기관)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시민교육(시민,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식 등)	3/ 42.8	36/ 29.5	39/ 30.2
여성의식(여성의식, 성평등)	1/ 14.3	4/ 3.3	5/ 3.9
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13/ 10.6	13/ 10.1
취미(건강, 음악, 예술 관련)	1/ 14.3	19/ 15.6	20/ 15.5
직업(자격증 과정 등)	2/ 28.6	42/ 34.4	44/ 34.1
어학		4/ 3.3	4/ 3.1
기타		4/ 3.3	4/ 3.1
전체	7/ 100.0	122/ 100.0	129/ 100.0

	2년제	4년제	전체
시민교육(시민,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식 등)	14/ 25.5	25/ 33.8	39/ 30.2
여성의식(여성의식, 성평등)		5/ 6.7	5/ 3.9
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6/ 10.9	7/ 9.5	13/ 10.1
취미(건강, 음악, 예술 관련)	7/ 12.7	13/ 17.6	20/ 15.5
직업(자격증 과정 등)	24/ 43.6	20/ 27.0	44/ 34.1
어학	2/ 3.6	2/ 2.7	4/ 3.1
기타	2/ 3.6	2/ 2.7	4/ 3.1
전체	55/ 100.0	74/ 100.0	129/ 100.0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34.1%)이 가장 많았고, 시민교육(30.2%)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취미교육(15.5%), 교양교육(10.1%)이라고 답했다. 여성의식 교육이라고 답한 비율도 3.9% 있었다.

여자대학 소속 평생교육원의 경우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직업교육(28.6%), 여성의식과 취미교육이라고 답한 비율도 각각 14.3%로 나왔다. 이에 반해, 남녀공학 소속 평생교육원의 경우는 직업교육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민교육(29.5%)으로 나왔으며 여성의식 교육이라고 답한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2년제 대학은 향후에도 역시 직업교육을, 4년제 대학은 시민교육을 중점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시민교육으로 향후 대학평생교육원의 새로운 중점 교육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V-8> 향후 중점영역에 대한 직책별 인식(기관)

단위: 명/ %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강사, 교육 전문직원	일반 행정직원	경영자, 원장	전체
시민교육(시민,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식 등)	3/ 30.0	6/ 46.2	27/ 29.0	3/ 23.0	39/ 30.2
여성의식(여성의식, 성평등)	1/ 10.0		3/ 3.2	1/ 7.7	5/ 3.9
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9/ 9.7	4/ 30.8	13/ 10.1
취미(건강, 음악, 예술 관련)	1/ 10.0		18/ 19.4	1/ 7.7	20/ 15.5
직업(자격증 과정 등)	5/ 50.0	6/ 46.2	29/ 31.2	4/ 30.8	44/ 34.1
어학			4/ 4.3		4/ 3.1
기타		1/ 7.6	3/ 3.2		4/ 3.2
전체	10/ 100.0	13/ 100.0	93/ 100.0	13/ 100.0	129/ 100.0

응답자의 직책에 따른 결과를 보면, 모든 직책에서 직업교육(34.1%)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시민교육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 응답하였다. 시민교육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의식 교육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낮다. 경영자와 원장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양교육을 중요한 교육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업교육(33.3%)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고 시민교육(26.3%)이라고 답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도 직업교육(34.7%)과 시민교육(33.3%)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식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V-9> 향후 중점영역에 대한 성별 인식(기관)

단위: 명/ %

	여성	남성	전체
시민교육(시민,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식 등)	15/ 26.3	24/ 33.3	39/ 30.2
여성의식(여성의식, 성평등)	3/ 5.3	2/ 2.8	5/ 3.9
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6/ 10.5	7/ 9.7	13/ 10.1
취미(건강, 음악, 예술 관련)	8/ 14.0	12/ 16.7	20/ 15.5
직업(자격증 과정 등)	19/ 33.3	25/ 34.7	44/ 34.1
어학	3/ 5.3	1/ 1.4	4/ 3.1
기타	3/ 5.3	1/ 1.4	4/ 3.2
전체	57/ 100.0	72/ 100.0	129/ 100.0

이상과 같이, ‘대학평생교육원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영역’을 묻는 질문에 소속대학 및 응답자의 성별 및 직책과 관계없이 직업교육과 시민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현재보다 시민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고, 여대 관계자는 여성의식교육도 향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성 분석

■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 평가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을 평가하기 위해, 6개 항목에 총 30개의 질문에 대해 4단계로 나뉘어 답하게 하였다.: 매우 그렇다(4), 대체로 그렇다(3), 대체로 그렇지 않다(2), 거의 그렇지 않다(1). 각 질문의 답변에 대해 여자대학(7개교)과 남녀공학 대학(122개교)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으로 나뉘어 이 둘간의 평균값을 가지고 각각 분석하였다. 평균값의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M \geq 3$ 대체로 성인지적임(대체로 여성을 고려함)

$2.5 \leq M < 3$ 약간 성인지적이지 않음(여성을 약간 고려하지 않음)

$M < 2.5$ 대체로 성인지적이지 않음(대체로 여성을 고려하지 않음)

<표 V-10> 대학평생교육원 정책의 성인지성

가. 정책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평균
1.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있다.	1.86	1.92	1.92
2.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을 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있다.	1.71	1.70	1.70
3. 소속 대학이 여성의 교육과 발전을 중시하는 교육 방침을 갖고 있다.	3.57	2.44	2.50

‘여성을 위한 운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지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자 대학 소속과 남녀 공학 대학 소속 평생교육원 모두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여성평생교육 지원정책이나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대학이 여성의 교육과 발전을 중시하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자 대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은 상당히 그렇다는 반응이었던 것에 비해, 남녀공학 소속의 경우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었다. 여대가 여성평생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학평생교육원 정책의 성인지성이 대체로 낮아,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며 여성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은 더욱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V-11> 대학평생교육원 인력의 성인지성

나. 인력/인식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4. 기관장(원장)은 대학평생교육이 여성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3.14	2.96	2.97
5. 기관장(원장)은 주요 의사결정시 여성을 고려한다. 또는 여성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편이다.	3.29	2.85	2.88
6. 강사 및 직원들은 여성문제와 여성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3.00	2.87	2.88

‘대학평생교육원의 기관장(원장)이 여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가’와 ‘강사 및 직원들이 여성문제와 여성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는 편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여자대학은 대체로 그렇다로 공학은 약간 미흡하다는 응답이다.

<표 V-12> 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의 성인지성

다. 프로그램/교육활동	여자 대학	남녀공학	전체 평균
7. 우리 기관은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3.29	3.04	3.05
8.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들간(연령별, 소득별, 학력별, 지역별 등)의 요구 차이도 고려하려고 한다.	3.14	2.84	2.86
9. 교육내용 및 자료 구성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 자립성 고양을 주요 목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다.	3.00	2.61	2.64
10. 교육내용 및 자료 구성에 있어 여성의 삶과 경험을 고려한다.	2.86	2.60	2.61
11. 교육방법에 있어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29	3.16	3.17
12. 교육시간 편성시 여성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고려한다.	3.57	3.19	3.21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평가하는 질문에 여자대학은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이지만, 공학대학의 경우 교육내용 및 자료구성 등에 있어 여성 고려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자 대학의 경우, 교육시간 편성시 여성들의 참여가 쉽도록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해 교육내용 및 자료 구성에의 구체적인 반영도는 낮은 편이다.

<표 V-13> 대학평생교육원 학습지원환경의 성인지성

라. 학습지원 환경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13.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에 노력한다.	3.43	3.09	3.11
14.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휴게실, 편의시설 등).	2.71	2.57	2.57
15. 탁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1	1.34	1.36
16. 학습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43	2.78	2.81
17.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14	1.98	1.98

여성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에 대한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탁아서비스의 제공’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모두 지원 방안 마련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대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의 참여를 위한 홍보’와 ‘학습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상당한 정도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여대나 공학 모두에서 대체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대학평생교육원 성과평가 방법의 성인지성

마. 성과평가	여자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18. 시민의식이나 여성의식 프로그램의 등록 및 이수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0	2.57	2.54
19. 프로그램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2.29	2.25	2.25
20. 평가에 여성문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2.29	2.01	2.02

앞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문에 여자 대학 소속과 남녀공학 대학 소속의 대학평생교육원의

모두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이었지만, ‘프로그램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모두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평가 과정에 여성문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는가’하는 질문에도 두 경우 모두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민의식이나 여성의식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율은 여대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별로 낮지 않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교육의 성과평가시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표 V-15>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기관의 요구

바. 기관의 요구	여성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21. 우리 기관은 현재보다 여성에 대한 기여 및 배려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71	3.01	2.99
22. “여성에 대한 기여 증대를 위해” 직원연수(성평등교육, 여성이해교육 등)가 필요하다.	3.14	2.94	2.95
23. 여성의 요구, 경험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3.00	3.10	3.09
24. 여성을 고려한 시간 편성, 내용 및 방법 구성이 필요하다.	3.14	3.16	3.16
25. 탁아서비스가 필요하다.	3.86	2.91	2.96
26. 학습정보 및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3.43	3.01	3.03
27. 여성(의식)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3.43	3.32	3.33
28. 여성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이나 방침의 제시가 필요하다.	3.43	3.33	3.33
29. 대학의 장이나 기관장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3.00	3.19	3.18
30. 직원이나 강사들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	3.00	3.16	3.15

기관에서 앞으로 여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운영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모든 항목에 대해 대체로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자

대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의 경우 단연 ‘탁아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학습정보와 상담서비스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남녀공학대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의 경우는 탁아, 상담 및 정보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책보다 ‘여성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이나 방침의 제시’, ‘기관장이나 직원 강사의 관심’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비해 여대는 학교의 방침이나 기관장의 관심이 어느 정도 구비된 상태여서 인지 구체적인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기타 성 분석 질문

■ 대학평생교육원의 여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V-16>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에 중요한 요인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정부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강조 (대학평가지표에 반영, 정부의 권고, 지원 등)	3/ 42.9	67/ 58.3	70/ 57.4
소속 학교의 특성, 교육 방침 (여자 대학, 여성학과의 존재)	4/ 57.1	28/ 24.3	32/ 26.2
기관장(원장)의 관심, 의식		13/ 11.3	13/ 10.7
직원, 강사들의 관심, 의식		4/ 3.5	4/ 3.3
여성 스스로의 관심		1/ 0.9	1/ 0.8
사회 인식		2/ 1.7	2/ 1.6
전체	7/ 100.0	115/ 100.0	122/ 100.0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해 ‘정부 정책에서 여성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다.

다음은 소속 학교의 특성 및 교육방침, 기관장의 관심 및 의식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정부 정책이 마련된다면 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겠지만 만약 정부 정책이 미비할 경우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 기관장(원장)의 성별 분포

<표 V-17> 소속대학별 기관장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여성	3/ 42.9	6/ 4.9	9/ 7.0
남성	4/ 57.1	116/ 95.1	120/ 93.0
전체	7/ 100.0	122/ 100.0	129/ 100.0

기관장의 성별을 알아 본 결과, 여자 대학 소속의 경우는 남성(57.1%)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공학 소속의 경우는 여성 기관장이 거의 없고 대부분 남성(95.1%)이 기관장임을 알 수 있다. 수강생들의 대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절대적으로 남성이 담당하고 있었다.

■ 기관장의 性과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과의 관련성

<표 V-18> 기관장의 性과 여성교육 관심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그렇다	3/ 42.9	50/ 41.0	53/ 41.1
그렇지 않다	2/ 28.6	50/ 41.0	52/ 40.3
잘 모르겠다	2/ 28.5	22/ 18.0	24/ 18.6
전체	7/ 100.0	122/ 100.0	129/ 100.0

기관장의 성별이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서 대해, 여자대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은 ‘그렇다’에 42.9%가, ‘그렇지 않다’에 28.6%가 답했다. 그러나 남녀공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은 41.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서 기관장의 성별이 관련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그렇다’(41.0%)고 답한 비율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자대학 관계자가 기관장의 성별과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상관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 여성 학습자들의 중도 교육탈락의 원인

여성학습자들이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는 원인에 대해 기관관계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표 V-19>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대학별 인식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교육 내용의 부적절성, 흥미유발 실패	1/ 14.3	17/ 14.0	18/ 14.1
교육 참여 시간의 불편	1/ 14.3	9/ 7.4	10/ 7.8
가사 부담(육아 포함)	2/ 28.6	45/ 37.2	47/ 36.7
가족의 이해 부족			
학습비 부담		3/ 2.5	3/ 2.3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	3/ 42.8	44/ 36.4	47/ 36.7
기타		3/ 2.5	3/ 2.3
전체	7/ 100.0	121/ 100.0	128/ 100.0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여성학습자들이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원인으로 ‘가사부담’(36.7%)과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36.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학습비 부담’(2.3%)이나 교육내용이나 시간의 문제에 답한 비율은 낮아서 기관 관계자들이 학습자의 중도 포기 원인을 학습자 개인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0>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직책별 인식

단위: 명/ %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강사, 교육 전문직원	일반 행정직원	경영자, 원장	전체
교육 내용의 부적절성, 흥미유발 실패	2/ 20.0	1/ 7.7	13/ 14.1	2/ 15.4	18/ 14.1
교육 참여 시간의 불편	1/ 10.0	1/ 7.7	7/ 7.6	1/ 7.7	10/ 7.8
가사 부담(육아 포함)	5/ 50.0	4/ 30.8	35/ 38.0	3/ 23.1	47/ 36.7
가족의 이해 부족					
학습비 부담			1/ 1.1	2/ 15.4	3/ 2.3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	2/ 20.0	7/ 53.8	33/ 35.9	5/ 38.4	47/ 36.7
기타			3/ 3.3		3/ 2.3
전체	10/ 100.0	13/ 100.0	92/ 100.0	13/ 100.0	128/ 100.0

직책별로 보면, 특히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 일반행정직원은 가사 부담을 여성학습자가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강사와 교육전문직원은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에 절반 이상인 53.8%가 응답하였다. 경영자와 원장의 경우도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38.4%)을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4%로 나타나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 강사와 교육전문직원들이 이에 무응답이었던 것과 차이가 난다.

<표 V-21>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성별 인식

단위: 명/ %

	여성	남성	전체
교육 내용의 부적절성, 흥미유발 실패	9/ 16.0	9/ 12.5	18/ 14.1
교육 참여 시간의 불편	5/ 8.9	5/ 6.9	10/ 7.8
가사 부담(육아 포함)	24/ 42.9	23/ 31.9	47/ 36.7
가족의 이해 부족			
학습비 부담	1/ 1.8	2/ 2.8	3/ 2.3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	16/ 28.6	31/ 43.1	47/ 36.7
기타	1/ 1.8	2/ 2.8	3/ 2.3
전체	56/ 100.0	72/ 100	128/ 100.0

기관의 여성응답자의 경우 ‘가사부담’이 4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이 28.6%인데 반해, 남성응답자의 경우는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이 43.1%이고 ‘가사부담’이 31.9%로 그 순서가 반대인 결과가 나왔다. 여성은 환경적 요인을, 남성은 심리적 요인을 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가사 부담’과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을 여성학습자의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학습비 부담’(2.3%)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으며 ‘교육참여 시간의 불편’에 답한 이도 7.8% 밖에 되지 않는다. 즉, 기관관계자들은 여성의 중도 탈락이 기관의 문제보다는 학습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습자조사 결과는 이와 크게 상반된다. 학습자들은 교육내용의 부적절성 및 흥미유발 실패에 26.2%, 교육시간 불편에 25.2%, 가사부담에 10.3%, 학습비 부담에 5.6%, 의지부족에 28.0%가 응답하여 기관의 프로그램 및 시간 운영이 포기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중도 포기의 원인으로 개인의 의지문제도 크지만, 기관 측에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기관관계자들이 학습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여성의 의식, 능력과 권한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표 V-22> 여성의 의식, 능력과 권한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
단위: 명/ %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있다	4/ 57.1	51/ 42.9	55/ 43.7
없다	3/ 42.9	68/ 57.1	71/ 56.3
전체	7/ 100.0	119/ 100.0	126/ 100.0

여성의 의식과 능력과 권한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응답 기관의 56.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예시>

위의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사람에게 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교양과 취미프로그램 외의 여성의식과 여성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사례를 쓰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여성의식과 관련있는 프로그램	
지도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지도자 과정 · 시·군 여성대학 · 여성 자치대학 · 여성대학 최고여성 경영행정 과정
여성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성 · 여성과 사회의식 · 민주사회와 여성참여 · 주부대학 · 여성 아카데미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최고 지도자 과정 · 여성비즈니스 리더 양성 과정 · 특수 유아 지도자 과정 · 꽃예술 최고지도자 과정 · 한지 공예 지도사 · 미용사 최고 경영자 과정 · 미용 아트 최고 지도자 과정 · 치유 상담 전문 지도자 ·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과정 · 댄스 스포츠 지도사 · 발 건강 관리 지도사 · 방과후 아동지도사 · 독서논술 지도사 · 보육교사 양성과정 · 아동미술 실기 지도자 과정 · 동화 구연 지도사 · 아동지도사 과정 · NIE 지도사 · 몬테소리 교육지도자 · 차세대 여대생 지도자 과정 · 독서 지도사 · 재즈 댄스 지도사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염색 공예 · 생활 속의 도자기 예술 · 전통 오색 한지 공예 · 플라워 디자인/꽃꽂이 · 꼬바늘 뜨기 · 이미지 컨설팅트 양성과정 · 폐백음식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탈 메이크업 및 미용 관련 (경락 마사지, 발관리, 피부미용, 아로마테라피 등) ·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 · 제과, 제빵 자격증 과정 · 전통 요리 전문 과정 · 간병인 교육 · 스포츠 마사지 과정 · 공인 중개사 · 약국정보 관리사 · 스포츠 마사지 과정 · 케어 복지사 · 비만 관리사 · 관광 가이드 전문 과정 · 치료레크레이션 자격증 과정 · 미술,음악치료과정 · 순은 점토 고예
IT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 교육 · 컴퓨터 활용, 정보 검색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식과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한 내용들을 보고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취업, 창업 및 자격증 획득을 위한 프로그램, IT관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보았다.

대체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 미용관련 직종, 요리 관련 직종, 꽃꽂이 및 공예관련 직종, 간병인과 같은 직종들이 여성의 직업프로그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특성을 살린 직업프로그램들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여성을 위한 직업 영역을 아동, 미용, 요리, 공예와 같이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등과 유사한 직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차별성을 갖추지 못하고 대학의 전문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나 정책적 조치

마지막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나 정책적 조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부탁하였다. 나온 답변을 연구자가 임의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체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비 지원과 탁아시설 설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 요구뿐만 아니라, 수강료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교육여건 면에서는 대학부설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설치하여 육아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평생교육원 전담직원 배정을 요구하기도 하며 또한 기관별로 연계하여 중복 없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성의식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가의 의무적 배치와 그에 따른 정부 보조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사회인식, 직업의식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사회 진출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따른 제반 후속 시설 및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각 대학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적 지원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본부의 적극적 재정적 지원 절실. ·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의 정부 보조 ·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특강 및 이벤트 실시를 위한 정보의 보조 · 탁아시설 설립 보조 · 저소득, 저학력층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요청 · 여성 프로그램 개설시 수강료 지원 요망 · 농촌 지역 및 소외 지역에 대한 학습비 지원 필요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흥미 위주만이 아니라 재교육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여성의 정치참여, 사회인식, 직업의식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학점 은행제나 보육교사 과정에서 성의식과 관련되는 교양필수과목을 지정 · 여성 교육 프로그램 공모 · 여성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가의 의무적 배치와 그에 따른 정부의 보조 · 여성들의 직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평생교육에 여성교육 의무화 · 보육사 과정 설치의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여 많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자격증 취득을 유도해야 한다. · 남녀가 함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
교육여건에 대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부설 유치원, 유아원을 교내에 설치하여 육아부담을 줄였으면 한다. · 평생교육원 전담직원 배정 · 기관별로 연계하여 중복없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학이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따른 제반 후속 시설이나 제도의 마련 시급 · 직장에 따라 남녀 고용 비례를 정부차원에서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보육 시설 설치를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규정해야 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평생교육원과 백화점 문화센터 등을 동일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보다 적극적인 대학평생교육원의 홍보가 필요

나. 학습자 조사

학습자조사는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74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298부를 통계처리하였다. 학습자들의 인적 특성은 연령, 취업지위, 학력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학습자들의 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학습자)들의 인적 특성

<표 V-23>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연령	빈도	비율
29세이하	100	33.6
30-39세	92	30.9
40-49세	69	23.1
50세이상	28	9.4
무응답	9	3.0
총계	298	100.0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0대, 30대, 40대, 50대 순이었다. 의외로 20대가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도 30세 이상의 참여율이 전체의 65.4%에 달하고 있다.

<표 V-24> 취업 및 결혼지위별 분포

단위: 명/ %

취업 및 결혼지위	빈도	비율
전업주부	117	39.3
취업주부(시간제/전일제)	54	18.1
미혼취업여성	57	19.1
미혼미취업여성	36	12.1
기타	34	11.4
총계	298	100.0

응답자 가운데 전업주부가 39.3%로 가장 많고, 취업주부도 18.1%에 달한다. 이를 합산하면 기혼여성(주부)이 57.4%로 대학평생교육원을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혼여성들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취업여성은 37.2%, 미취업여성은 51.4%로 미취업여성의 이용율이 더 높으나 취업여성의 활용도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표 V-25> 학력별 분포

단위: 명/ %

학력	빈도	비율
중졸 이하	7	2.3
고졸	75	25.2
대졸이상	189	63.4
기타	27	9.0
총계	298	100.0

응답자 중 대졸이상이 63.4%로 대학평생교육원의 주 고객이었다. 중졸이하의 저학력자의 이용율도 2.3%에 달하였다.

질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화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질문들을 통해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주로 학습하는 교육영역은 무엇’이며 ‘자신에게 어떤 교육영역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지’와 함께 ‘앞으로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즉, 대학평생교육원의 현재 및 미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연령, 취업 및 결혼 지위, 학력별로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학평생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상황(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한 기대, 프로그램 및 교육 환경의 성인지성, 타 기관과 비교, 성과, 여성학습자로서의 요구)과 관련해서 학습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물어보았고, 각 질문에 대해 여자대학과 남녀공학의 학습자의 응답을 각각 분석하였다.

■ 여성들이 주로 참여한 교육영역 1순위

<표 V-26> 연령별 교육참여영역 1순위

단위: 명/ %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전체
시민교육	9/ 9.0	5/ 5.4	9/ 13.1	2/ 7.1	25/ 8.7
여성의식	7/ 7.0	3/ 3.3	4/ 5.8	1/ 3.6	15/ 5.2
교양	13/ 13.0	13/ 14.1	15/ 21.8	7/ 25.0	48/ 16.6
취미	22/ 22.0	15/ 16.3	14/ 20.3	7/ 25.0	58/ 20.1
직업	41/ 41.0	33/ 35.9	13/ 18.8	1/ 3.6	88/ 30.4
어학	3/ 3.0	14/ 15.2	7/ 10.1	4/ 14.3	28/ 9.7
무응답	5/ 5.0	9/ 9.8	7/ 10.1	6/ 21.4	27/ 9.3
전체	100/ 100.0	92/ 100.0	69/ 100.0	28/ 100.0	289/ 100.0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주로 참여한 교육영역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직업 교육영역(30.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취미(20.1%), 교양(16.6%) 영역으로 나왔다. 29세 이하(41.0%)와 30~39세 이하(35.9%)가 직업 영역에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40세 이상에서는 교양, 취미 영역에서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식 영역(5.2%)이 전 연령에 걸쳐 가장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는 프로그램 개설 비중 자체가 낮은 데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대와 30대는 직업을 위한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고 40대부터 직업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다가 50대에 확연히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령대별로 교육요구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0대와 50대는 삶을 풍부하게 하는 교양, 취미교육에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양과 취미 교육을 함께 합산할 경우는 전체평균이 36.7%로 직업교육 30.4%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V-27> 취업 및 결혼지위별 교육참여영역 1순위

단위: 명/ %

	전업주부	취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미혼 취업여성	미혼 미취업여성	기타	전체
시민교육	14/ 12.0	2/ 3.7	2/ 3.5	5/ 13.9	3/ 11.5	26/ 9.0
여성의식	6/ 5.1	1/ 1.9	3/ 5.3	3/ 8.3	2/ 7.7	15/ 5.2
교양	18/ 15.4	12/ 22.2	10/ 17.5	4/ 11.1	5/ 19.2	49/ 16.9
취미	24/ 20.5	10/ 18.5	14/ 24.6	8/ 22.2	2/ 7.7	58/ 20.0
직업	28/ 23.9	18/ 33.3	21/ 36.8	12/ 33.3	9/ 34.6	88/ 30.3
어학	15/ 12.8	5/ 9.3	3/ 5.3	1/ 2.8	3/ 11.5	27/ 9.3
무응답	12/ 10.3	6/ 11.1	4/ 7.0	3/ 8.3	2/ 7.7	27/ 9.3
전체	117/ 100.0	54/ 100.0	57/ 100.0	36/ 100.0	26/ 100.0	290/ 100.0

취업 및 결혼지위에 따른 구분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직업교육영역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왔으며 교양이나 취미 영역에 그 다음으로 많은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전체의 30.3%가 직업 영역에 참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취미 영역에 20.0%가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 여성의식 영역(5.2%)과 시민교육 영역(9.0%) 참여율은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미혼미취업여성의 참여율이 미혼취업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28> 학력별 교육참여영역 1순위

단위: 명/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전체
시민교육	2/ 28.6	7/ 9.3	13/ 6.9	4/ 22.2	26/ 9.0
여성의식		8/ 10.7	7/ 3.7		15/ 5.2
교양		13/ 17.3	34/ 18.0	2/ 11.1	49/ 17.0
취미	3/ 42.9	13/ 17.3	39/ 20.6	3/ 16.7	58/ 20.1
직업		20/ 26.7	61/ 32.3	6/ 33.3	87/ 30.1
어학		5/ 6.7	20/ 10.6	2/ 11.1	27/ 9.3
무응답	2/ 28.6	9/ 12.0	15/ 7.9	1/ 5.6	27/ 9.3
전체	7/ 100.0	75/ 100.0	189/ 100.0	18/ 100.0	289/ 100.0

중졸 집단외 나머지 학력 집단에서는 모두 직업 영역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 중졸집단의 직업교육 참여경험이 없는 것은 직업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 고졸이상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것이 원인인 듯하다. 직업교육에는 대졸이상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시민교육과 여성의식교육 참여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연령, 취업 및 결혼 여부, 학력에 관계없이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영역으로 직업 영역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취미, 교양 영역으로 나왔다. 한편 취미와 교양을 합할 경우는 직업교육보다 참여율이 더 높다.

■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영역(한 가지만 선택)

<표 V-29> 연령별 교육요구영역

단위: 명/ %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전체
시민교육	11/ 11.0	11/ 12.0	5/ 7.5	4/ 14.3	31/ 10.8
여성의식	7/ 7.0	7/ 7.6	6/ 9.0	3/ 10.7	23/ 8.0
교양	13/ 13.0	8/ 8.7	5/ 7.5	5/ 17.9	31/ 10.8
취미	21/ 21.0	29/ 31.5	21/ 31.3	9/ 32.1	80/ 27.9
직업	39/ 39.0	23/ 25.0	15/ 22.4	2/ 7.1	79/ 27.5
어학	9/ 9.0	14/ 15.2	15/ 22.4	5/ 17.9	43/ 15.0
전체	100/ 100.0	92/ 100.0	67/ 100.0	28/ 100.0	287/ 100.0

연령대에 따라 교육요구에 변화가 나타난다.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특히 50대에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취미나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29세 이하에서는 직업교육영역(39.0%)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취미 영역(21.0%)을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였다. 30세 이상 연령 집단에

서는 모두 취미 영역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39세이하 집단과 40~49세이하 집단은 그 다음으로 직업영역(25.0%)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취미 영역 다음으로는 직업 영역(7.1%)보다는 교양 영역(17.9%)에 대한 요구가 훨씬 크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취미 영역(27.9%)과 직업 영역(27.5%)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여성의식 영역(8.0%)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표 V-30> 취업 및 결혼지위별 교육요구영역

단위: 명/ %

	전업주부	취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미혼 취업여성	미혼 미취업여성	기타	전체
시민교육	13/ 11.2	6/ 11.3	4/ 7.0	4/ 11.1	4/ 15.4	31/ 10.8
여성의식	12/ 10.3	4/ 7.5	3/ 5.3	3/ 8.3	1/ 3.8	23/ 8.0
교양	11/ 9.5	6/ 11.3	11/ 19.3	1/ 2.8	3/ 11.5	32/ 11.1
취미	37/ 31.9	18/ 34.0	15/ 26.3	5/ 13.9	5/ 19.2	80/ 27.8
직업	24/ 20.7	9/ 17.0	17/ 29.8	19/ 52.8	19/ 42.3	80/ 27.8
어학	19/ 16.4	10/ 18.9	7/ 12.3	4/ 11.1	4/ 7.8	42/ 14.6
전체	116/ 100.0	53/ 100.0	57/ 100.0	36/ 100.0	26/ 100.0	288/ 100.0

미혼 미취업여성 집단(52.8%)은 직업 영역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전업주부 집단(31.9%)과 취업주부 집단(34.0%)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이 취미 영역이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업주부의 요구가 가장 높다. 미혼 여성은 직업교육, 주부는 취미교육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편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중졸 집단에서는 취미 영역(42.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고졸 집단은 직업교육요구(37.3%)가 가장 크며 취미 영역(26.7%)에 대한 필요도 크다. 반면 대졸이상 집단은 취미교육요구(29.4%)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직업 영역(25.1%)이다.

<표 V-31> 학력별 교육요구영역

단위: 명/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전체
시민교육	2/ 28.6	6/ 8.0	17/ 9.1	6/ 33.3	31/ 10.8
여성의식	1/ 14.3	8/ 10.7	13/ 7.0	1/ 5.6	23/ 8.0
교양	1/ 14.3	5/ 6.7	22/ 11.8	4/ 22.2	32/ 11.1
취미	3/ 42.8	20/ 26.7	55/ 29.4	1/ 5.6	79/ 27.5
직업		28/ 37.3	47/ 25.1	5/ 27.8	80/ 27.9
어학		8/ 10.7	33/ 17.6	1/ 5.6	42/ 14.6
전체	7/ 100.0	75/ 100.0	187/ 100.0	18/ 100.0	287/ 100.0

대학평생교육원의 학습자들은 연령, 취업 및 결혼 여부, 학력에 관계없이 직업 영역 및 취미 영역이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 참여한 교육영역 1순위와 향후 교육요구를 비교해 볼 때, 시민교육, 여성의식교육, 취미교육에 대한 요구가 과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는 그들의 현 상황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자립 의식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인식(한 가지만 선택)

<표 V-32>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연령별 인식(학습자)

단위: 명/ %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전체
시민교육	22/ 22.4	25/ 27.8	10/ 14.9	4/ 14.3	61/ 21.6
여성의식	8/ 8.2	7/ 7.8	11/ 16.4	5/ 17.9	31/ 11.0
교양	16/ 16.3	11/ 12.2	11/ 16.4	6/ 21.4	44/ 15.5
취미	16/ 16.3	18/ 20.0	15/ 22.4	10/ 35.7	59/ 20.8
직업	33/ 33.7	27/ 30.0	18/ 26.9	2/ 7.1	80/ 28.3
어학	2/ 2.0	2/ 2.2	2/ 3.0	1/ 3.6	7/ 2.5
기타	1/ 1.1				1/ 0.3
전체	98/ 100.0	90/ 100.0	67/ 100.0	28/ 100.0	283/ 100.0

49세이하는 모두 직업 영역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으며 50세이상 집단(35.7%)에서는 취미 영역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29세이하 집단(22.4%)과 30~39세이하 집단(27.8%)은 모두 그 다음으로 많은 이들이 시민교육 영역에 대학평생교육원이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이 직업교육영역(28.3%)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시민교육 영역(21.6%), 취미, 교양, 여성의식교육 순이다.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응답은 40세 이상에서 크게 상승한다. 중점 영역을 취미라고 답한 경우도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의 교육요구와 대학평생교육원의 주 교육기능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학평생교육원이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1.6%이나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비율은 10.8%에 불과하여, 인식과 현실적 욕구 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설령 시민교육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참여율은 훨씬 저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식교육이나 교양교육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민, 의식, 교양교육 영역은 인식에 비해 실제 욕구가 미흡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이 취미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8%이나 향후 교육요구는 27.9%에 달해 인식에 비해 참여요구가 더 높게 나타난다.

미혼여성과 전업주부는 직업교육을 중점 영역으로 인식했고, 취업주부 집단의 경우 시민교육 영역(28.3%)을 중점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중점 영역을 여성의식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중졸 집단은 여성의식 영역에 대학평생교육원이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50.0%에 이른다. 반면 다른 집단에서는 모두 직업 영역에 대학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표 V-33>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취업 및
결혼지위별 인식(학습자)

단위: 명/ %

	전업주부	취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미혼 취업여성	미혼 미취업여성	기타	전체
시민교육	21/ 18.4	15/ 28.3	13/ 23.2	9/ 25.0	5/ 20.0	63/ 22.2
여성의식	14/ 12.3	5/ 9.4	4/ 7.1	3/ 8.3	4/ 16.0	30/ 10.6
교양	17/ 14.9	8/ 15.1	10/ 17.9	4/ 11.1	5/ 20.0	44/ 15.5
취미	27/ 23.7	12/ 22.6	12/ 21.4	3/ 8.3	5/ 20.0	59/ 20.8
직업	32/ 28.1	12/ 22.6	16/ 28.6	15/ 41.7	5/ 20.0	80/ 28.2
어학	3/ 2.6	1/ 2.0		2/ 5.6	1/ 4.0	7/ 2.5
기타			1/ 1.8			1/ 0.4
전체	114/ 100.0	53/ 100.0	56/ 100.0	36/ 100.0	25/ 100.0	284/ 100.0

<표 V-34> 대학평생교육원의 중점 교육영역에 대한 학력별 인식(학습자)

단위: 명/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전체
시민교육		15/ 20.0	43/ 23.4	4/ 22.2	62/ 21.9
여성의식	3/ 50.0	7/ 9.3	18/ 9.8	3/ 16.7	31/ 11.0
교양	1/ 16.7	11/ 14.7	29/ 15.8	3/ 16.7	44/ 15.5
취미	1/ 16.7	20/ 26.7	36/ 19.6	2/ 11.1	59/ 20.8
직업	1/ 16.7	21/ 28.0	52/ 28.3	5/ 27.8	79/ 27.9
어학		1/ 1.3	5/ 2.7	1/ 5.5	7/ 2.5
기타			1/ 0.4		1/ 0.4
전체	6/ 100.0	75/ 100.0	184/ 100.0	18/ 100.0	283/ 100.0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 취업 및 결혼지위, 학력에 관계없이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영역은 직업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 시민교육과 취미 영역을 꼽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의식 영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낮지만, 40세이상 집단 및 기혼여성 집단, 중졸 집단에서 여성의식 영역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의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현재의 참여도와 비교하여 시민교육, 의식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 영역의 교육에 대한 실제 참여 의지는 인식에 비해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 교육을 중도 포기한 경험과 이유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으면서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했다. 이유로 제시된 7개의 선택지는 사전 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것들이다. 각 질문에 대한 결과는 연령, 취업 및 결혼지위, 학력에 따라 통계 처리하였다. 가사 부담 항목에 육아도 포함하였으며 기타 항목을 두어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했는데 강좌미개설과 건강상의 이유를 주로 들었다.

<표 V-35> 연령별 중도 포기 경험과 이유

단위: 명/ %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전체
있다	41/ 41.0	32/ 35.2	24/ 34.8	10/ 37.0	107/ 37.3
없다	59/ 59.0	59/ 64.8	45/ 65.2	17/ 63.0	180/ 62.7
전체	100/ 100.0	91/ 100.0	69/ 100.0	27/ 100.0	287/ 100.0

이유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세 이상	전체
교육내용의 부적절성, 흥미 상실	16/ 39.0	6/ 18.8	5/ 20.8	1/ 10.0	28/ 26.2
교육 시간의 불편	7/ 17.1	10/ 31.2	7/ 29.2	3/ 30.0	27/ 25.2
가사 부담(육아 등)	3/ 7.3	6/ 18.8	2/ 8.3		11/ 10.3
가족 이해 부족		1/ 3.1	1/ 4.2		2/ 1.9
학습비 부담	1/ 2.5	2/ 6.3	1/ 4.2	2/ 20.0	6/ 5.6
자신의 의지 부족	14/ 34.1	6/ 18.8	6/ 25.0	4/ 40.0	30/ 28.0
기타(건강, 강좌미개설 등)		1/ 3.1	2/ 8.3		3/ 2.8
전체	41/ 100.0	32/ 100.0	24/ 100.0	10/ 100.0	107/ 100.0

모든 연령 집단에서 응답자의 37.3%가 교육을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9세 이하 집단(41.0%)에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 집단이 이유로 응답한 결과를 보면 교육내용의 부적절성, 흥미 상실(39.0%)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의지 부족(34.1%), 교육 시간의 불편(17.1%)라고 대답했다. 다른 연령집단도 중도 포기한 이유로 이 세

가지 이유를 대부분 들었다. 30~49세이하 집단은 특히 교육시간의 불편(31.2%, 29.2%)을, 50세이상 집단은 자신의 의지 부족(40.0%)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연령에 따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 결과에 여실히 드러난다. 50세이상 집단에서는 가사 부담에 응답한 사람이 없었고, 자녀양육기인 30~39세이하 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사부담 응답율이 높다. 교육내용상 문제, 시간 문제, 의지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고루 중도 탈락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습자의 지속적 교육참여를 위해 교육내용의 적절성 및 흥미 제고, 시간편성의 탄력성은 공통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연령에 따라 특별히 부각되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학습자 상담과 지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30, 40대 여성에게는 탁아서비스, 50대 이상 여성에게는 학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36> 취업 및 결혼지위별 중도 포기 경험과 이유

단위: 명/ %

	전업주부	취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미혼 취업여성	미혼 미취업여성	기타	전체
있다	37/ 32.2	25/ 46.3	25/ 43.9	13/ 36.1	7/ 26.9	107/ 37.2
없다	78/ 67.8	29/ 53.7	32/ 56.1	23/ 63.9	19/ 73.1	181/ 62.8
전체	115/ 100.0	54/ 100.0	57/ 100.0	36/ 100.0	26/ 100.0	288/ 100.0

이유	전업주부	취업주부 (시간제, 전일제)	미혼 취업여성	미혼 미취업 여성	기타	전체
교육내용의 부적절성, 흥미 상실	6/ 16.2	8/ 32.0	6/ 24.0	4/ 30.7	4/ 57.1	28/ 26.2
교육시간의 불편	7/ 18.9	8/ 32.0	7/ 28.0	3/ 23.1	1/ 14.3	26/ 24.3
가사 부담	6/ 16.2	3/ 12.0	1/ 4.0	1/ 7.7		11/ 10.3
가족 이해 부족	2/ 5.4					2/ 1.9
학습비 부담	3/ 8.1	1/ 4.0	1/ 4.0		1/ 14.3	6/ 5.6
자신의 의지 부족	10/ 27.0	5/ 20.0	10/ 40.0	5/ 38.5	1/ 14.3	31/ 29.0
기타(건강, 강좌미개설 등)	3/ 8.1					3/ 2.8
전체	37/ 100.0	25/ 100.0	25/ 100.0	13/ 100.0	7/ 100.0	107/ 100.0

취업 및 결혼지위별로 볼 때 중도포기 경험은 취업 여성 집단이 더 높게 나왔고, 그 중 취업주부의 중도 포기경험율이 가장 높다. 포기 이유로 전업주부 집단과 미혼 여성 집단은 자신의 의지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부담과 학습비 부담을 포기 이유로 많이 들었고, 취업주부들은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V-37> 학력별 중도 포기 경험 및 이유

단위: 명/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기타	전체
있다	3/ 50.0	28/ 37.3	68/ 36.2	7/ 38.9	106/ 36.9
없다	3/ 50.0	47/ 62.7	120/ 63.8	11/ 61.1	181/ 63.1
전체	6/ 100.0	75/ 100.0	188/ 100.0	18/ 100.0	287/ 100.0

이유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	기타	전체
교육내용의 부적절, 흥미상실	1/ 33.3	10/ 35.7	15/ 22.1	2/ 28.6	28/ 26.4
교육 시간의 불편		4/ 14.3	21/ 30.9	2/ 28.6	27/ 25.5
가사 부담	1/ 33.3	3/ 10.7	6/ 8.8		10/ 9.4
가족 이해 부족		1/ 3.6			1/ 0.9
학습비 부담		1/ 3.6	4/ 5.9	1/ 14.2	6/ 5.7
자신의 의지 부족	1/ 33.3	8/ 28.6	20/ 29.4	2/ 28.6	31/ 29.2
기타(건강, 강좌비개설 등)		1/ 3.6	2/ 2.9		3/ 2.8
전체	3/ 100.0	28/ 100.0	68/ 100.0	7/ 100.0	106/ 100.0

포기 경험의 유무에 있어 중졸 집단의 중도포기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졸 집단은 교육내용의 부적절함과 흥미상실을, 대졸 집단은 교육시간의 불편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학습자 평가의견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총 33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각 질문의 답변에 대해 여자 대학과 남녀공학 대학 소속 학습자

로 나뉘어 이 둘간의 평균값을 가지고 각각 분석하였다. 전체 사례수 298개 중 여대소속인지 공학소속인지에 표기하지 않은 응답자가 많아 소속대학별 분석사례는 문항별로 각각 80에서 90사례가 활용되었고, 나머지 소속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평균 계산에 포함되었다. 평균값의 해석기준은 기관조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V-38> 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

가. 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한 기대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1.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함양하기를 원한다.	3.35	3.28	3.32
2.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전문적 직업능력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3.49	3.49	3.42
3.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양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3.22	3.25	3.24
4.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취미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3.14	3.14	3.17
5.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사회봉사 및 참여를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2.95	3.19	3.00

응답자들은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 의식 함양, 전문직업 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사회봉사 및 참여교육을 받기를 대체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전문적 직업능력을 취득하기를 원한다.’는 항목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며, 사회봉사교육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여성들이 대학평생교육원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전문적 직업능력 개발, 여성으로서의 주체의식 함양, 교양 및 취미교육 순이다.

교육 내용이나 방법 결정에 학습자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참여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체로 그렇다”에 못 미치는 응답으로 프로그램의 성인지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다.

<표 V-39> 프로그램의 성인지성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나. 프로그램 평가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6. 프로그램 시간대가 여성이 참여하기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편이다.	2.88	2.89	2.91
7. 교육내용이나 자료가 여성의 삶과 관련이 있다.	2.83	2.62	2.74
8. 교육내용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제고하는 편이다.	2.76	2.57	2.68
9. 교육내용이나 방법 결정에 학습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참여할 기회가 있다.	2.76	2.64	2.63

<표 V-40> 학습환경의 성인지성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다. 학습지원환경 평가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10. 탁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68	1.50	1.59
11. 교육관련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다.	2.69	2.67	2.66
12. 학습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다.	2.77	2.33	2.47
13. 강사들이 성평등 의식이 있고 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이다.	3.15	2.85	2.95
14. 교통환경이 좋은 편이다.	2.96	2.87	2.90
15. 다른 기관에 비해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전문성)	3.07	3.02	3.03
16. 다른 기관에 비해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편이다.(다양성)	2.93	2.84	2.87
17. 대학평생교육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여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본다. (*)	2.99	2.95	3.06

* 17번 문항의 평균값이 각 범주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온 것은 소속대학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들의 평균이 높은 것이 원인일 수 있음.

학습지원환경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탁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 외에도 교육관련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 기회 제공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강사들의

성평등 의식이 있고 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이냐는 질문에는 여자 대학 소속 학습자들의 평가가 더 높은 편이다.

다른 기관에 비해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 수준이 높은가 하는 전문성 평가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렇다는 평가를 내렸다. 전체적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 여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그러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원의 학습지원환경에 있어서는 탁아서비스, 학습상담,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학습자평가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대 평생교육원이 공학소속 평생교육원보다 여성을 위한 학습환경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자 모두 대체로 성인지적인 학습환경을 지원하고 있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41>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성과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

라. 성과 평가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18.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이 가사관리(육아, 자녀 및 가족관리, 요리 등)에 도움이 되었다.	2.74	2.68	2.65
19. 직업능력 제고나 취업,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다.	2.68	2.41	2.49
20. 사회봉사 및 참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2.76	2.43	2.54
21.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의식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08	2.55	2.77
22. 교육을 통해 여러 자원(정보, 교육, 소득, 정치, 사회활동 등)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다.	2.67	2.63	2.58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가사관리, 직업능력 제고, 취업 및 소득증대, 사회봉사능력, 사회참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에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여자 대학 소속 대학평생교육원에 다니는 학습자들이 공학 재학 학습자보다 직업능력 향상, 주체의식 함양, 사회봉사 및 참여능력 증대에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즉, 교육성과에 대한 여성들의 만족도는 여대 평생교육원이 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성들이 대학평생교육원 교육이 여성의 직업적, 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아,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42> 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한 여성학습자의 요구

마. 여성 학습자의 요구	여자 대학	남녀 공학	전체 평균
23. 앞으로 여성의식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3.05	3.01	3.00
24. 앞으로 가사관리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2.83	2.73	2.74
25. 앞으로 직업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3.24	3.33	3.23
26. 앞으로 사회참여, 봉사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3.14	3.15	3.08
27. 앞으로 취미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3.19	3.08	3.16
28. 교육내용이나 방법 결정에 참여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3.19	3.30	3.21
29. 교육내용이나 자료가 여성의 삶과 관련되어 구성되면 좋겠다.	3.20	3.20	3.15
30. 프로그램 종류나 시간이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3.39	3.53	3.43
31. 타아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	3.14	3.19	3.15
32. 교육정보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	3.37	3.51	3.40
33. 학습비 부담이 줄면 좋겠다.	3.41	3.47	3.36

응답자들은 제시한 모든 문항에 대해 요구가 있다고 답하였다. 여성들은 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해 프로그램 종류나 시간의 다양화를 가장 원하며, 교육

정보나 상담서비스의 제공, 학습비 부담 감소, 탁아서비스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내용이나 방법 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 교육내용의 여성관련성, 탁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대체로 있는 편이다. 교육영역에 있어서는 향후 직업교육, 취미교육, 사회참여 및 봉사교육, 여성의식교육에 대체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학습지원환경, 교육성과의 성인지성에 대해 여성들의 응답은 평균 3 미만에 거의 분포되어 “대체로 그렇다”에 못 미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교육운영이나 환경에서 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의식과 실질적 지위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

마지막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이 있는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이미 앞의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한 것과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간대의 다양성을 요구하였으며, 취업과 관련되는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취미 프로그램도 바라고 있다. 수강료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학교 부대 시설의 이용 및 탁아서비스의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컸다. 그외에도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요구사항	다양성 요구 (시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화상 교육을 통한 교육 모색 · 다양한 시간대의 강좌가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한다. · 수강 시간대를 적절히 조정해 주었으면 한다. · 교육시간대 오전/오후 다양하게 배치 · 주말강좌 개설 · 학습의 폭이 넓으므로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강좌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면 한다. · 계절학기 과목을 더 늘렸으면 한다.
	강좌의 전문성 요구 및 취업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또는 자격증 연결교육 · 내용이 좀더 전문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 여러 강좌보다는 강좌의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 · 수료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이 있었으면 한다. · 자격증 취득 강좌개설 · 전문직 코스가 있었으면 한다. · 수강 완료 후 취업의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 실무 위주의 컴퓨터 교육
	기타 요청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 · 여성학이나 여성의식에 대한 특강 · 남녀 공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양교육 ·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과목 개설 · 육아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 영어회화 교육 · 한문교육 · 스포츠 댄스 강좌 개설 · 취미나 운동관련 강좌 · 미술관련 강좌 · 아동을 위한 강좌
수강료와 관련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학비 부담으로 수강생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늘리기 · 재료비 부담이 줄었으면 한다. · 교육비 분할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학습환경과 관련한 요구사항	탁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아시설 마련
	학교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틀버스 운행 · 주말이나 공휴일에 학교를 개방했으면 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신청 전에 교육내용을 상세히 홍보했으면 한다. ·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직접 강좌를 해줬으면 한다. · 인원이 적다고 폐강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2. 면담조사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접근상의 문제점 파악과 향후 성인지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분석의 일환으로 몇몇 대학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맹아적으로나마 성인지적 관점을 취했던 여자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여성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를 했으며, 어떤 면에서 제약을 겪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면담은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회의와 설문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평생교육원의 내적 역동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기관의 평생교육원 활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교육실무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실무자는 ‘팀장’ 혹은 ‘실장’으로 불리는 직원으로, 3-4명의 사무직원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평생교육원 전반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의 면담 대상은 주로 실장급으로 정해졌다.

실무자가 속한 대학은 1차 전문가회의를 통해 얻은 자료에 기반하여, 여성교육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A여자대학과 여성의 직업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D여대와 K여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주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S대학을 선정하여 평생교육의 다양한 여성 기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남녀공학대학의 성인지적 접근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여자대학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대학평생교육원 교육이 실제 여성학습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면담이 진행되었다. 학습자는 다양성을 원칙으로 선발하였다. 우선, 오랫동안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평생교육원에 대한 참여 동기 및 교육의 문제 등을 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10년 이상 평생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을 선정하였고, 현재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수강생 및 일반 수강생

들을 면담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면담을 통해 대학평생교육원의 여성발전 기여 측면과 성인지적 접근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가. 평생교육원의 여성발전 기여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대학평생교육원은 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여성간 네트워크 구축, 여성 의식 및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전문적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통제력 증대에 기여

평생교육기관은 제도교육과 달리 지속적인 충원을 필요로 하고, 충원을 위해서는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과 차별적인 특성화한 교육을 학교의 상징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대학’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고급강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직업적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평생교육원은 인적자원, 특히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다.

한 예로, D여자대학의 평생교육원은 ‘디자인’을 전문 전공으로 삼고 있다. 컴퓨터 디자인과 패션디자인을 주축으로 여성들의 직업기술능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학점은행과 연계하여 학위취득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2년의 교육기간을 거친 수강생은 50%가량 취업하고 있으며, 취업자는 다시 ‘후배’를 취업 추천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원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V-43> D여대 평생교육원의 컴퓨터 디자인 과정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1	전필	· 기초 디자인	3	2	전필	· 시각디자인	3
	전필	· 조형표현 I	3		전필	· 일러스트레이션	3
	전필	· 디자인론	3		전필	· 발상과 표현	3
	전선	· 컴퓨터실습 I (Illustration)	3		전선	· 인터넷활용 I	3
	전선	· 색채학	3		전선	· 컴퓨터실습 II (Photoshop)	3
	전선	· 로고타입	3		전선	· 광고일러스트레이션	3
3	전필	· 공익광고디자인	3	4	전선	· 시간디자인실습(C·I·P)	3
	전선	· 디자인리서치	3		전선	· 제품광고디자인	3
	전선	· 컴퓨터실습 III (Quark)	3		전선	· 타이포그래피	3
	전선	· 인터넷활용 II	3		전선	· 웹디자인	3
	전선	· 테크니컬일러스트레이션 I	3		전선	· 인쇄매체학	3
	전선	· 컴퓨터실습 IV (Painter)	3		전선	· 캐릭터디자인	3

<표 V-44> D여대 평생교육원의 컴퓨터시각 디자인 특별과정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학기	구분	교과목	학점
1	전선	· 전자출판디자인	3	2	전선	· 전자출판프로젝트 II	3
	전선	· 컴퓨터엔터테인먼트디자인 I	3		전선	· 컴퓨터엔터테인먼트디자인 II	3
	전선	· 비주얼아이덴티디자인 I	3		전선	· 비주얼아이덴티디자인 II	3
	전선	· 디자인리서치(광고) I	3		전선	· 디자인리서치(광고) II	3
	전선	· 이미지프로세싱	3		전선	· 디자인프레젠테이션	3
	전선	· 현장실습	3		전선	· 현장실습	3

<표 V-44>는 디자인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후속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졸업생이 일정 정도 취업자층으로 누적되어감에 따라, 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00평생교육원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후속관리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 대학의 문제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겨냥하면서도 “여성이 많으면 지명도가 떨어진단다”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평생교육원의 주 수입원은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만 많을 경우에는 취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생교육원의 사회적 평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적당히 남성을 섞는’ 전략도 대두하게 된다.

좀 아쉬운 거는 여학생이 많으면 학교 취업률이 떨어져요.. 남학생이 많은 게 좋죠. 취업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다른 얘기지만 우리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편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을 졸업하고도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가르쳐서 이런 학생들을 데려가다 다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평생교육, 사회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50-50을 유지하려고 해요.

질적으로 수준높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전문 평생교육원’으로서의 입지점을 굳히기는 쉽지 않다. 취업률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의 직업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취업 및 후속교육과의 연관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의식 및 세력화에 기여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과 자본의 형성 뿐 아니라 사회문화자본 형성에 기여해왔다. 문화자본이란, 말 그대로 ‘문화’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습이 단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일을 넘어서서 특정한 문화적 습성을 가지는 집단적 동질성을 창출하는 데에까지 이를 경우, 우리는 그 학습이 ‘문화자본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런 문화자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가리켜 ‘사회자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는 학습이 개인적 학습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계급적 작용을 하는 데 주목하는 논의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다른 사회교육원이 아니라 지명도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찾는 이유는 다른 사회교육기관에 비해 “대학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가고싶었던 대학, 딸이나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자신도 함께 다니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중년의 여성들은 주로 명망성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찾는다. 학습자 스스로도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에 비해 “돈 차이만큼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이유는 그것이 ‘대학 속의 대학’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대학을 느끼고 싶어서 왔죠. 사회적으로 돈도 좀 벌었구, 뭐 부족한 것도 별로 없지만, 뭔가 대학의 분위기 그런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많이 비싸죠. 다른 기관도 많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오면 학풍이 있는 거죠. 기관은 그게 없잖아요. 그저 잠시 배우고 가니까. ... 계속 있다보면 이런(어느 정도 높은) 수준은 되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도 대학인으로서 자신을 규정하고자 하며, 사회적으로도 대학인으로서의 대접을 요구하게 된다. 10년 이상을 같은 사회교육원에 다녔음을 감안하면, 그 대학 소속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의무감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수강생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다. 이런 모습은 때로 명시적으로 ‘00대학인’으로 대접받기를 대학에 대해 촉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노력해서 00대학인으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보니까, 동창보다 높은 모금을 해줘요. 그래서 대학 동창연말모임에 가면 좋은 자리 주고, 대접도 해주고 해요. 명예총장이나 명예 이사장들도 학교발전을 위해 우리랑 회식도 하죠. 사실 00대학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 사회에서도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있어지고, 그럴 수 있었던 거지요.

물론 학교의 지명도 및 경제력이 중요한 변인인 만큼 이런 특성은 모든 대학에 일반화하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식은 다를지라도, 대학 평생교육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속적인 네트워크 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만남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가정에서 묻혀있던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주체”로 서는 체험을 한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점은 사회적 네트워크이라는 ‘교육외적’ 동력이 ‘교육적’ 기능을 하게 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의 학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교육적인 것의 비교육적 효과, 즉 학교라는 교육적 장면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거꾸로 비교육적 동력의 교육적 효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을 느끼는 것이 좋아서”, 혹은 “친구가 좋아서” 계속 등록한 여성들은 안정된 만남을 통해 학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긴 한번 등록한 사람은 계속 등록해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저런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왜 그런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뚜렷이 뭘 배워야겠다는 결심보다도 그냥 언니동생이 좋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알게 될 기회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집단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내내 그 자리”인 사람들이 “의미”있는 일을 하지 못해왔다는 자의식 속에서 함께 모이고 대학의 이름으로 활동해 보는 곳으로 평생교육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 속하는 평생교육원은 단지 단기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제공처’를 넘어서서, 지속적인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학습진지(陣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학습자의 충원은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보장하며, 교육 역시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된다. 학습자

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상호상승해 나가게 된다. 네트워크는 단지 대 사회적인 장면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주는 힘은 강의실에서도 드러난다. 지속적인 관계망이 창출되게 되면, 여성학 습자들은 교육의 내용 및 강사를 통제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다.

계속 모이고, 같이 수강하고 그러다보면 우리끼리 배우고 싶은 것도 요청해요. 어떨 때는 강사를 몰아내기도 해요. 수준이 안된다 싶으면 실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러기도 해요. 우리들이 귀만 발달했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다보니까 수준이 생기는 거 같기도 하구...

수업이나 동창회, 타인의 어려움이라는 여러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자면 학습의 부대효과이지만 사실상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효과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이 된다는 것이 특정한 지식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성장임을 염두에 둘 때, 세계에 대한 관여방식이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학평생교육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은 관계의 망을 통해 수강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나도 지도자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한 수강생의 말처럼, 이 과정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여성의식 성장과 세력화의 싹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의식 제고를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대학평생교육원은 시민교육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S대의 평생교육원은 명칭부터 ‘민주사회교육원 사회교육센터’로 삼아 기관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센터’로 보다는 그 하위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교사 아카데미’ 혹은 ‘노동대학’으로 더 유명하다. 백화점식의 교육제공에서 벗어나, 사회변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겠

다는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이벤트성의 문화행사 역시 상품성 보다는 사회의 약자가 문화적으로 깨어나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획된다. 다음은 행사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의 일부이다.

시와 노래. 특히 노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가장 원초적인 예술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살아 있다면 노래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를 내 삶의 마음결,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 노래해 본지 오래되었습니다.

노래방 기기가 가사를 대주지 않으면 노래하기 힘든 오늘...

그러나 노래는 음악이면서 문학입니다. 노래말은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이다.

노래를 문학으로 음악으로 함께 만나는 문화의 장, 그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환영합니다.

이런 특성화 전략은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대의 교수진이 강사로 함께 참여하므로, 기본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뚜렷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층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미 교육의 열개를 ‘알고 오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내용은 동일한 층이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내용으로 편성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한번 들은 수강생이 계속 하여 수강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내용 가운데 스며들어있는 여성/남성의 여성문화에 대한 자기성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여성의식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교육 가운데 “남교사와 여교사, 서로 들여다보기-이야기하기”라는 주제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여성비하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서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자료집의 일부를 보자.

- 남녀 교사의 사회 문화적 차이
- 여교사들의 높은 경제력, 남편의 사회적 지위로 평가

- 평등한 보수 체계에 대한 불만
- 부차적 노동자로 여자 보기.
- 이중의 비난: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 없고 집에 빨리 가는 여교사를 비난, 동시에 남아서 술자리 어울리면 가정에 문제 있어 저러나? 이래저래 비난하고 싶은 심리
- 사회적 지위의 차이-교직을 여자 직업으로 보는...-->여자 잘난 꼴 못 봐줘

여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인지적 성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제공자의 여성의식 고양을 위한 방향설정이나 제안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의 평등한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V-45> S대 평생교육원의 교사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 용
제1강 9월18일	여는 마당 : 왜 지금 교사문화를 이야기하는가
제2강 9월25일	교사내의 '세대'와 '중심-주변집단' 문화에 관한 분석
제3강 10월 9일	남교사와 여교사, 서로 들여다보기, 이야기하기
제4강 10월18일	교사 문화를 위한 제안

위의 세 유형을 보면, 성인지적 접근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원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주의적 교육'을 일정한 내용으로 국한하여 이해할 경우, 현재 평생교육원의 여성주의 교육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실험적으로 실시된 여성학 강좌를 제외하고, 여성주의적 교육을 내건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들어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획득을 위한 전문강좌로의 지향성이 두드러지며, 실제로 직업기술능력을 제고한 여성들은 우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

둘째, 평생교육원의 경험만으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새롭게 획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성적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어떤 학습에도 성적 규정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교육원에 등록한 수강생들은 대부분 배움에 대한 열등감과 열망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움이 진행된다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규정’, 즉 자기정체성을 바꾸는 일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평생교육원과 성인지적 교육이 연결되는 방식은 현행으로서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여성으로서의 수동성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경제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성학습자들은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평생교육원의 경우 이는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수강시기가 길기 때문에 여성학습자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며, 이런 네트워크는 학습자의 중도포기를 방지하고 장기수강을 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상승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면서 여성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앞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나. 사례연구: A 여대 평생교육원

남녀공학대학과 비교해 볼 때, 여자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은 여성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여자대학 특히 대학 내에 여성학과를 두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원에서 여성교육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A여대는 여성주의적 평생교육의 방향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여 비교적 초기부터 평생교육원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대학이라 볼 수 있다. A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대학평생교육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

A여대 평생교육원은 2년간에 걸친 미국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사례연구에

터하여 교육의 목적 및 평생교육원의 골격을 마련하여 1984년 3월 개원하였다. A여대의 경우를 보면, 평생교육원의 흐름은 크게 1994년을 기점으로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84년 1학기부터 '93년 2학기까지의 시기이다. 1984년 교양교육 I, II, III 및 사무직교육프로그램, 간호교육자 재교육 프로그램, 야간강좌, 유학영어 총정리 강좌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평생교육원은 프로그램의 골격에 있어 큰 변동은 없는 상태로 4년여를 지속하다가, '88년 이후로 약간의 다양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1988년 노인교육시설 지도자 전문 교육과정의 신설되며, '91년 2학기에 이르러 교양강좌도 다양해진다. '92년부터는 전문교육과정 가운데 노인교육시설 지도자 과정과 카운슬러 과정이 일반·심화 과정으로의 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84년 개원 이후 1993년 말까지 평생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세 영역, 즉 교양교육과 전문교육, 야간강좌의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나 수준에 있어 다양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경향은 교양강좌에서 개설된 교과목 수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84년 13개 과목으로 출발한 교과목은 필요에 따라 2-3과목씩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94년에 이르면 30여개 과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수강생은 전원 여성이었기 때문에, 명시적 교육목적에 걸맞게 평생교육원은 일정 정도 여성의 능력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표 V-46> 1984-1992학년도에 개설된 교양강좌의 교과목 수

	84 /1	84 /2	85 /1	85 /2	86 /1	86 /2	87 /1	87 /2	88 /1	88 /2	89 /1	89 /2	90 /1	90 /2	91 /1	91 /2	92 /1	92 /2	93 /1	93 /2	94 /1	94 /2
교과 목 수	13	21	23	22	23	24	22	22	22	23	25	26	27	31	31	32	30	32	33	30	30	31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의 성의식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표 V-47>을 보면, 여성학의 대표 과목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성

학 기본과목인 ‘여성과 사회’나 ‘여성운동사’ 등이 개원 당시부터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성이 없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생교육의 소명이라 여기고 무리가 없는 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것이다. 원론적 과목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적합성이 높은 과목들이 개설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87년 2학기의 ‘출산과 육아’, ‘90년 1학기의 ‘가족문제와 가족치료’, ‘유전과 결혼’ 등이 그 예로, 여성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도 여성학적인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근로여성 교양교육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성의식과 관련한 강좌들이 개설되었다. 여성과 법률, 여성과 직업, 여성과 사회 등의 근로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 프로그램들에 한 과목 이상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93년 2학기 위탁교육을 제외한 근로여성교양교육이 폐지되기까지 유지되었다. 초기에는 소외계층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했으나 대학진학률이 늘면서 수강생이 감소하여 근로여성과정은 직장여성 과정으로 전환되게 된다.

<표 V-47> 여성의 성의식 관련 교과목

	84/1	84/2	85/1	85/2	86/1	87/1	90/2-91/2 92/2	95/2
교과목	여성과 사회	여성과 사회	현대사회와 여성	여성운동사	여성과 사회	성의 사회학	현대사회와 여성	여성 심리학

두 번째 시기는 1994년 이후의 시기이다. 1994년에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질적인 선회를 하게 된다.

아래 표를 보면 '94년 이후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교양교육-전문교육-직장여성교양교육의 순서가 전문교육-교양교육-직장여성교양교육 순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원의 방향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초기의 접근이 대학확장적 성격의 일반 교육

비수혜층에 대한 교양교육이었다면, '94년 이후로는 전문적 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프로그램의 편성에도 반영된다. 전문교육과정의 기간과 학점수를 보면, 초기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93년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대개 1학기에서 길게는 1, 2학기(1년) 과정이었으나, '94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과정들이 2년 과정으로 수강기간이 확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점 역시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노인시설지도자 전문과정의 경우 '93년에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져 2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94년에 이르러 2년 과정으로 개편되며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총 24학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물론 교양교육에서의 변화도 관찰된다. '93학년에 교양교육은 크게 4영역(교양강좌, 생활외국어 강좌, 박물관 강좌, 컴퓨터 강좌)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교양강좌와 생활외국어 강좌는 '9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나, 컴퓨터 강좌와 박물관 강좌는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일반교양교육 과정은 4강좌에서 2강좌로 줄어들며, 전문교육과정은 4과정에서 7과정으로 과정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94년도 2학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교육내용이 다양화되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문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과목 가운데 컴퓨터 강좌는 '93년에 있었던 일반교양교육과정 가운데 한 강좌였으며, 함께 신설된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생활의학전문교육과정은 일반교양교육과정 가운데 교양강좌에 개설되었던 과목들이다. 즉 이를 통해 교양강좌 과목들에서 일부 과목들이 전문과정으로 질적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94년 2학기에 나타난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

'94년 2학기에 신설된 전문교육과정으로는 비서 전문교육과정, 발달장애치료자 전문교육과정, 독서교육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중국문제 전문교육과정이 있다. 이 가운데 발달장애치료자 전문교육과정의 경우, 이전 교양강좌 가운데 발달장애아동의 심리적 접근, 발달 심리학 등의 강좌가 개설된 적이 있으나 그외의 독서교육이나 중국문제에 관련한 강좌들은 이 시기에 신설되었으며, 이는 학습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 추측된다.

<표 V-48> 1993학년도 제 2학기 A여대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총괄표

교육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학점	대상인원
일반 교양 교육 과정	1. 교양강좌	일반	학기단위	각 과목당 2-3학점	각 과목당 30-80명
	2. 생활외국어 강좌	일반	학기단위	4학점	각 반별 20명
	3. 박물관강좌(V)	일반	학기단위	2학점	30-80명
	4. 컴퓨터 강좌	일반	학기단위	4학점	30-40명
전문 교육 과정	1. 카운슬러 전문교육 과정(일반·심화)	일반	학기단위	일반, 심화 각각 24학점	각 과목당 10-60명
	2. 유아교육행정직 전문교육과정	유아교육행정가	1, 2학기 (1년 과정)	학기당 4학점 1년 8학점	30-80명
	3. 노인시설지도자 전문교육(일반과정)	노인교육시설의 및 노인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1, 2 학기 (1년 과정)	학기당 2학점 1년 4학점	30-80명
	4. 노인시설지도자 전문 교육(심화과정 II-3)	노인시설지도자 노인교육 일반과정의 수료자	학기단위	2학점	30-80명
직교 장양 여교 성육 과정 (야간)	1. 직장여성 기초교양강좌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직장 여성	1, 2학기 (1년 과정)	1년 240시간 (총 15학점)	80명
	2. 직장여성 중급교양강좌	직장여성 기초 교양교육강좌 수료자	1, 2 학기 (1년 과정)	1년 240시간 (총 15학점)	80명
	3. 위탁교육강좌	(주)유공해운 3-4급 여직원	학기단위 (총 4학기)	각 과목당 1학점	20-30명

<표 V-49> 1994년도 제 1학기 A여대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 총괄표

교육 프로그램명		대상	기간	학점	대상인원
전 문 교 육 과 정	가. 컴퓨터 전문교육과정	일 반	2년	학기당 4학점 총 16학점	50명
	나. 카운슬러 전문교육과정	일 반	2년	학기당 6학점 총 24학점	50-80명
	다. 노인시설지도자 전문교육과정	노인시설의 지도자 및 일반	2년	학기당 4학점 총 16학점	50-80명
	라.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일 반	2년	학기당 6학점 총 24학점	50-80명
	마. 생활의학 전문교육과정	일 반	2년	학기당 6학점 총 24학점	50-80명
	바. 박물관 전문교육과정	일 반	2년	학기당 4학점 총 16학점	50-80명
	사. 유아교육행정직 전문교육과정	유아교육 행정가	1년	학기당 4학점 총 8학점	50-80명
일반 교양 교육 과정	가. 교양강좌	일반	학기단위	각 과목당 2-3학점	50-80명
	나. 생활외국어강좌	일반	학기단위	각 과목당 4학점	각 과목당 30-80명
직장 여성 교양 교육 과정	가. 위탁교육강좌(야간)	(주)유공해운 3-4급 여직원	학기단위 (총 4학기)	각 과목당 1학점	20-30명

또 하나의 큰 변화는 10년간 계속되어 온 직장여성 교양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94년에 이르러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근로여성교육과정은 수요자의 감소로 폐강되고 유공해운의 위탁과정만 계속된다. 이 과정은 '95년 2학기까지 유공해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이후 삼성생명 주식회사 생활설계사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정(이화-삼성아카데미), 지방여성지도자교육을 위한 '이화-고창아카데미' 위탁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교육과정 가운데 야간에 개설된 과목이 있으나, 이는 이전에 실시되었던 야간강좌들과 성격상 차이가 있다. 근로여성 기초·중급 교양 교육이라는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진 교육은 여성과 사회, 철학개론, 교육학개론, 문학의 이해 등과 같은 교양강좌로서 성격을 지닌다. 즉 교양강좌와 유사한 내용들을 교육하되, 근로여성이 참여가능한 시간대에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교육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야간에 개설된 중국문제 전문가 과정을 살펴보면 대상을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중국계 실무자 및 일반 남·녀'로 하고 있으며, 교양교육이 아닌 전문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차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94년을 기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평생교육원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평생교육의 요구가 급증하고, 대학평생교육원의 특화에 대한 요청이 거세지면서, '90년대 중반이 되면 대학평생교육원마다의 질적인 전환이 진행되는 것이다. 여성의식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추세는 그대로 반영되어, '수요'가 별로 없는 '교양' 차원의 교육은 사라지고, '전문화'된 영역에 여성의식이 결합되는 형태가 자리를 잡게 된다. 직업기술능력이나 일반적 사고력의 증진과정 속에 여성의식이 '녹아 들어가도록'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여성평생교육에 대한 전문화, 상업화 과정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접근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 성인지적 운영 저해 요인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평생교육원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식 및 교양교육은 약화되고, 여성직업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여성직업교육의 강화는 여성의 경제적 통제력의 증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의식교육의 약화는 여성의 발전에 한계가 될 수 있다. 여성의식의 확립 없이 직업교육만으로 여성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접근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성인지적 교육이념의 부재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특성은 우선적으로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평생교육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도, 평생교육원이 성인지적 관점 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성인지적 교육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평생교육원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인기없는’ 여성의식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원의 구조나 인적 구성, 프로그램의 결정과정을 보면, 성인지적 교육 실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원의 모체가 되는 대학의 재원 조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정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대학 평생교육원은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에서 출발하였다. 대학평생교육원은 여러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된 국민을 대상으로 고등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교육수준을 높이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충분한 식견을 갖추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본연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교육원 설립의 현실적 목적은 경제적 관심에 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발전이나 대 국민 봉사의 차원에서 대학평생교육이 운영되기보다는, 줄어가는 대학생 수에 따른 대학유지의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위치 지워

지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원 담당실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메이저 대학으로 갈수록 큰 대학으로 갈수록 평생교육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학부나 대학원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아직 평생교육원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거죠. 그러나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수익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줄어든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평생교육으로 밖에.. 평생교육이라는 수요는 무궁무진하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는 평생교육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많죠.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하느냐...

평생교육원의 설립 취지가 대학의 사회봉사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소위 ‘메이저’급 대학에서 오히려 더 평생교육원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의 재정 수입원으로 평생교육원을 인식하고 있는 대학들의 관심이 더 큰 실정이다.

평생교육원의 위상이 지역사회봉사로부터 재원획득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애초의 목적인 지역사회에의 기여는 그 역의 결과를 낳고 있다. 좋은 시설과 설비, 상대적으로 질 좋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대학평생교육원이 지역의 여타 평생교육기관과의 협조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들어섬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교육제공 및 학습지원의 확산보다는 상업주의적 평생교육관의 일 반화를 낳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평생교육원이 대학의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평생교육원은 본래적 취지가 지역사회 봉사에 목적을 두고 설립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수강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없으며, 학생 수 역시 일정한 제한을 둔다. 따라서 이익을 남긴다는 목적으로 보자면, 특수대학원의 설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원은 공공적 목적에 봉사하지도, 그렇다고 경영적 목적에 충분히 기여할 수도 없는 애매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평생교육원의 설립을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권유하고 있고, 지방대 및 전문대는 자구책으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성인지적 관점 부재는 기관의 전망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 일차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지역사회 봉사라는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고, 여성의식 발전을 위한 대학평생교육원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원이 가지는 교육이념적 지향성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관 내부에서 제대로 설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기관장의 성인지 의식 결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관장에 따라, 사회상황에 따라, 평생교육원을 여성의 의식고양과 지위향상을 위해 운영하고자 한 경우가 발견된다. 예컨대, A여대의 평생교육원의 경우를 보면 초기의 설립목적부터 여성의 능력향상과 의식향상을 위한 뚜렷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D여대의 경우에도 여성고유의 직업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독립된 교육영역을 발전시켜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D여대 여성사회교육원에서는 명시적인 교육목표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끊임없는 자아발전을 이룩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S여대 평생교육원 역시 “여성교육의 메카로서... 여성들이 새롭게 자아를 발견하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여, 여성의 지적·직업적 능력의 고양을 고취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표명한다. A여자대학교 역시 프로그램 안내서에 “많은 여성에게 배움

의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지적·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직업적·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적 필요에 응하게”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자대학의 경우 특히 프로그램의 취지 및 목적에 명시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목표가 명실상부하게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일반대학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남녀공학인 Y대와 K여대의 평생교육원 과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교육 프로그램의 범주에 있어서, 음악, 스포츠, 상담, 사회경제(경영), 생활문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두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성인학습자의 ‘교양’이라고 여겨지는 교육프로그램의 상상력에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세부 교육 항목에서도 그러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과정을 비롯하여 ‘피아노반주법’, ‘논술(교육)지도자’, ‘독서지도자’, ‘아동미술지도(자)’, ‘댄스스포츠’는 두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K여대의 ‘아름다운 시읽기(문예창작)’, ‘꽃예술 꽃방창업’, ‘엄마가 하는 내 아이 영재교육법’은 각각 Y대 사회교육원의 ‘문예창작연수’, ‘플라워디자인과 현대경영’, ‘지혜로운 어머니와 행복한 어린이’와 각각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V-50> Y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과 K여대 프로그램의 비교

■ Y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개 설 과 목		
언어·문학 교육센터	문예창작연수 소설창작 시창작	독서지도자(기초) 독서지도자(심화)	논술교육지도자(초등) 논술교육지도자(중·고등)
음악 교육센터	교회음악지도자 고급성가지휘법 음악치료의 이해 피아노반주법	피아노지도자(초급) 피아노자도자(중급) 피아노지도자(고급)	스즈키바이올린지도자 음악실기연수(성악,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첼로)
심리상담 교육센터	집단상담 상담의 이론과 실제 개인상담의 실제	현대인의 정신건강 심리검사와 면접기술연습 인지치료와 현실치료	임상예술치료 (2003-전기개설예정) 아동, 청소년, 가족상담 (2003-전기개설예정)
스포츠 교육센터	태권도최고지도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주·야간) 노인양생체육지도자 경락을 통한 대체요법	헬스휘트니스 전문지도자 댄스스포츠지도자 댄스스포츠	키네시오테이핑요법 택견지도자 진가태극권
아동 교육센터	유아음악지도자(초급) 유아음악지도자(고급) 달크로즈 전문지도자	동화구연지도자 아동미술지도자(오전·오후)	지혜로운 어머니와 행복한 어린이 영어 독서지도전문인
사회경제 교육센터	지역사회지도자 문화, 관광정책 생활법률	부동산권설팅과 투자전망연수 증권투자분석	스피치전문교육 성공적인 이미지메이킹
생활 문화센터	선과 선어록 한국의 전통차도 서예지도자	전통민화실기지도자 사군자 문인화 교회꽃장식지도자	합창 테마가 있는 클래식음악감상 여행안내지도자
미디어아트 교육센터	기업이미지 전략 영상프로듀서	사이버영화비평 브랜드매니저 양성	
급식경영 교육센터	급식경영전문인		
패션정보 교육센터	패션산업인턴쉽	패션산업실무고급	

■ K여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개 설 과 목	
음악	아마테우스 어린이클래스 피아노 피아노반주법-기초, 고급	아마테우스지도자 클래스피아노지도자/전문가
교양	아름다운 시 읽기 (문예창자)	
사회복지	치매상담과 미술치료전문가 케어복지사	침구교정학 노인교육지도사
상담	전문 상담자	
경영	세무회계	전자상거래
복식	한국복식연구반(의복과 현대사회)	
조리	전통음식 및 궁중요리 연구반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	궁중요리와 찌개전골 상차림 홈메이드 쿠킹
건강 & 스포츠	레크레이션지도자 치매상담과 미술치료요법	댄스스포츠 골프
교육	독서지도자 논술지도자 방과후 아동지도사	유아를 위한 국악교육의 실제 노인교육전문가 엄마가 하는 내 아이 영재교육법
미술	회화 I II 아동미술지도	소묘 생활 도예
미용	네일케어(취미/전문가)	
원예	허브 원예 장식전문가 꽃예술 꽃방창업	재배관리사 ‘난’재배관리사
학점은행제	소양분야/기초이론/실무	
보육교사과정	일반이론/ 보육실습	

요컨대, 두 대학의 사회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은 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복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대와 공학대학의 평생교육원의 유사성은 여자대학이 가진 정책의 차별

성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우선적인 이유로 꼽힐 수 있다. 평생교육원은 그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직’에 의해 원장이 2년 임기로 교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관의 초대 설립자가 목표를 여성교육의 확대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어느 여자대학의 경우, 교육목적은 “일반여성들에게... 사회교육 정신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문화적 의식을 높여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운영의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지침은 없다. 따라서 원장은 추상적인 교육목적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무리가 없는 선상에서” 교육을 진전시키게 된다.

원장의 영향력은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다. 한 대학의 평생교육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자.

기관을 이끌어가는 거는 원장님의 영향이 거의 90%라고 봐요. 너무 너무 중요해요. 줄기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제안을 하더라도 여기가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제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최종 승인을 받는 거는 원장님께 승인을 받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아래 실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올렸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고,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원장님들 중에는 이게 아무래도 보직이고 이러시니까, ‘뭘 그냥 새로운 걸 하나... 그냥 있는대로 운영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그걸 올려도 소용이 없어요.

원장의 소견 및 능력에 따라 평생교육원 운영은 상당한 편차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역시 원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자는 프로그램의 선정부터 강사 섭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자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가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렇게, 원장의 권한은 상당한 편이지만 지속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보직 체제 속에서 정해져 있는 기관의 목적에 따라 부분적인 경영상의 변화를 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평생교육원은 더욱더 근시안적인 경영을 해나가게 된다. 따라서 실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사실 원장님은 관념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무자는 아니죠. 강사를 섭외하고 수강생들이랑 지내면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죠.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원장님은 거의 명목상으로만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관여하려면 모든 강좌의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성격은 많이 바뀌지요.

이런 구조는 성인지 의식이 없는 원장에 의해서는 여성주의적 교육이 평생교육원에서 실시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여성주의적 내용을 담은 교육은 시장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책임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낮은 시장성에도 불구하고” 유치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실상 책임있는 경영층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적 이익을 보장하지도 않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몇몇 대학에서 여성주의적 교육목적을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주의적 교육이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것은, 원장의 성인지의식 결여와 단기 보직체제에도 기인한다. 독자적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 2년의 보직체제 속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전문화된 교육기획력 부족

최종적으로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위는 평생교육원의 운영팀이다.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운영팀의 역량이 이를 받혀주지 않는다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적합한 교육은

실시되기가 어렵다. 문제는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 평생교육원의 구조를 보면,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팀은 대개 3-4명의 행정직원과 1명의 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교육원의 방향을 끊임없이 조율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며,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적합한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일은 교육적 상상력을 갖춘 기획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문사회과학적 식견과 홍보력, 평생교육에 대한 감수성이 요청된다. 아직까지 평생교육사 배치가 보편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 있는 교육기획 및 운영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은 교육프로그램 기획보다는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3-4인의 팀원들은 사무직 여직원으로서 학습상담 및 등록업무를 담당한다. 학점은행제가 운영중인 대학의 경우, 학점은행제 운영방식과 학습자에 적합한 학습상담을 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강 직전에 학습상담은 상당한 업무량을 차지한다. 등록 역시 매년 천 명 이상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므로, 매학기 등록 시기에는 행정 업무만도 과중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강생의 등록관리와 수강생에 대한 상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의 방향을 학습자와의 만남 속에서 조율해 가는 과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수강생가운데 여성이 절반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무진들은 입을 모아 ‘여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여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팀원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싶어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한다.

(우리일은) 자기 개발 쪽을 할 그런 게 많지는 않아요. 여력이 없어요. 개별적으로 해야되죠.... 학기초랑 학기말이랑 빼고는 아주 바쁜 것은 아닌데요. 시간을 완전히 빼기가 힘든 거예요. 대학원이나 그런데 가서 자기개발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가야하는데 그게 안되는거예요. 언제 일이 몰릴지 모르니까.

대부분이 여성인 수강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성인지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식과 전문적 교육기획력을 갖춘 교육조직자, 교육운영자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적 전문성을 가지고 성인지적 교육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력의 확보와 기존 직원의 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요약

대학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면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사와 분석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대학평생교육원 교육의 일반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기관 운영에 여성을 어느 정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와 현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학습자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의 성인지성을 양적으로 조사하고 해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는 이를 면담조사로 보완하기로 하고 성인지성의 양적 평가를 시도해보았다.

기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관계자들은 대학평생교육원의 현재의 중점 교육영역으로 직업교육과 취미교육을,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으로 직업교육과 시민교육을 들고 있다. 직업교육은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고 대학평생교육원이 시민교육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대학과 2년제 대학은 남녀공학대학과 4년제 대학에 비해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중점 영역인 취미교육은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 여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가하는 성인지성은 ‘정부 및 대학의 여성관련 정책, 인력의 성 의식, 프로그램 및 학습지원환경의 여성고려성, 교육성과 평가방법에 있어서 성의 고려’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각 성 분석 항목은 구체적인 성 분석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항목별로 평균값을 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지표 중 성 분석 질문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문항들은 배제하고 아래의 값을 구하였다. 해석의 기준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2)”와 “대체로 그렇다(3)”를 기준으로 평균값이 2.5 이상 또는 3 이상을 “대체로 그렇다, 성인지적이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평균값 3 이상을 “대체로 그렇다, 성인지적이다”로, 2.5 이상 3 미만은 “약간 성인지적이지 않음”, 2.5 미만은 “대체로 성인지적이지 않음”으로 해석하였다.

<표 V-51>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 평가(기관)

성 분석 항목	평균	해석
정책의 성인지성	2.04	대체로 성인지적이지 않음
인력의 성인지성	2.91	약간 성인지적이지 않음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2.92	약간 성인지적이지 않음
학습지원환경의 성인지성	2.37	대체로 성인지적이지 않음
성과평가방법의 성인지성 (18번 문항 배제)	2.14	대체로 성인지적이지 않음
전체	2.48	대체로 성인지적이지 않음

이 결과를 보면, 정책의 성인지성이 가장 낮고, 프로그램 개발에 비해 성과평가지 여성에 대한 고려정도가 더 미약하다. 인력의 성인지적 의식도 약간 낮으며, 학습지원환경도 여성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미약하다. 특히 남녀공학대학 정책의 성인지성이 낮은 것이 정책의 전체 성인지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하였다. 학습지원환경에 있어서는 탁아서비스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얻었으며, 평가시 여성에 대한 영향평가가 대체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2.48로 “대체로 성인지적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비해 학습자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이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영역은 직업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대와 30대는 직업교육에 40대와 50대는 취미와 교양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학평생교육원에서 받기를 원하는 교육은 연령별, 직업 및 결혼 지위별, 학력별로 차이가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여 50대에 급감하였고, 30대 이상은 직업교육보다 취미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였다. 미혼여성은 직업교육, 주부는 취미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많고,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는 여러 집단 중 전업주부가 가장 크다. 또한 고졸자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 현재 참여 실태와 비교할 때 시민교육, 의식교육, 취미교육에 대한 요구가 현재의 참여율보다 높아,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요구가 더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학습자들은 대학평생교육원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육영역으로 직업교육과 시민교육을 꼽고 있으나, 개인의 향후 교육요구는 이와 차이가 있다. 즉, 시민교육이 대학평생교육원의 주 기능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데 21.6%가 응답했으나 향후 시민교육에 대한 참여요구는 10.8%로 나타나고, 이는 의식교육과 교양교육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취미교육이 대학평생교육원의 주 기능이어야 한다는 데 20.8%가 응답했으나 교육요구는 27.9%에 달해, 이는 대학평생교육원이 현실적으로 시민교육이나 의식교육, 교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드러낸다. 즉, 사회봉사적 소명의식

을 갖고 시민교육과정을 개설해도 수강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응답자 중 학습을 중도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37% 정도였고, 그 원인에는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다. 20대는 교육내용의 부적절성과 흥미 상실, 30대와 40대는 교육시간의 불편, 50대는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다. 30대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사(육아)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대학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중도포기 이유에 대해 학습자들과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의 51.4%가 교육내용과 시간상의 문제로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기관 관계자들은 불과 21.9%만이 이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여성의 가사부담과 의지 부족을 더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기관이 교육내용과 시간에 대한 학습자 불만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에 대한 여성학습자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V-52>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성인지성 평가(학습자)

성 분석 항목	평균	해석
인력의 성인지성(13번)	2.95	약간 성인지적이 아님
프로그램의 성인지성(6~9번)	2.74	약간 성인지적이 아님
학습지원환경의 성인지성(10~12번)	2.24	대체로 성인지적이 아님
성과의 성인지성(18~22번)	2.61	약간 성인지적이 아님
전체	2.64	약간 성인지적이 아님

여성학습자의 시각에서 볼 때, 대학평생교육원의 여성고려 정도는 전체적으로 ‘약간 성인지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학습지원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는 역시 탁아서비스 미흡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여자대학이

공학대학보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성과에 있어서도 여자대학 평생교육원 교육에 대한 여성학습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이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의식, 능력, 지위 향상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평생교육원, 특히 남녀공학대학은 현재 여성의 요구 반영, 프로그램의 여성관련성, 학습환경의 여성친화성, 운영 인력의 성의식, 여성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교육원 운영에 있어 여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에 있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적 기여의 필요성과 방안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지 못한 점, 대학의 여성에 대한 무관심, 기관장을 포함한 운영 인력들의 여성의식 부족 등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원 운영의 물성적 접근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성을 기관 운영의 주요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가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다만, 여자대학의 경우는 교육이념상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 공학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평생교육원은 여성의 전문적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여성의식 제고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기회 제공, 사회의식 제고를 통해 여성의 경제력과 세력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지적 접근이라는 뚜렷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결과라기 보다는 대학평생교육의 전문화, 상업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부수적으로 혜택을 입게 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다양한 전문직업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참여여성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여성취향 직종에 집중된 직업교육영역의 제한성, 의식교육 기회나 사회적 지도력 개발 기회의 미흡, 기관 운영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인식의 미비, 대학평생교육원의 이윤추구 경향 등은 대학평생교육원이 대학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189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194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의 발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에는 교육과 사회봉사라는 초기 이념 외에 이윤추구라는 현실적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근래에는 사회기여보다 이윤추구가 더 실질적 목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연구자는 대학평생교육원이 사회의 여러 평생교육시설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크다고 보고, 이러한 교육시설을 여성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이라는 전문적 교육기관을 통해 여성의 의식과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여 현재 여성의 낮은 직업지위와 사회참여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생교육원을 보다 성인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즉,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성별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에 성(gender)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성인지적이란 “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므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논의의 목적에 따라 어느 한 성에 초점을 두고 그 성을 기준으로 분석과 논의를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접근을 성특화적(gender-specific) 접근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대학평생교육원이 현재의 주요 참여집단이면서 사회적으로는 낮은 지위에 처해 있는 여성의 교육을 통해 양성의 사회적 평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연구의 초점을 여성에 두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여성특화적” 연구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내 대학평생교육원의 실태 및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일반적 및 여성관련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초기에 민주시민 의식과 교양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계몽적 접근에서 성인들의 전문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력개발적 접근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성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직자교육 등 정부의 위탁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강조 정책 등 현실적 요구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돈을 내고 등록하기는 쉽지 않은 교양이나 의식프로그램에 비해, 필요할 경우 기꺼이 등록할 수 있는 영역이 직업교육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평생교육원 참여교육 및 향후 교육요구 1순위도 직업교육으로 나타난다. 여성평생교육의 주 목표도 “훌륭한 주부(신부)”에서 “능력있는 여성”으로 변화였고, 여성들은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적 통제력을 갖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교육이 직업능력 제고나 취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즉, 직업교육 만족도는 낮은 편이어서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교육 영역은 요리, 양재, 미용, 간호, 보육 등 현재 여성이 비교적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위주의 직업교육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여성의 진출이 어려운 직업 영역을 개척하는 데 있어 대학평생교육원이 기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여성의 즉각적 현재의 요구만을 교육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여성을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직업적, 사회적 영역으로 진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들과의 차별성도 갖지 못하게 하고, 기술학원들과의 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방함으로써 일반지역주민에게도 고등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했던 초기 대학확장 이념은 지역사회에 자금을 대학의 수익자원화하고자 하는 상업주의적 접근의 강화로 변질되었다. 즉, “봉사”에서 “장사”로 목적이 변화한 것이다. 여성교육의 경우도 여성의 의식과 능력 개발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목적보다는 여성을 “평

생교육소비자”로서 간주하고 여성이 소비하고 싶어할 교육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상업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여성취향적, 실용적 직업교육이나 취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판매율을 높이는 전략은 상업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여성의 독립적, 비판적 의식을 제고하거나 사회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등의 교육은 판매, 소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즉, 대학이 여성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자원을 투자하기 보다 여성이 소비자로서 대학재원을 보조하는 상황으로 역전되고 있다.

셋째,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의 시행으로 대학평생교육원은 대안적 학위수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여성은 대학평생교육원을 통해 학위취득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학평생교육원에서의 학점, 학위, 자격증과정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외국은 우리와 같이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를 매개로 하지 않고 대학평생교육원에서 본 대학과의 연계하에 일부 전공의 학위과정을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 및 타 대학의 과정으로 연계되기도 하는 등 일반대학과정과의 학점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일반대학과정과의 학점 교류 및 자체 학위과정 운영은 어려운 실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계속교육 구현기회는 일반대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는 못하다.

넷째, 대학평생교육원의 유형을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전문직업교육형, 사회봉사교육형, 의식교육형, 여성교육형으로 분류해 보았는데, 시민교육이나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도 여성강좌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여성특화적 접근은 역시 여자대학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기관운영 및 인력의 성인지성에 있어서도 여자대학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대학들이 비교적 여성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여성친화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공학대학은 여성의 요구 반영, 프로그램의 여성관련성, 환경의 여성친

화성, 운영 인력의 성의식, 여성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교육원 운영에 있어 여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평생교육정책에 있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적 기여의 필요성과 방안을 충분히 명시하고 있지 못한 점, 대학의 여성에 대한 무관심, 기관장을 포함한 운영 인력들의 여성의식 부족 등이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원 운영의 몰성적 접근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성을 기관 운영의 주요 준거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가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여자대학의 경우는 교육이념상 여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 공학대학에 비해 여성 학습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자대학 역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는 성인지적 접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였다. 여성교양 강좌는 아직도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주로 관련되어 있어 여성으로서의 성의식, 정체성 확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직업교육 역시 대체로 전통적 여성직종만 다루고 있어 직업구조의 성별 분리체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

다섯째, 여성들은 대학평생교육원에서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상호교류의 과정에서 여성의식 제고 및 세력화를 이루고 사회참여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는 남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업주부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미약한 여성직업인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평생교육원내 또는 대학내의 세력화로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고, 사회문제나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하는 사회적 세력화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III장에서 제시한 성 분석의 네 차원 즉, 여성의 삶의 영역, 요구, 권한, 성평등 기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 대학평생교육원은 교육내용에 있어 과거 여성의 재생산 영역(가사, 육아,

가정관리 등)으로부터 생산 영역(경제)으로 강조점을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 생산의 일부 영역(전통적 여성지배 영역)에 관심이 국한되어 있으며 사회관리 영역(사회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통제)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지는 못하다.

- 여성의 요구 반영 수준은 현재 필요한 즉각적 요구를 주로 반영하고 있고 불평등한 사회적 성별관계의 전환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요구의 반영은 미흡하다.
- 또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직업과정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나 취업기회에의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을 제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여성의 삶의 복지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성의 의식화나 사회참여, 통제권을 확보하는 수준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성평등 구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학평생교육원이 초기의 계몽적 접근이건 현재의 상업적 접근을 통해서건 남성과 여성들에게 대학내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여의 측면이나 정도는 개인의 삶을 의식적 차원에서나 직업적 차원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룰만큼 효과적이거나, 사회적 성별관계의 평등성을 제고할만큼 성인지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에 비해 대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며, 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런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대학평생교육원은 일반 기관들처럼 상업성만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대학평생교육원이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보다,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더욱 고려해야 하며,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의식 및 지위, 삶의 양식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없는 교육영역을 대학들이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현재적 요구만이 아닌 미래적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여성발전을 선도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평생교육원의 의식과 접근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에 있어 여성이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 또는 여성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성의 성장을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숙고하여, 대학이 여성의 일시적인 요구만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발전과 전환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은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 성별관계의 평등성 제고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기관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가. 정부 정책

정부는 사회적 성형평성 제고의 주요한 전략 기관으로서 대학평생교육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1) 평생교육법에 여성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고, 평생교육정책 개발시 여성정책을 소외계층 정책으로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탈피하여, 모든 평생교육정책에서 여성관련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평생교육정책의 성주류화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대학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평생교육원 운영자들은 정부 정책에서 여성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에는 관련법, 관련정책, 대학

평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권고 등이 포함된다.

-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제25조에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여성을 특별히 언급한 조항은 없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배경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법 각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으나, 평생교육기회 격차 해소의 차원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필요하다. 현행 평생교육법 중 다음 조항에 여성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에는 평생교육기회의 균등, 학습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 정치적 중립성,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포함되어 있다. ①항 기회의 균등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로 균등하게 평생교육기회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항의 정치적 중립성외에 “평생교육은 성, 연령, 지역, 학력, 장애에 의한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개입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 연령, 지역, 학력, 장애로 인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평생교육기회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의지와 방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정책개발 및 집행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현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 영역에 ‘여성평생교육 진흥’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 전체를 소외계층으로 분류하기보다 모든 평생교육정책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정책을 병행하여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성 주류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과 여성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여성부의 공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정책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관할 업무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대학평생교육원 정책을 포함한 전체 평생교

육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들이 여성의식과 성평등의식 확산,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통제력 증대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대학평가지표에 대학평생교육원의 공공 기여도(성평등, 취약계층 지원 등)를 포함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회의 2001년도 ‘대학종합평가편람’에 의하면, 학부 평가 영역의 교육 및 사회봉사영역 중 사회봉사부분에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체제’ 평가항목이 있다. 평가기준은 “대학은 대학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은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이다. 해당 평가항목의 내용은 “질 높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는 적절한가”이고, 평가지표로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비율, 사회교육프로그램별 평균 학생수, 사회교육지원체제의 적절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VI-1> 대학학부 평가부문 중 사회봉사 부문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3.4 사회봉사(20)	1.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체제(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비율 · 사회교육 프로그램별 평균 학생수 · 사회교육 지원체제의 적절성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대학종합평가편람

즉, 학점은행제 비중과 프로그램별 학생수가 주요 평가 지표로, 이를 따르면 대학평생교육원은 향후 학점취득과 학생이 몰리는 인기프로그램 위주의 접근을 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원의 방향을 편중되게 유도할 우려가 있다. 개별 대학들이 상업적 접근을 취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나 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기관은 평생교육이 사회적 공공성을 구

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점취득 외에 시민교육, 교양교육과 같이 경시되기 쉬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학생등록율을 기준으로한 평가 외에 사회성, 공공성을 갖춘 프로그램들이 적정 비율 포함되어 있는가 등 공공성 구현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원의 성평등기여도는 이러한 공공성 구현 지표들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인력(평생교육사 등)의 여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대학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행정인력이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교육전문성의 문제로 나타난다. 대학평생교육원에는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서 여성전문성과 성인지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의 주요 대상이 여성인데도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서 여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양성과목 중 현재 선택과목인 여성교육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평생교육원 운영 인력의 여성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센터, 남녀평등교육센터(설립 예정)를 통해 평생교육 종사 인력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의 교육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여성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기관장(대학평생교육원장)의 성인지적 의식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조사결과 대학평생교육원장의 90%이상이 남성으로 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남녀평등교육센터(설립 예정)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성인지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양성평등적 또는 사회적 성별관계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대학평생교육원이나 평생교육기관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장 근무자들은 전문적 능력 부족, 시간 부족, 영리추구를 우선시하는 기관방침상 공익적 프로그램 개발에 헌신하기 어렵다. 프로그램전문 연구기관에 개발을 의뢰하거나,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여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식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어 기관에서 개발과 운영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성별관계의 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직접 개발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의 격려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 21조(평생교육)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제②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여성부는 대학평생교육원을 포함한 평생교육기관들에서 여성의식 및 남녀평등의식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들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5)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들이 대학의 전문적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 감면, 대부, 장학금 혜택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에는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주 고객이다. 현재 시행중인 노년층 수강료 할인이나 무료 정책처럼 저소득, 저학

력 여성들도 대학평생교육원의 수준 높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대학평생교육원들이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대학평생교육원에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성인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탁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립비용이나 교사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나.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기관 전략

대학평생교육원들은 성인지적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성별 교육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 학습자의 교육요구 및 지원요구 사항을 파악할 때, 성별로 어떤 요구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구조사시, 학습자조사는 물론 여성문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여성의 현재적 요구만이 아닌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요구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내 집단간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여성집단, 남성집단 내의 연령별, 학력별, 사회적 지위별 교육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40대 이하 여성은 직업전문교육의 요구가 크고, 50대 이상 여성은 취미교육, 그리고 주부와 저학력 여성은 여성의식교육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요구의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 교육요구 외에 학습 장애 요인, 애로 사항을 집단별로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자녀양육기 여성은 가사부담, 노년기 여

성은 학습비 부담 등이 교육포기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프로그램 시간 편성과 구성을 다양화하여 여성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 낮 시간대의 교육 위주로 취업여성의 참여가 어렵다.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교육 제공시간의 불편함이 중도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업여성의 편의를 위해 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하나의 프로그램도 세부 단위로 나누어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단위씩 이수할 수 있는 모듈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는 휴가기간에 단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중과정, 단기과정도 필요하다. 개별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원격교육으로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공자 편의 위주의 시간 편성을 학습자 편의 위주로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주5일제 시행으로 주말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 단계별, 수준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주의적, 학습자중심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교육내용과 자료는 여성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성의식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직업, 교양, 취미 모든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삶을 다룰 경우 부수적으로 의식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성인들은 자신의 문제와 경험이 소재가 될 때 공감이크므로 여성프로그램은 여성의 삶에서 소재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교육내용과 방법에 학습자 참여를 허용하고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 탄력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성인교육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면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 융통성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탈락자없이 교육을 끌고 나갈 수 있다.

4) 성인 및 여성상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본 연구의 조사결과, 학습자의 의지 부족이 중도포기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졸업후 결혼, 육아, 취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후 학습에 복귀할 경우, 학습에 대한 자신감 상실, 의지 약화 등의 심리적 상태에 빠지기 쉽다. 프로그램 상담부터, 등록, 참여, 이수 전 과정에 학습자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돕도록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 대학의 경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가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대상자를 평생교육원의 성인학생들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는 성인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성인여성들은 성인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애로 사항이 있으므로, 일반 학생과는 다른 성인상담, 여성주의 상담의 접근이 필요하다. 상설적인 상담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성인학습자를 위한 워크숍’과 같은 단기적 상담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성회관 등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기관에 대학평생교육원 안내책자를 비치하거나 정기적인 파견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상담과 홍보가 필요하다.
- 학습 중간에 당면하는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전문 상담원은 물론, 프로그램 선행 이수자들과 연계를 통한 동료 상담(peer counseling)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질감에 바탕을 둔 상호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효

과적이다.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학습자의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5) 다양한 입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원에 처음 등록하는 학습자를 위해 학업적성 상담, 프로그램 선택 상담, 경력상담 등 학습 초기 단계의 의사결정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상담이 중요하다. (교육준비 프로그램, pre-entry program, re-entry program)
- 이 단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기초학력보완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적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6) 생애학습설계를 하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자가 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학습에 참여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단기 또는 장기 생애학습설계를 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 학습을 목적으로 평생교육원에 온 학습자라 하더라도, 장기 학습을 설계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자가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고 일시적이 아닌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여성의 직업경력 창출 및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0대부터 40대에 해당하는 여성은 직업능력 제고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대학평생교육원은 제공하는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기대가 커, 여성들의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학평생교육원의 전문직업교육 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다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 차별화되도록 직업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대학평생교육원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은 대체로 다른 기관들과 프로그램 유형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 여성회관, 인력개발센터, 문화센터 등

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준과 최고의 전문적 교육을 자랑하는 대학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체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온 분야에 국한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이수후에 고소득 전문직보다는 비정규직, 저소득으로 연결되기 쉬운 프로그램들이 많다. 대학마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전문적 직업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대학평생교육원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 제고나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이 당면한 이윤추구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진출이 가능하고 필요한 직업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직업지위의 성평등성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대학은 여성들의 진출이 제한되어 온 직급과 영역에 여성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직업교육의 영역을 개발하여 타 기관과 교육수준이나 프로그램 내용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학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 취업, 재취업, 직업 전환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직업적성 검사, 성격 검사 등을 통한 직업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여할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성과 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적 검사, 직업탐색 워크숍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여성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와 직종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직업 선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말을 활용해 취업여성들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부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말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8) 여성의 의식 및 남녀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 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을 수록 여성의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전업주부, 저학력 여성의 경우도 그러하다. 여성으로서 주체적 의식을 갖는 것은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의식교육은 교육에의 지속적인 참여나 학습의지, 성과, 향후 학습의 튼튼한 토대가 된다.
-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독립 프로그램, 필수프로그램, 특강 등의 방법으로 여성의 의식교육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루하지 않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성의식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비디오, 영화, 소설, 시,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학습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글쓰기, 필름 제작프로그램, 연극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자격증과정에 성의식교육을 필수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가족단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남녀 학습자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가족, 조직, 사회의 성평등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독립 프로그램 또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다. 여성은 물론 남성의 문제도 다룸으로써 양성 모두가 서로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대학내 일반과정과의 교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일부 과정에 한하여 대학의 정규 과정에 수강 또는 청강을 허용하거나 학위과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

며, 이는 평생교육원의 위상과 참여동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0) 여성간 네트워크 구축, 세력화를 도모하도록 도와야 한다.

- 학습 참여자 및 이수자간 연계를 통해 학습애로를 함께 극복하고 여성으로서의 인식과 문제를 공유하여 함께 여성문제 및 사회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은 원내 압력집단이나 친목모임 수준의 교류를 과정수료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나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여성문제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생산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1) 평생교육원 교육의 성과평가지 성별 영향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 교육이 참여자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했는지, 여성의 의식 제고에 기여했는지, 사회적 직업지위 취약집단(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지위 향상에 기여했는지, 사회활동에 참여할 능력을 배양하고 기회를 부여했는지, 궁극적으로 사회적 성별관계의 평등성 제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의 준거로 고려해야 한다. 성인지적 평가를 위해 평가 과정에 여성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12) 취약계층 여성들도 교육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 취약계층여성의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일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저소득, 저학력, 장애, 노년여성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 학습비 감면 및 지원, 학습애로 상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경제력, 학력에 따라 수강료를 차등 책정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도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장학금 혜택을 평생교육원생들에게도 확대하거나 학비를 대부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13) 탁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조사결과 대학평생교육원의 탁아서비스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 여성들의 교육참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교육 중 탁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4) 성인친화적, 여성친화적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도서관 등 대학시설을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어느 한 성이 다수인 곳에서는 소수인 성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대학평생교육원이 현재보다 여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참여율은 높으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대학 스스로가 대학평생교육원을 통한 이윤추구보다 사회적 소명의식을 갖고 소외계층이나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학들이 그러한 교육적 접근을 하도록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의식교육이나 시민교육과 같은 공익적 프로그램에는 대학의 희생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지적 접근은 원래 양성의 평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남성도 대학평생교육원을 통해 의식과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성의 평등한 발전,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에 대학평생교육원이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1997). “대학평가와 대학사회교육원 활동의 상관성”. 『사회교육학연구』 3(2). 129-149.
- 곽삼근·김재인·최운실·김경희(2000). 『여성의 평생교육기회 격차 분석』. 교육부.
- 교육부(1997). 『평생교육백서』.
- 권두승(2001). “대학 평생(사회)교육원의 인적자원개발”. 『민간 부문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 정책포럼 자료집.
- 김신일(2000). “대학평생교육 발전방안”.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새교육공동체위원회·한국평생교육학회 세미나 자료집.
- 김재인·박성정·정윤수·정경아(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계명대학과 사회교육연구소 편(1981). 『시민교육사업 10년 개요』.
- 나영선·이수경(2000). 『여성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부.
- 박성정(미간행).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학점은행제 정착화 방안 연구』.
- _____(2002). “대학평생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 분석 모형”. 『평생교육학연구』 8(1). 97-119.
- 변화순·김재인·박성정·송다영·오현석·김정섭(2001).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 분석』. 농림부.
- 신용주(1999).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영국 대학의 과제: 디어링(Dearing)의 참여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교육학연구』 5(2). 141-159.
- 양병찬(1995). “영국 고전대학의 개혁과 대학확장 제안”. 『사회교육학연구』 1(1). 141-159.
- 양병찬(2000). “대학 평생교육원의 일반 성인교육 위탁 프로그램 운영 방안”,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새교육공동체위원회·한국평생교육학회 세미나 자료집.
- 여성정책연구회(2000).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
- 윤미란(1997). 『한국 대학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윤여각(2000). “대학 평생교육원과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체제 구축 방안”,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새교육공동체위원회·한국평생교육학회 세미나 자료집.

- 이혜경, 신영화(2000). 『보건복지사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지침』. 보건복지부.
- 정지선 · 차갑부 · 전현중(1999). 『성인교육참여율과 성인교육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부.
- 최돈민 · 이희수 · 윤여각(1999). 『평생교육요구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돈민(2000). “대학평생교육과 대학 정규교육의 연계 방안”.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대학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새교육공동체 세미나 자료집
- 최옥이(1999). 『한국 대학 평생교육의 미래 예측』. 동국대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 『대학종합평가편람』.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2001). 『협의회요람』.
- 한국여성개발원(2001). 여성통계연보.
- Blyth, J. A.(1983). *English university adult educ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ourgeois, E., Duke, C., Guyot, J. & Merrill, B.(1999). *The adult university*. Buckingham: SRHE and Open University Press.
- Einsiedel, A. A.(?). “Changes and emerging trends in the CE function and university campuses”. *Canadian Journal of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24(1). 9-24.
- Guessner, Q. H.(ed.)(1987). *Handbook on continuing higher education*.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Gurumurthy A.(1998). *Women's rights and status: Questions of analysis and measurement*. UNDP.
- Haughey, D.(1998). "From Passion to passivity: The decline of university extension for social change". in S. M. Scott, B. Spencer, & A. M. thomas(eds.). *Learning for life*. Toronto: Thompson. 200-212.
- Hodgson, A.(ed.)(2000). *Policies, politics and the future of lifelong learning*. London: Kogan Page.
- Lauzon, A. C.(?). “University extension and public service in the age of economic globalization”. *Canadian Journal of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26(1). 79-95.
- Lewis, R.(1992). "What is open learning", in A. Tait(ed.). *Key issues in open learning*. Essex: Longman. 11-23.
- _____(1994). "Embedding open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in M. Thrope, & D. Grugen(ed.). *Open learning in the mainstream*. Essex: Longman. 17-26.
- Longwe, S. H.(1999). "Monitoring and evaluating women's educational

- programmes: Concepts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C. Medel-Anonuevo(ed.). *Breaking Through: Engender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adult education*. UNESCO. 5-30.
- Lowntree, D.(1992). *Exploring open learning and distance learning*. London: Kogan Page.
- Medel-Anonuevo, C.(ed.)(1999). *Breaking Through: Engender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adult education*. UNESCO.
- Miller, C. & Razavi, S.(1998). *Gender analysis: Alternative paradigms*. UNDP.
- Moser, C.(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O'Connell, P. J.(1999). *Adults in train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CERI. OECD
- OECD(2001). *Education policy analysis*.
- Oglesby, K. L, Kranjnc, A. & Mbilinyi, M.(1989). "Adult education for women". in C. J. Titmus(ed.).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Oxford: pergamon press. 322-333.
- Overholt, C. A., Cloud, K., Anderson, M. B.,& Austin, J. E.(1991). "Gender analysis framework". in A. Rao, M. B. Anderson & C. A. Overholt(1991) (eds). *Gender analysis in development planning*. Connecticut: Kumarian Press.
- Parker, A. R.(1993). *Another Point of View: A manual on gender analysis training for grassroots workers*. UNIFEM.
- Paul, R. H.(1990). *Open learning and open management*. London: Kogan Page.
- Pugsley, R. S.(1999). "Lifelong learning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converging perspectives". in A. Tuijnman, & T. Schuller(eds.).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research*. London: Portland Press. 129-141.
- Rao, A., Anderson, M. B.,& Overholt, C. A.(eds.)(1991). *Gender analysis in development planning*. Kumarian Press.
- Rice, J. K. with meyer, S.(1989). "Continuing education for women". in S. B. Merriam & P. M. Cunningham(eds.).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550-563.
- Status of Women Canada(1995). *Setting the stage for the next century: The 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
- Status of Women Canada(1998). *Gender-based analysis*. Ottawa.
- UNDP(2000). *Budgets as if people mattered*.
- UNDP(2001). *Learning and Information Pack*.

www.city.ac.uk
www.cont-ed.cam.ac.uk
www.warwick.ac.uk
www.nucea.edu
www.extension.usask.ca
www.extension.ualberta.ca
www.cstudies.ubc.ca
www.stfx.ca
www.nyu.edu
www.scps.nyu.edu
www.dce.harvard.edu
www.msue.msu.edu
www.unex.berkeley.edu
www.gactr.uga.edu
www1.uwex.edu
www.dcs.wisc.edu
www.swc-cfc.gc.ca
www.mwa.govt.nz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원 www.korea.ac.kr/~kuice
계명대학교 comeschool.kmu.ac.kr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www.daegu.ac.kr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www.duksung.ac.kr/~adult
동덕여자대학교 여성사회교육원 www.dongduk.ac.kr/~kywon/index.html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ace.mju.ac.kr/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www.sogang.ac.kr
성공회대학교 민주사회교육원 사회교육센터 green.skhu.ac.kr/~sea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sookmyung.ac.kr/~ug9139/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www.yonsei.ac.kr/socio/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ome.ewha.ac.kr/~sce/
평생교육센터 ncle.kedi.re.kr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회 www.eaku.or.kr/



부 록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기관 설문 조사	21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학습자 설문 조사	218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기관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002년 기본과제로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의 의식과 능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자 및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의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진에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신 조사지는 여성개발원 박성정 앞으로 6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동봉한 회송용 봉투 사용). 감사합니다.

2002. 5

연구진 : 박성정, 정민승, 김영희
전 화 : 356-0070(교환) 302/271
e-mail : sjpark@kwdi.re.kr
f a x : 384 -7164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우 122 -707)

I. 일반적 질문

1. 귀 기관이 속한 대학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남녀공학대학 ② 여자대학
2. 귀 기관이 속한 대학은 몇 년제 학교입니까? ()
① 2년제(3년제) ② 4년제
3. 귀 기관의 설립 년도는? ()년
4. 귀 기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여성수강생 비중은? ()
① 2/3 이상 ② 1/2 이상 - 2/3미만
③ 1/3 이상 - 1/2미만 ④ 1/3 미만
5. 다음은 프로그램의 내용 영역입니다. 이 프로그램 영역 중 귀 기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영역은 몇 번입니까? (1, 2순위까지만 표시)

영역	순위
① 시민교육(시민, 정치, 경제, 환경, 사회의식 등)	
② 여성의식(여성의식, 성평등)	
③ 교양(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④ 취미(건강, 음악, 예술 관련)	
⑤ 직업(자격증 과정 등)	
⑥ 어학	
⑦ 기타	

6. 위 프로그램 영역 중 귀 기관(대학평생교육원)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영역은 몇 번입니까? (한 가지만 번호로 기재)
() 번

II. 평생교육원 성분석 질문

※ 다음은 대학 평생교육원의 성인지성(여성고려정도)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지표(질문)를 읽고 귀하의 의견을 오른쪽 해당 번호에 v표시해 주십시오

분석항목	지표(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 정책	1.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을 위한(여성을 고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있다	4	3	2	1
	2.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을 위한(여성을 고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있다	4	3	2	1
	3. 소속 대학이 여성의 교육과 발전을 중시하는 교육방침을 갖고 있다.	4	3	2	1
나. 인력(인식)	4. 기관장(원장)은 대학평생교육이 여성에 기여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4	3	2	1
	5. 기관장(원장)은 주요 의사결정시 여성을 고려한다. 또는 여성의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편이다	4	3	2	1
	6. 강사 및 직원들은 여성문제와 여성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4	3	2	1
다. 프로그램/ 교육활동	7. 우리 기관은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4	3	2	1
	8. 프로그램 개발에 여성들간(연령별, 소득별, 학력별, 지역별 등)의 요구 차이도 고려하려고 한다.	4	3	2	1
	9. 교육내용 및 자료 구성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 자립심 고양을 주요 목적으로 고려하는 편이다.	4	3	2	1
	10. 교육내용 및 자료 구성에 있어 여성의 삶과 경험을 고려한다.	4	3	2	1
	11. 교육방법에 있어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3	2	1
	12. 교육시간 편성시 여성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고려한다	4	3	2	1

분석항목	지표(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라. 학습지원 환경	13. 여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에 노력한다.	4	3	2	1
	14.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휴게실, 편의시설 등).	4	3	2	1
	15. 탁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3	2	1
	16. 학습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3	2	1
	17.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	3	2	1
마. 성과평가	18. 시민의식이나 여성의식 프로그램의 등록 및 이수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은 편이다.	4	3	2	1
	19. 프로그램이 여성에 미치는(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4	3	2	1
	20. 평가에 여성문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4	3	2	1
바. 기관의 요구	21. 우리 기관은 현재보다 여성에 대한 기여 및 배려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3	2	1
	22. “여성에 대한 기여 증대를 위해” 직원연수(성평등교육, 여성이해교육 등)가 필요하다	4	3	2	1
	23. 여성의 요구, 경험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3	2	1
	24. 여성을 고려한 시간편성, 내용 및 방법 구성이 필요하다	4	3	2	1
	25. 탁아서비스가 필요하다	4	3	2	1
	26. 학습정보 및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4	3	2	1
	27. 여성(의식)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4	3	2	1
	28. 여성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이나 방침의 제시가 필요하다.	4	3	2	1
	29. 대학의 장이나 기관장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4	3	2	1
	30. 직원이나 강사들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	4	3	2	1

Ⅲ. 기타 성 분석 질문

1. 다음 중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여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강조(예: 대학평가지표에 반영, 정부의 권고, 지원 등)
 - ② 소속학교의 특성, 교육 방침(예: 여자대학, 여성학과의 존재)
 - ③ 기관장(원장)의 관심, 의식
 - ④ 직원, 강사들의 관심, 의식
 - ⑤ 기타:(구체적으로 써주세요)

2. 귀 기관의 기관장(원장)의 성별은?()
- 1) ① 여성 ② 남성
- 2) 기관장의 성이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3. 귀 기관에 여성의 의식, 능력과 권한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 1) ① 있다 ② 없다
- 2) 있다면, 그 사례는?(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주제를 써주세요)
- 여성의식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 있는 프로그램:

 - 기타 프로그램:

4. 여성들이 교육 중간에 탈락(포기)하는 경우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교육 내용의 부적절성, 흥미 유발 실패
- ② 교육참여 시간의 불편
- ③ 가사 부담(육아포함)
- ④ 가족의 이해 부족
- ⑤ 학습비 부담
- ⑥ 여성학습자 자신의 의지부족
- ⑦ 기타

5.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에 대한 기여를 증대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나 정책적 조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래에 제안하여 주십시오

6. 응답자의 직책은? ()

- | | |
|----------------|--------------|
| ①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 ② 강사, 교육전문직원 |
| ③ 일반행정직원 | ④ 경영자, 원장 |

7. 응답자의 성별은? ()

- | | |
|------|------|
| ① 여성 | ② 남성 |
|------|------|

☘ 감사합니다 ☘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학습자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002년 기본과제로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의 의식과 능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육받고 계신 여성학습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의 각 문항에 빠짐 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지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진에게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신 조사지는 대학평생교육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 5

연구진 : 박성정, 정민승, 김영희
전 화 : 356-0070(교환) 302/271
e-mail : sjpark@kwdi.re.kr
f a x : 384 -7164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1-363 (우 122 -707)

3) “부족했다”고 답하신 경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 ② 의욕, 의지가 부족했다.
- ③ 시간이 부족했다.
- ④ 경비가 부족했다.
- ⑤ 기타(구체적 이유를 써주세요):

5. 앞으로 여성의식 관련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 ①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② 약간 참여하고 싶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관심없다.

6. 앞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② 약간 참여하고 싶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관심없다.

7. 귀하께서는 교육을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① 있다. ② 없다.

2) “있다”라고 답하신 분의 경우, 중도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내용의 부적절성, 흥미 상실
- ② 교육 시간의 불편
- ③ 가사 부담 (육아 포함)
- ④ 가족 이해 부족
- ⑤ 학습비 부담
- ⑥ 자신의 의지 부족
- ⑦ 기타(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8. 귀하가 현재 교육받고 계신 평생교육원의 소속 대학은?

(해당 번호에 V 하십시오)

- 1) ① 2년제(3년제) ② 4년제
2) ① 여자 대학 ② 남녀 공학

II. 다음은 대학평생교육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지표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맨 오른쪽 칸의 해당 번호에 V 하시오.

분석항목	지표(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 대학평생교육 원에 대한 기대	1.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함양하기를 원한다.	4	3	2	1
	2.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전문적 직업능력을 취득하기를 원한다.	4	3	2	1
	3.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교양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4	3	2	1
	4.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취미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4	3	2	1
	5. 나는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사회봉사 및 참여를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4	3	2	1
나. 프로그램 평가	6. 프로그램 시간대가 여성이 참여하기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편이다.	4	3	2	1
	7. 교육내용이나 자료가 여성의 삶과 관련이 있다.	4	3	2	1
	8. 교육내용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의식을 제고하는 편이다.	4	3	2	1
	9. 교육내용이나 방법 결정에 학습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참여할 기회가 있다.	4	3	2	1
다. 학습지원환경 평가	10. 탁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4	3	2	1
	11. 교육관련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다.	4	3	2	1
	12. 학습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다.	4	3	2	1
	13. 강사들이 성평등 의식이 있고 여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이다.	4	3	2	1
	14. 교통환경이 좋은 편이다.	4	3	2	1

분석항목	지표(질문)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타 기관과 비교 (타 기관에서 교육받 은 경험이 있는 사람 만 응답하시오)	15. 다른 기관에 비해 대학평생교육원 교육의 수 준이 높은 편이다(전문성).	4	3	2	1
	16. 다른 기관에 비해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프 로그램이 다양한 편이다(다양성).	4	3	2	1
	17. 대학평생교육원은 다른 기관에 비해 여성의 식을 제고하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 본다.	4	3	2	1
라. 성과 평가	18. 대학평생교육원의 교육이 가사관리(육아, 자 녀 및 가족관리, 요리 등)에 도움이 되었다.	4	3	2	1
	19. 직업능력 제고나 취업,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 었다.	4	3	2	1
	20. 사회봉사 및 참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	3	2	1
	21. 여성으로서의 (주체적)의식을 증대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4	3	2	1
	22. 교육을 통해 여러 자원(정보, 교육, 소득, 정 치, 사회활동 등)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증대되었다.	4	3	2	1
마. 여성 학습자의 요구	23. 앞으로 여성의식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4	3	2	1
	24. 앞으로 가사관리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4	3	2	1
	25. 앞으로 직업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4	3	2	1
	26. 앞으로 사회참여, 봉사를 위한 교육에 참여 하고 싶다.	4	3	2	1
	27. 앞으로 취미교육에 참여하고 싶다.	4	3	2	1
	28. 교육내용이나 방법 결정에 참여기회가 있으 면 좋겠다.	4	3	2	1
	29. 교육내용이나 자료가 여성의 삶과 관련되어 구성되면 좋겠다.	4	3	2	1
	30. 프로그램 종류나 시간이 더 다양했으면 좋 겠다.	4	3	2	1
	31. 탁아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	4	3	2	1
	32. 교육정보나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면 좋겠다.	4	3	2	1
	33. 학습비 부담이 줄면 좋겠다.	4	3	2	1

9. 대학평생교육원이 여성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강좌 개설, 내용, 방법, 시간, 기타 학습환경 등에 대한 요구 사항)

10. 귀하의 연령은? ()

- | | |
|------------|------------|
| ① 29세 이하 | ② 30 ~ 39세 |
| ③ 40 ~ 49세 | ④ 50세 이상 |

1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 ① 전업주부 | ② 취업 주부(시간제, 전일제) |
| ③ 미혼 취업여성 | ④ 미혼 미취업여성 |
| ⑤ 기타 | |

12. 귀하의 학력은? ()

- | | |
|--------|------|
|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 ③ 대졸이상 | ④ 기타 |

☘ 감사합니다 ☘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性認知的 운영 방안

2002년 12월 27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9,000원>

ISBN 89-8491-042-2 93370